

바다엔 새 꿈의 희망

전국농민대표

추경 50년사





Fisheries

—
조업

생명의 바다를 일구어갑니다



남해군수협 - 멸치탈이



Aquaculture

—
양식

풍요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공모전 입선 - 굴양식장의 여유(유치자)

An aerial photograph of a bustling fish market dock. Numerous workers, many wearing red caps, are seen sorting and handling large quantities of fish, likely sardines, which are packed into wooden crates. The crates are arranged in neat rows on the dock. In the background, a blue boat is visible, and a worker is seen gesturing towards the water. The scene captures the scale and activity of commercial fishing operations.

Marketing

—
유통

신뢰의 바다를 지켜갑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공모전 동상 - 갈치이야기(이대유)

바다여, 희망이여, 수협이여

사홍만(시인, 장흥군수협 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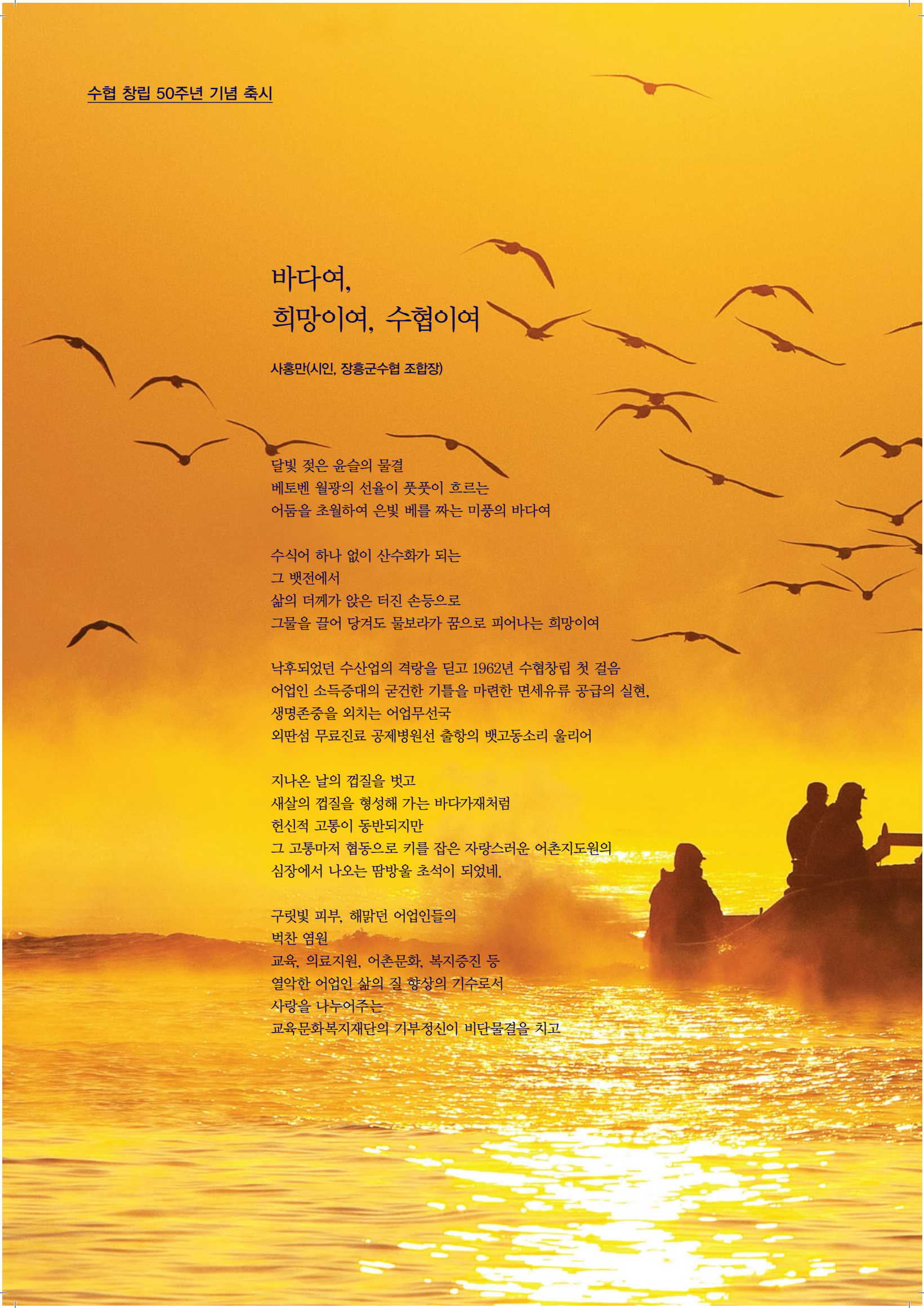
달빛 젖은 윤슬의 물결
베토벤 월광의 선율이 곳곳이 흐르는
어둠을 초월하여 은빛 베를 짜는 미풍의 바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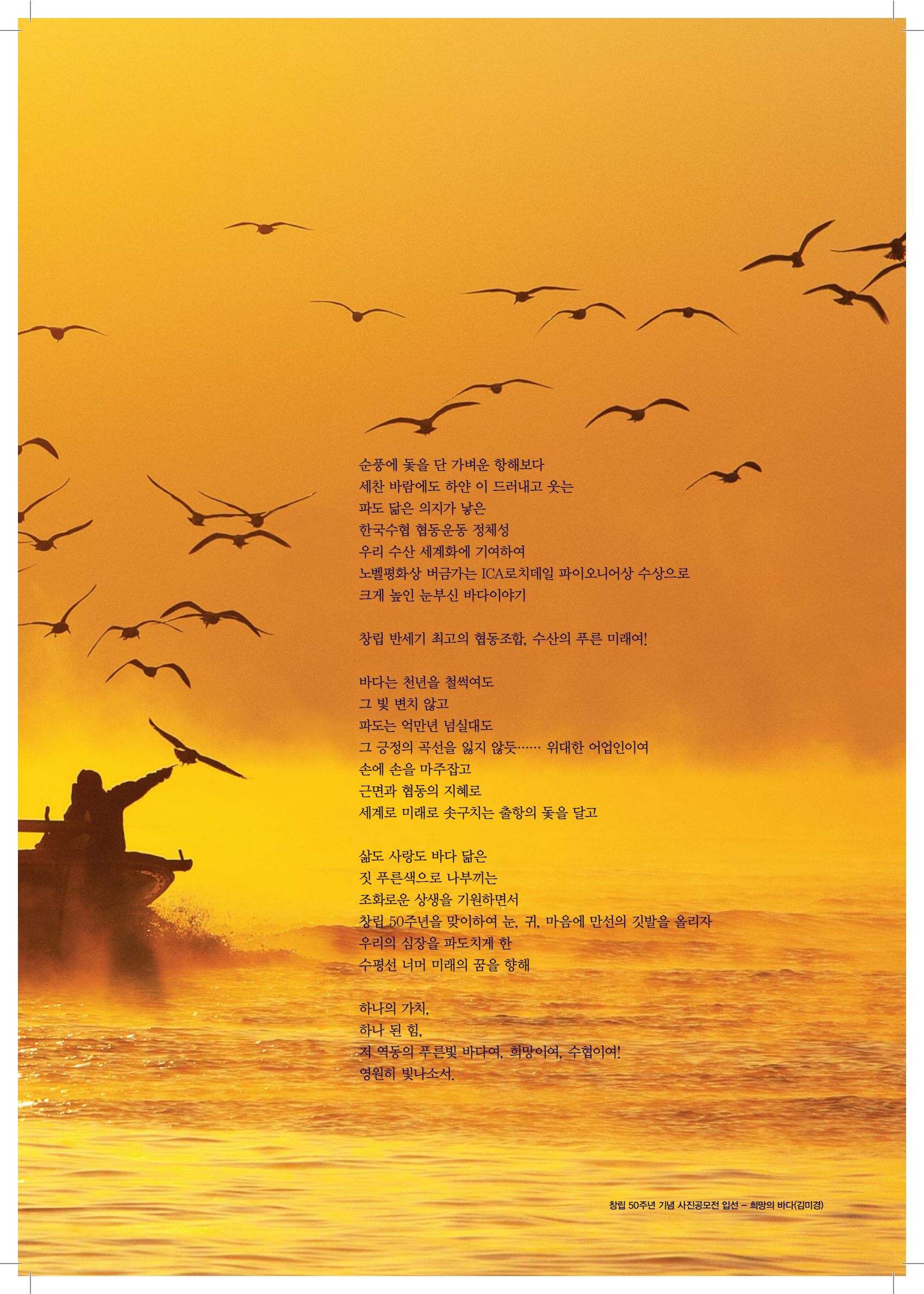
수식어 하나 없이 산수화가 되는
그 뱃전에서
삶의 터계가 앓은 터진 손등으로
그물을 끌어 당겨도 물보라가 꿈으로 피어나는 희망이여

낙후되었던 수산업의 격랑을 딛고 1962년 수협창립 첫 걸음
어업인 소득증대의 굳건한 기틀을 마련한 면세유류 공급의 실현,
생명존중을 외치는 어업무선국
외탄심 무료진료 공제병원선 출항의 뱃고동소리 울리어

지나온 날의 껍질을 벗고
새살의 껍질을 형성해 가는 바다가재처럼
헌신적 고통이 동반되지만
그 고통마저 협동으로 키를 잡은 자랑스러운 어촌지도원의
심장에서 나오는 땀방울 초석이 되었네.

구릿빛 피부, 해맑던 어업인들의
벽찬 염원
교육, 의료지원, 어촌문화, 복지증진 등
열악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기수로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육문화복지재단의 기부정신이 비단물결을 치고





순풍에 돛을 단 가벼운 항해보다
세찬 바람에도 하얀 이 드리내고 웃는
파도 닮은 의지가 남은
한국수협 협동운동 정체성
우리 수산 세계화에 기여하여
노벨평화상 버금가는 ICA로치데일 파이오니어상 수상으로
크게 높인 눈부신 바다이야기

창립 반세기 최고의 협동조합, 수산의 푸른 미래여!

바다는 천년을 철썩여도
그 빛 변치 않고
파도는 억만년 넘실대도
그 긍정의 곡선을 잃지 않듯..... 위대한 어업인이여
손에 손을 마주잡고
근면과 협동의 지혜로
세계로 미래로 솟구치는 출항의 돛을 달고

삶도 사랑도 바다 닮은
짓 푸른색으로 나부끼는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면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눈, 귀, 마음에 만선의 깃발을 올리자
우리의 심장을 파도치게 한
수평선 너머 미래의 꿈을 향해

하나의 가치,
하나 된 힘,
저 역동의 푸른빛 바다여, 희망이여, 수협이여!
영원히 빛나소서.



반세기의 힘찬 항해를 이어, ‘바다 너머 새로운 미래’를 향해가는 출항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주는 수산업 중심체로서의 수협이 역사적인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생명과 나눔과 희망이 있는 소중한 우리 바다를 든든히 지켜온 반세기, 어업인과 고객 그리고 국민 모두와 함께 해온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50년은 비단 수협의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 한 수산업의 역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사였습니다.

한말의 혼돈과 일제의 수탈, 한국전쟁의 비극을 거치는 동안 우리 수산업은 참으로 많은 역경을 견뎌야 했으며, 우리 어촌과 어업인은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1962년 수협법 제정과 수협 탄생이 역사적으로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 같은 절곡의 역사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여는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협동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 창립 이래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복지어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역사서는 바다 너머 새로운 미래로 우리 수산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협동조합’은 수산인을 위한 최고의 협동조합,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최고의 협동조합, 임직원의 자랑스러운 최고의 협동조합으로서 모든 수협가족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서 50주년을 맞이하는 수협으로서는 더욱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수협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세계 속의 수협으로 거듭남과 더불어 지혜로운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행복한 어촌에서 수산의 푸른 미래를 창조하도록 위대한 수협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李 鍾 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 종 구

2012년 4월 1일



한국 수협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한국 수협중앙회 50주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더없는 영광입니다. 한국 수협중앙회는 협동조합 운동의 원칙과 가치를 실현해 온 산 증인이며, 전 세계 95개국 254개 단체와 10억 명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가족의 중요한 존경받는 일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협동조합은 발전 과정에서 큰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화는 현 금융체제의 기득권 세력에게 부를 안겨다 준 반면, 많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 독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여전히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근과 질병과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협동조합원인 우리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치와 원칙은 이미 검증된 협동조합의 사업방식입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은 인류가 직면한 일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수협은 수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미래에도 한국 수협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확신하며, 협동조합의 원칙과 가치가 한국 수협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연히도 한국 수협중앙회 50주년은 “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라는 구호 아래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분명 ‘세계 협동조합의 해’는 대중에게 협동조합이 무엇인가 하는 인식을 제고하는 매우 드문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헌신된 조합원들이 알고 있듯이 협동조합 사업모델은 현재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많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CA는 UN으로부터 이러한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성공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특별한 기회에 한국 수협이 ‘세계 협동조합의 해’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 수협중앙회 50주년을 축하드리며, 다가오는 50년 동안에도 한국 수협이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협동조합 원칙을 지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의장 폴린 그린



Message to the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on the occasion of its 50th Anniversary 2012.

It is a great privilege to hav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you on the occasion of your 50th anniversary. The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is a testament to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co-operative movement, and remains an important and respected member of the ICA family, which currently numbers over 254 member organisations from 95 countries representing nearly one billion individuals worldw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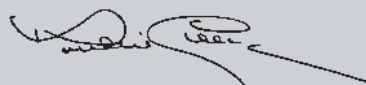
Over the last 50 years there have been great changes in the way some of us lead our lives. The much discussed “global economy” has become a poisoned chalice, benefiting those who have a vested interest in the current financial system, whilst largely failing to address the fundamental concerns of the many. Famine and disease are the challenges that confront us today, just as they were fifty years ago. As co-operators we can offer our Values and Principles, as a new way, a proven way “the co-operative way” of doing business, which if given the opportunity can provide solutions to some of these fundamental problems. The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is to be congratulated for playing an active role in promoting and developing the co-operative fishing industry in Korea, and have contributed to th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law submitted in 2009 and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1. I am sur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and I hope that those same Principles and Values will be your guiding light in any future negotiations.

I refer to the members of the ICA as “members of the ICA family” and it is not a term that I use lightly. Our family members in Japan suffered terribly in the aftermath of the catastrophic tsunami of 11 March 2011. I had the humble privilege to visit the area directly affected, and to see for myself the devastation brought upon the fishing infrastructure and its workers. In the midst of such destruction and turmoil I was so impressed to witness the resolve and commitment of the Japanese people, and in particular the co-operative community, to rebuild their lives. I hope that in some small way the contributions made by fellow co-operato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the ICA Japan Disaster Recovery Fund demonstrated our solidarity with the Japanese co-operative movement, and was a clear expression of our belief in the 6th Cooperative Principle,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Coinciding with your 50th anniversary celebrations is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IYC), with its slogan “Co-operative enterprises build a better world”. This i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to raise our co-operative profile and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public what we, as committed co-operators have always known, that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has much to offer in the current financial clima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was instrumental in securing this declaration from the United Nations and has worked hard to ensure that the Year will be a success.

I encourage and invite you all to be part of this unique opportunity, and hope that you will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IYC. I wish you a happy 50th birthday, and am confident that you will continue to serve your members and the Co-operative Principles over the next fifty years.

Dame Pauline Green President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수협인의 행동강령

전 세계 수협인은 제1회 '세계 수협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의 푸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천명한다.

- » 01. 우리 수협인은 인류 식량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수산업의 중요성과 수산업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린다.
- » 02. 우리 수협인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전 세계 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이 넘쳐나는 어촌 공동체 건설에 매진한다.
- » 03. 우리 수협인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공유하여 수산업의 미래가치 창출과 녹색성장 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에 앞장선다.
- » 04. 우리 수협인은 협동조합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어업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한 봉사함으로써 존경받는 수협이 되도록 노력한다.
- » 05. 우리 수협인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협동조합의 기본이념인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The Fisheries Cooperators' Pledge to the Fishermen of the World

On this First World Fisheries Cooperative Day, to improve the quality of fishermen's lives and to build a brighter future for fisheries worldwide We, the Fisheries Cooperators Worldwide pledge:

First, to take the lead in protecting the global fisheries as a human food resource, in publicizing the importance of the fisheries for the next generation, and in introducing the necessity of fisheries cooperatives worldwide;

Second, to encourage fishermen worldwide and strive to build active fishing communities, in order to realize sustainable fisheries businesses

Third, to strive to increase the value of the future fisheries and take further initiatives to create green growth in the industry, by actively sharing our collective experiences and expertise;

Fourth, in a cooperative spirit, to strive to earn the respect of the community of fishermen through service and by supporting their pursuit of happiness and

Last, to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of humankind and world peace, the fundamental ideals of co-operatives, in collaboration with International Cooperative Fisheries Organization and other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6 June 2011
Fisheries Cooperators Worldwide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창립 50년, 바다 너머 더 큰 미래로

2012년 4월 1일, 수협은 역사적인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개척의 역사로부터 협동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외길을 걸어온 수협이기에 반세기 역사의 정점을 찍는 이날이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50주년 기념사업들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소중하게 키워온 협동조합의 참된 가치를 드높이고,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으로서 새로운 수협의 정신을 확립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직의 미래설계를 위한 경영컨설팅부터 창립기념 행사까지, 미래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 준비한 기념사업 현장의 기록을 여기에 고스란히 담았다.



50주년 기념식

일자 | 2012년 4월 2일 장소 | 잠실롯데호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미래 100년을 기약하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에 많은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100년을 향한 힘찬 첫 걸음을 시작하였다.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수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수산인과 조합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올해 수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어업인의 날을 다시 지정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전국 수산인들이 모여 우리 수산업 발전과 미래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상자 여러분께도 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산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그 면적이 육지의 4.5배나 되는 해양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동안 바다보다는 대륙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바다로 적극적으로 진출한 민족은 모두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드넓은 대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57년 원양어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구를 350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며 매년 50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을 기록했고 원양 어획고 면에서는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업도 이제 국가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적고 인건비도 비싼 노르웨이는 철저한 자원 관리와 연구 개발, 과학적인 생산 시스템과 효율적인 유통체계로 세계 수산업을 선도하는 수산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한 세대 만에 세계적 경쟁력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수산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바다를 잘 보호해서, 수산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 풍성한 자원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산업은 어업과 양식업은 물론 좀 더 복합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유전자 공학 같은 첨단과학과 결합해 유망한 녹색 생명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어장의 생태환경도 잘 관리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자면 친환경 양식이나 저탄소 어업 기술, 해조류

바이오 기술 같은 녹색 수산기술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생산과 유통도 보다 과학적으로 개선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높은 품질의 우리 수산물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수산업 공간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사람의 손길이 덜 탄 순수한 자연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세계 5대 갯벌의 하나가 있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제주도를 비롯해 3,000여 개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육지와는 또 다른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화, 관광, 레저 같이 더 많은 산업들과 잘 연계하면, 우리 수산업은 더욱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융복합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우리 수산업은 이제 수출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23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삼, 김 같은 우리의 품질 좋은 수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본과 급성장하는 거대시장 중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여건입니다.

정부도 시설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서, 2020년까지 우리 농수산물 수출 300억 달러, 그 중 수산물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분이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 수산업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협 임직원 여러분, 지난 50년 간 수협은 수산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우리 수산업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수협이 펼치는 많은 활동 가운데 수산물 유통의 혁신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인들은 더 좋은 값을 받고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수협법 개정을 통해 지도 사업과 경제 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은 이런 역할을 더욱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문성과 규모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이 되고 당당히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글로벌 수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람이 최고의 자원이고 인프라인 만큼 수산인들의 교육과 복지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수협이 수산인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최고의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안함 2주기를 맞이하여 천안함을 최초 발견하고 수색 자원봉사를 한 장세광, 이명숙 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지정된 것을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수협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수협이 주역이 되어 미래 50년 수산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일
대통령 이명박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번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존경하는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그리고 저희 수협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먼저 수협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늘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수협이 수산인을 위한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서 수산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수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 수협은 대통령님께서 수산업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을 잊지 않으며 수산인과 고객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우리 수협은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던 50년 전 수산강국의 꿈을 안고 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시절 수산인들은 수산물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상당부분 기여하며 우리나라 근대화를 뒷받침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수협도 이를 도와 한 계단 한 계단 성장의 가도를 달려 온 것입니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수협은 때때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수산인 특유의 뚝심을 발휘하며 지금껏 수산인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협과 함께 해 주신 수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세월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을 발판으로 수협은 그 간의 성과를 수산인 여러분께 돌려드리기 위해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나간 세월 속에 남아 있는 부진과 시행착오의 교훈들을 간과하지 않으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수산인들 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리기 위한 노력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수협 임직원 여러분!

우리가 그 간 쌓아온 성과들이 대단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영광에만 연연해서는 수협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FTA 등을 통해 확대된 경제영토 속에서 우리는 세계와 경쟁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 세계 최고의 협동조합을 목표로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가운데 협동조합 정체성만큼은 더욱 강화시켜 최고의 협동조합이 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50년의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존과 자생을 위한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성과가 번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수산업의 인프라 못지않게 어업인들의 교육과 복지에도 많은 정성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여러분이야말로 수산업의 중심이자 근간임과 동시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성장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몰려오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라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더 다부진 각오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면서 수산업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지혜를 모으다 보면 우리 앞에 놓인 막연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변해 수산업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수협은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수산업 발전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 나가면서 수산인과 회원 조합 본위의 사업들을 펼치며 우리가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기념식이 수협의 반세기를 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수협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첫걸음을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대통령님과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이 종 구

09:00

» 출근인사



“희망찬 100년을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감동과 설렘의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 임원들은 출근하는 직원들을 밝은 미소와 악수로 맞이하며 뜻깊은 50주년의 하루를 시작했다.

11:00

» 기념식 시작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빛나는 50년의 역사’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각 국 수협 대표단 등 내외빈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11:10

» 영상물 상영



'수협의 지난 50년과 미래 50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수산강국의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딛은 이래 성장과정과 다양한 업적을 영상으로 담아낸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였다.

11:15

» 축시 낭송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 축시

바다여, 희망이여, 수협이여



작시 : 사홍만
(장흥군수협 조합장, 시인)

달빛 젖은 윤슬의 물결
베토벤 월광의 선율이 푹푹이 흐르는
어둠을 초월하여 은빛 베를 짜는 미풍의 바다여!

수식어 하나 없이 산수화가 되는
그 뱃전에서
삶의 터께가 앉은 터진 손등으로
그물을 끌어 당겨도 물보라가 꿈으로 피어나는 희망이여!

지나온 날의 껍질을 벗고
새살의 껍질을 형성에 가는 바다가재처럼
열악한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의 기수로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수협이여!



낭송 : 이의인
(수협중앙회 직원)

11:20

» 회장 기념사



11:25

» 유공자 포상



동탑산업훈장 | 강규봉
철탑산업훈장 | 하 원
산 업 포 장 | 임동홍, 홍경자, 방관혁
대 통 령 표 창 | 이길동, 박병찬, 김현길

11:30

» 대통령 축하



11:35
» 축하떡 커팅



사진 왼쪽부터 이윤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정호 전국조합장협의회장, 김명순 전국어촌사랑주부모임회장, 이명박 대통령, 장진환 양식어업인, 공선미 독도수비대원,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임승택 수협중앙회 과장

11:40
» '수협의 노래'
합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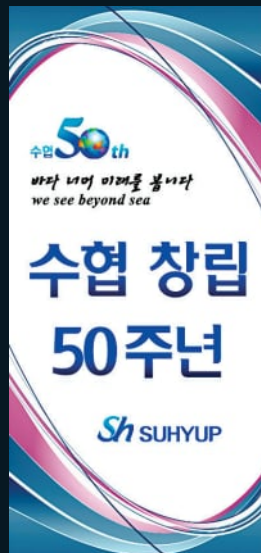
아름다운 화음으로 수협을 노래하다
전국합창대회에서 수상한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대동초등학교 합창단이
들려준 '수협의 노래'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였다.

» 해외
수협 대표단
수산업현장
방문



한국 수협과 수산업 발전 현장을 체험하다
ICA수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부산수협, 감천항물류센터, 부산공동어시장, 부경대학교 등을 방문하여
한국 수협의 어업인 지원 및 수산물 유통 시스템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50주년 기념사업



창립 기념식 외에도 수협중앙회는 5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100년을 향한 도약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사업 내용으로는 조직미래를 위한 경영컨설팅, 50주년 슬로건 및 비전 선포, 50주년 기념 홈페이지 개설, 특산 수산물 판매대전, 홍보 영상물 및 인쇄물 제작, 수협운동 선각자 전기 발간, 수협 50년사 발간, 어촌사진 공모전, 어업인 수기 공모전, 방송행사 유치, 수산지식나눔, 수산장학금 수여, 수산·어촌 대토론회, 국회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자전거 국토 해안 대장정 등이다.

비전선포



일자 | 2012년 1월 2일
장소 | 수협중앙회 2층 강당

‘바다 너머 미래를 봅니다
(we see beyond sea)’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

5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 발표와
더불어 새로운 '비전 2021'을 대내외에 선포

50주년 기념 홈페이지 개설



개설 | 2012년 2월 1일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
팝업 및 링크 배너 게시로
50주년 기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

수산장학금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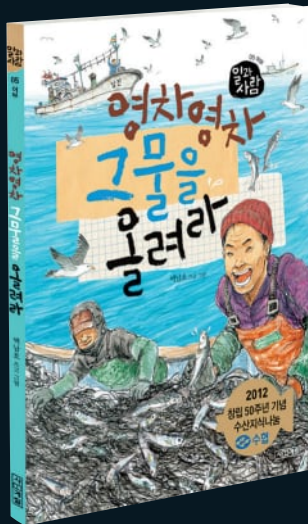


일자 | 2012년 3월 27일
장소 | 수협중앙회 2층 강당

수산인재 양성을 통해 수산업 발전을 도모
수산장학생 67명과 해난사고 유자녀 장학생
69명에게 총 2억 1,000만 원의 수산장학금 지급



창립 50주년 기념 수산지식나눔



일자 | 2012년 4월

전국 초등학교 대상 수산관련 도서 1만 3,450권 보급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 각인

수협운동 선각자 전기 발간



발간 | 2012년 4월

수협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헌신한
선각자들에 대한 연구·조명 사업
제 8, 9대 남문희 수협중앙회장 전기 발간

사진전



일자 | 2012년 4월 4일 ~ 9일 장소 |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3층

바다와 어촌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가치를 공유하고 바다환경 보존의 중요성 제고의 기회
2012년 2월 접수 마감한 '바다사랑 어촌사랑 사진공모전'의 당선 작품을 전시
1,400점 내외의 작품을 심사하여 대상 1명, 금상 3명, 은상 5명에게 각각 상장과 상금을 수여

시화전 및 서예전



일자 | 2012년 3월 28일 ~ 4월 6일 장소 | 수협중앙회 1층 로비

시화전 - 정정길 시인의 시를 고강 김준환 선생이 글씨와 그림으로 표현한 시·서화 34점, 방패연 3점 등 전시
작품 판매수익금의 50%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부
서예전 - 제9회 운파서도화원전 개최
지도교수 죽림 정용표 서예가 및 회원들의 작품 12점 전시

특산 수산물 대축제



일자 | 2012년 3월 31일 ~ 4월 1일

장소 |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등이 공동 참여하는 지역 특산 수산물 판매전 개최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개막식 부대행사로 사랑해 댕밥 만들기, 수산물 시식회 개최

CONTENTS



일 러 두 기

1. 『수협 50년사』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최초 제정된 1962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술이다.
2. 모든 고유명사와 명칭은 당시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3. ‘한글맞춤법통일안(문교부 고시 제88-1)’에 준한 맞춤법을 따랐으며,
띄어쓰기의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붙여 씀도 허용했다.
4. 모든 표기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원문을 표기했으며,
한글로 번역이 어려운 단어나 전문용어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5.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억’이나 ‘만’ 등 보조용어를 사용했다.
단, 관습상 편의를 위해 천 단위로 ()를 부기하였다.
6. 법률명 표기는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규칙(2005년 1월 1일 시행)’에 의거
훈낫표() 사용을 원칙으로 했으나, 과도한 훈낫표 사용으로 인한
미적 효과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띄어쓰기가 필요한 법률명에 한해 적용했다.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 축시	8
발간사	10
축하 메시지	12
수협인의 행동강령	15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16

PART 01. 통사편 HISTORY

연혁화보

The Dynamic Marks of Suhyup for 50 Years

제1부 1962~1975 생명의 바다, 어민을 위한 희망의 첫걸음 -수협의 탄생

제1장. 창립전사-우리 민족의 수산업과 수산단체	48
제2장. 어민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이름, 수협	58
제3장. 어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72

기획01 · 공제병원선의 궤적을 찾아서

86

제2부 1976~1989 바다와 함께, 고객과 함께 -더욱 큰 성장의 바다로

제1장. 성장을 향한 의지	96
제2장. 어민을 섬기며,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며	104
제3장. 수협의 새로운 위상과 세계를 향한 도전	112

기획02 · 獨島, 수협이 지키고 보전합니다

120

제3부 1990~2001 하나가 되어, 위기를 넘고 -대약진운동과 IMF외환위기

제1장. 민주 수협의 기반 위에 대약진의 길로	132
제2장.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헤쳐 나가는 수협의 새물결	142
제3장.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길에 서다	150

기획03 · 세계 속의 수협으로 우뚝서다

156

제4부 2002~2012 도약의 21세기 -조직 혁신과 경쟁력 강화

제1장. 새로운 수협, 새로운 미래	168
제2장. '수산의 푸른 미래'를 창조하다	184
제3장.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	200
-창립 반세기	

기획04 · 역대 대통령과 우리 바다 그리고 수협

220

PART 02. 현황편 COMPANY

제1부 사업

Ⅰ. 지도경제사업	269
Ⅱ. 신용사업	290
Ⅲ. 노동조합	306
Ⅳ. 자회사	307
Ⅴ. 동우회	311

제2부 회원조합사

315

제3부 사회공헌활동

418

기획05 · 우리 수산의 미래를 말한다

432

PART 03. 부록편 APPENDIX

01. 기구조직도	486
02. CI / Communication Brand	488
03. 창립 50주년 기념 엠블럼 · 슬로건	489
04. 현직 임원	490
05. 역대 회장 및 재임기간	494
06. 역대 운영위원회 · 비상임이사 · 대의원회	496
07. 역대 임원 및 부서장 명단	500
08. 전국 어촌계장 명단	514
09. 대외 수상	522
10. 포상 내역	526
11. 수산 50년 어제와 오늘	542
12. 주요 통계	546
13. 광고 변천	548
14. 수협 소식지 변천	555
15. 수협 발간 간행물	558
16. 신문 1면의 수협	560
17. 사료기증 이벤트	572
18. 수협통계 조사월보 연구논단	576
19. 연표	588
20. 50년을 함께한 50대 수산물	594
50년을 함께한 아름다운 얼굴들	596



PART 01

HISTORY

Development to Innovation

D e v e l o p m e n t

연혁화보

The Dynamic Marks of Suhyup for 50 years

제1부 • 1962~1975

생명의 바다, 어민을 위한 희망의 첫걸음-수협이 탄생

제2부 • 1976~1989

바다와 함께 고객과 함께-더욱 큰 성장의 바다로

제3부 • 1990~2001

하나가 되어, 위기를 넘고-대약진 운동과 IMF 외환위기

제4부 • 2002~2012

도약의 21세기-조직 혁신과 경쟁력 강화

t o l l n o v a t i o n

The Dynamic Marks of Suhyup for 5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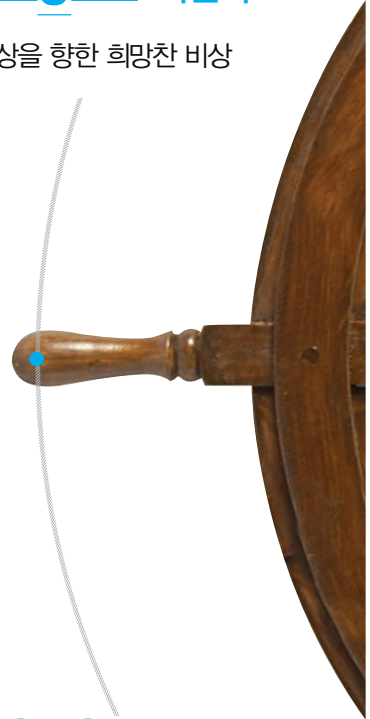
201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이하 수협중앙회)가 역사적인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One for All, All for One)'라는 협동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우리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복지여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아름다운 반세기였다. 지난 50년 동안 이어온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지금도 수협중앙회는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협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0 혁신기

세상을 향한 희망찬 비상

1990 도약기

더 넓은 바다로의 힘찬 도약



2012 글로벌기

바다 너머 미래를 보다

1960 개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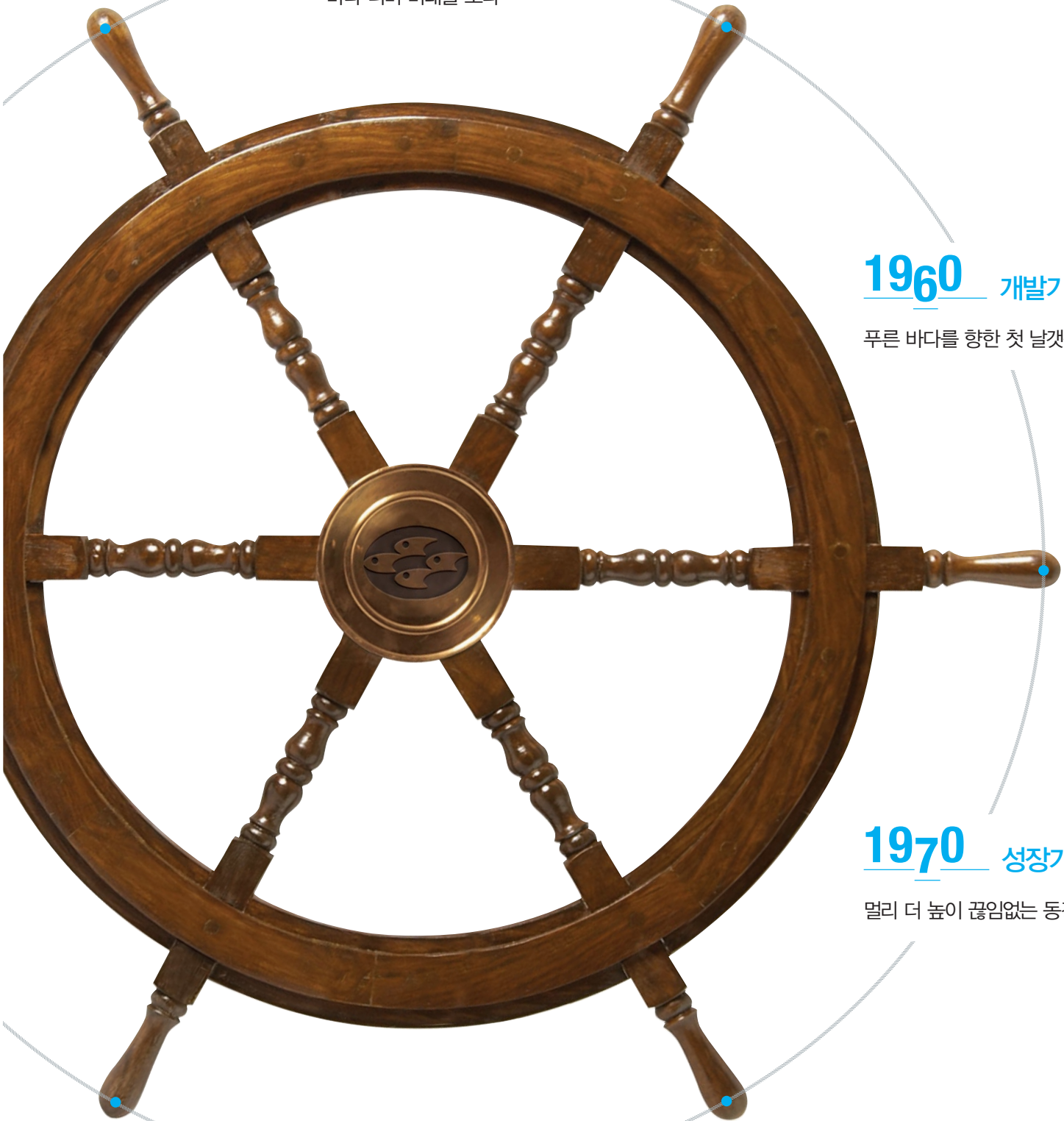
푸른 바다를 향한 첫 날갯짓

1970 성장기

멀리 더 높이 끊임없는 동경

1980 안정기

풍요로운 바다를 감싸는 꿈



1962.04
수협중앙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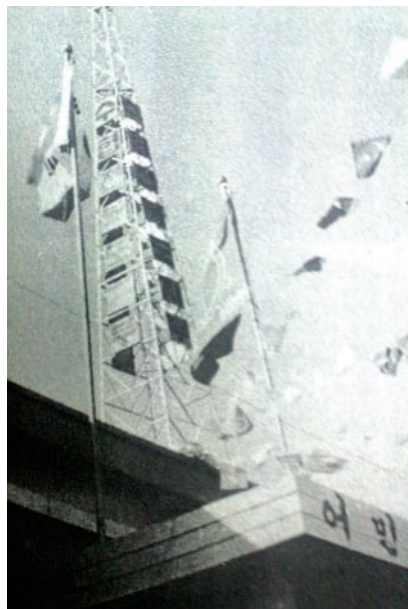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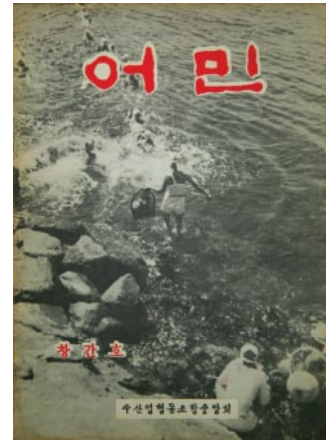


1963.05
여신업무 개시

1963.11
'수협의 노래' 제정



1963.12
<어민>지 창간



1966.09
어업무선통신업무 수협 전담

1966.12
영세어민 무담보 신용대출 실시

1967.12
어업용 유류 면세조치 시행

1965.04
수산자금 취급 개시

1965.05
어업용 유류 직배 개시



1960's Age of Development

푸른 바다를 향한 첫 날갯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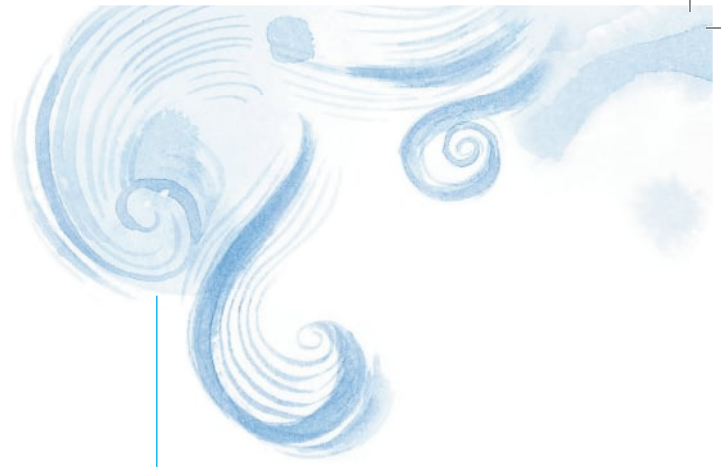


1969.01
100억 자체자금 조성운동 전개



1969.11
제1회 '새어민상' 시상

1969.04
일반 수산업무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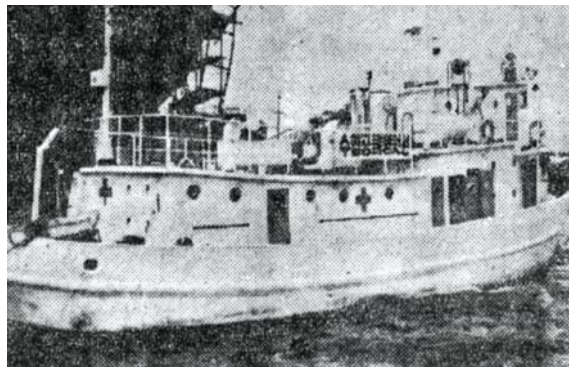
1970.03

수산물 군납 개시



1970's Age of Growth

멀리 더 높이 끊임없는 동경



1974.07

공제병원선 '척양호' 첫 취항



1976.04

수협중앙회 수산물 수출업무 개시



1970.08
청사 이전
(종로구 신문로->경운동 수운회관)



1972.0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업무 실시

1974.06
회원조합 상호금융업무 개시



1977.02
수협중앙회 전산업무 개시



1977.11
부평 수협연수원 개원

1979.03
ICA(국제협동조합연맹) 가입



1979.01
을류외국환업무 개시



1980.08
새수협인상 정립 결의대회



1982.12
온라인컴퓨터 도입



1983.05
청량리수산물시범직매장 개장

1984.05
온라인 예금업무 개시



1988.12
노량진수산물시장 인수 결기대회



1988.02
신탁업무 개시



1983.10

제20회 수출의 날 2,000만 달러 수출의 탑 수상



1984.02

상호적금업무 개시

1980's Age of Stabilization

풍요로운 바다를 감싸는 꿈



1988.12

수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실시



1989.12

수협전자계산소 신축공사 기공식

1990.04

최초 민선 중앙회장(홍종문) 취임

1990.12

3조 원 자체자금 조성 결의대회



1990's Age of Takeoff

더 넓은 바다로의 힘찬 도약

1996.01

10조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 전개



1997.01

(주)수협사료 설립

1991.04
타행환업무 개시

1991.10
신용카드업무 개시

1992.08
(주)수협유통 설립

1993.10
수협중앙회 잠실청사 준공



1997.02
독도연구보전협회 독도사랑기금 지원



1997.07
천안 수협연수원 개원



1999.03
감천항물류센터 준공

2003.03
수협 위성TV 방송 개국



2005.10
대한체육회 공식 후원 조인



2002.02
노량진수산물시장 인수



2009.04
수협소식지
〈어업인수산〉 창간



2009.09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2010.05
98금양호 수협장

2009.11
이종구 회장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선출

2011.04
인천가공물류센터 준공

2005.11
여수저유소 준공

2007.12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2008.12
상호금융 예탁금 10조 원 달성



2000's Age of Innovation

세상을 향한 희망찬 비상



2011.06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2011.11
이종구회장 ICA
로치데일 파이오니어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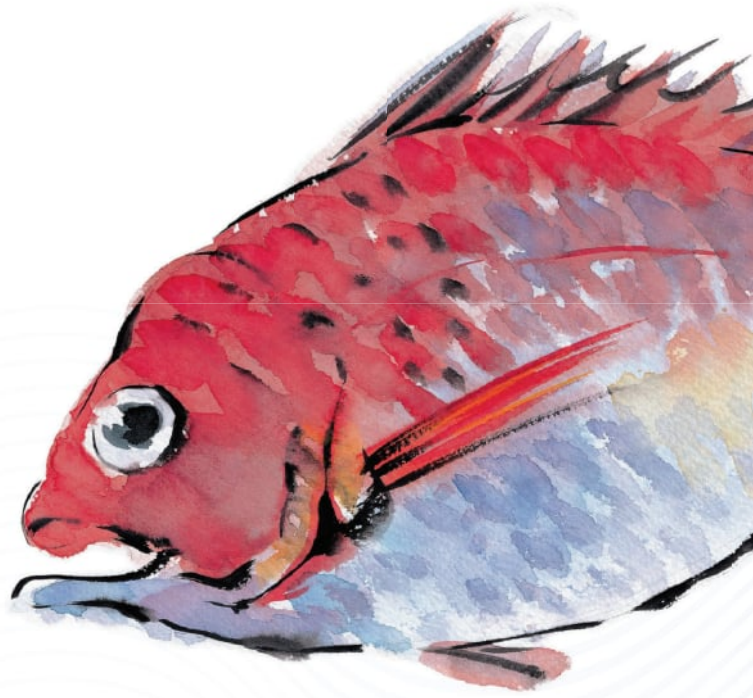
2011.09
차세대 전산시스템 'Nextro'오픈



2012.04
수협 창립 5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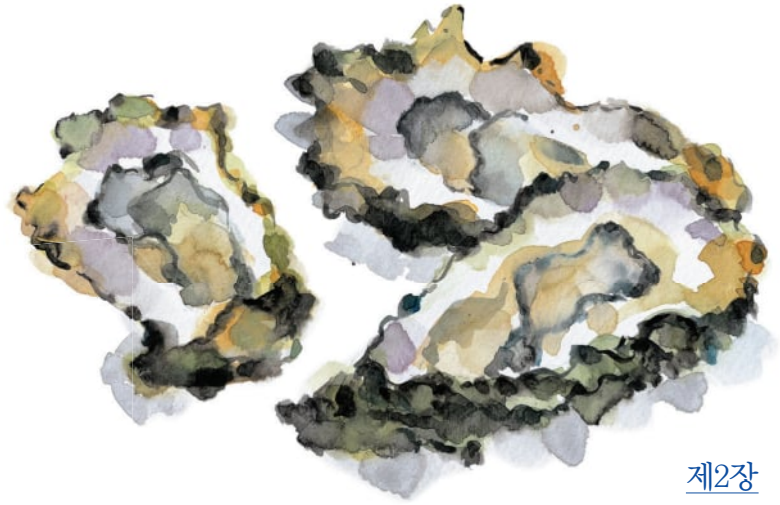
제1부

생명의 바다,
어민을 위한 희망의 첫걸음
수협이 탄생(1962~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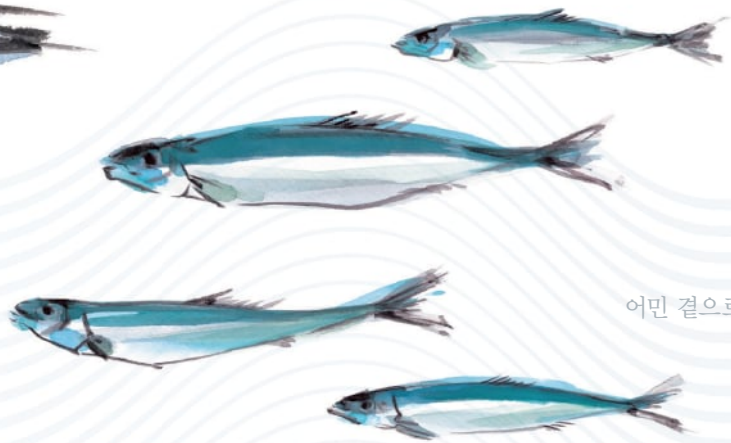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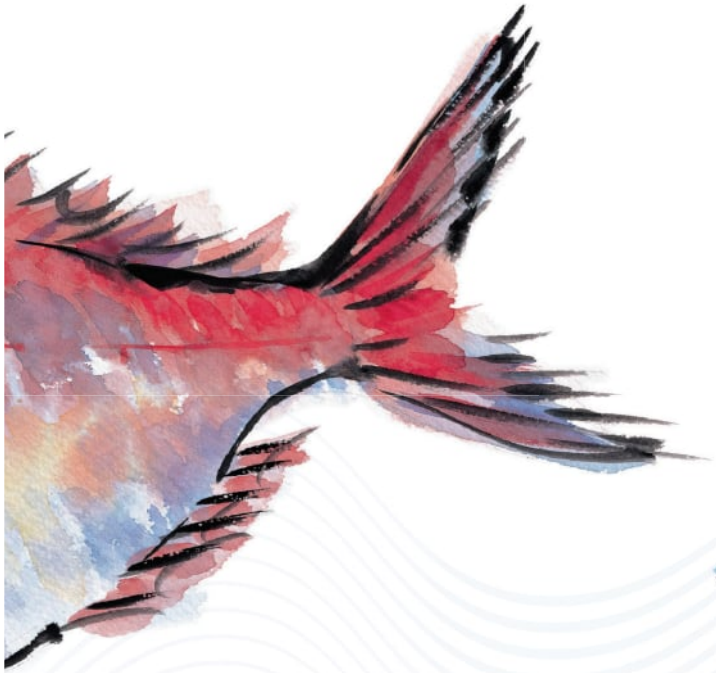
제1장 창립전사

우리 민족의
수산업과 수산단체



제2장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이름, 수협



제3장

어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한민족의 어로활동은 수만 년 전 석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근대적인 의미의 수산단체가 탄생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일제의 수탈과 6·25전쟁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산업계에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한 독립국가로서 새로운 수산업법 제정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그 궁극적인 결실이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이었다. 그리고 수협법에 의해 탄생한 수협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온 우리 민족의 어업과 어민들을 위해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수협은 이후 한국 경제의 고도화와 수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바탕으로 굳건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으며, 바다와 함께, 어민과 함께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다.

제1장

창립전사

—
우리 민족의
수산업과 수산단체

道光十九年己亥六月日李永仲翁以文
右以文事啟在久矣其心元而商而後
轉吉嚴漁仕立漁公一序者亦和更林五張
折所伐文卷一百五拾兩運為示之故主為志
日及以有和左一號以生告 官下呈

以文士陳寬性
策陳乃史、

수협의 맹아가 움트기 시작한 시간들

1954년 입법 작업 이후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공포되기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같은 공백은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과 정착이 그만큼 지연되어, 일제의 타성이 더욱 장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196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견뎌온 우리 민족의 어업과 어민들을 위해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기 위한 주역이 필요했다.

사진설명_ 1839년 전라도 흥덕현(지금의 고창군) 어전 매매문서(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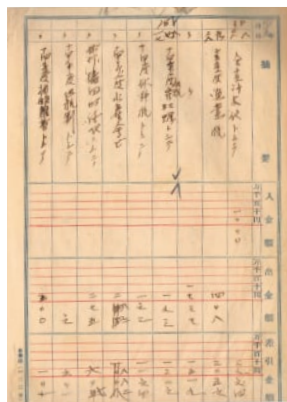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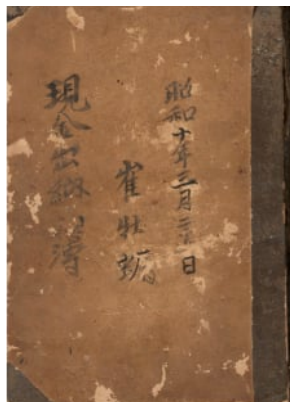
공동 번영의 민족정신과 수산단체의 뿌리



공동번영의 민족정신

»

인간의 역사는 '협동의 역사'다. 거칠고 척박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단을 이루어 생활한 이래 협동의 역사는 인간과 함께 해왔다. 러시아의 철학자이자 『만물은 서로 돕는다』의 저자 크로포트킨이 열거한 인간의 다양한 협동의 사례는 인류의 본능적인 협동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어업 역시 원시수렵활동이 시작된 선사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협동의 의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다수의 인력이 생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어업은 여타 산업보다 높은 협동지향성이 요구된다. 특히 상부상조의 정신을 이어온 민족적 전통과 결합하면서 우리나라의 어업은 반만년 장구한 역사 속에서 자생적인 협동조직체를 생성, 발전해 왔다.



경남 사천 곤양어촌계 금전출납부(1935년, 최기영 기증)

우리 민족의 협동정신 발현, 계(契)

»

계는 상고시대부터 태동한 우리 민족의 전통 협동조직으로 고려시대 때 성립되어 조선시대에 큰 발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업 관련 계에 대한 중세 이전 구체적인 문헌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고려시대 기록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어업은 어량(魚梁, 물길을 한곳으로 흐르도록 막은 뒤 통발을 놓아 고기를 잡는 장치)어업이었다. 고려도경,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 고문헌에 의하면 이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모여 있는 어량소(魚梁所)를 비롯해 괘소(藪所), 망소(網所) 등의 행정단위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에 생업형태의 어촌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협동노동과 어장자원의 공유가 필요한 어업형태에서 공동체의 총유(總有)에 기초한 공동경영이 보편적 경영형태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어업과 관련된 각종 소(所)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고려시대부터는 계 또는 이와 유사 형태의 공동경영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같은 어촌 자생 협동조직체의 존재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어계(漁契), 어부계(漁夫契), 해업계(海業契)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제가 한반도 수산자원의 수탈 목적으로 작성한 방대한 조사보고서인 '한국수산지'에는 제주도 휘리망(揮羅網), 방진망(防陣網) 어업에 관한 기술

에서 전통적 협동어업의 형태를 비교적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취리망 및 방진망에 있어서는 1개인이 영업하는 것은 극히 드물며, 대개 모두가 수십 명으로 구성된 협동조직으로서 조합원은 항시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일시적으로 관여하는 데 불과했다. 조직은 완비되어 조장과 부조장이 있었다. 조장은 도가(都家)라고 하는데 어업에 관한 일체의 일을 처결(處決)했다. 도가 밑에 소임(所任)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즉 부조장으로서 항시 도가를 보좌하고 혹은 도가의 의견을 조합에 전달하는 등의 직무(職務)에 종사했다. 별도로 계장(契長) 및 공원(公員)이라는 자가 있었으며, 이들은 마치 명예조장 및 명예부조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로서 조합원 중 고로(古老)를 택하여 이에 위촉했다. 실제 사무를 처리하는 일은 없고 다만 형식적으로 상담에 참여할 뿐이었다. 망지(網地)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도가가 소임과 함께 수인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가서 구입했으며, 귀촌 후 이를 망으로 제작할 때는 도가가 소임을 통하여 조합으로 내집(來集)시켰다. 그 부자(浮子), 고승(藁繩) 등 망을 제작하는 데 요하는 물품은 각자 지참시켰다. 지참할 물품의 수량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해 두었다. 어획물은 도가의 지시에 의하여 생선을 곧 조합원에게 분배하든가 혹은 생선 그대로 또는 건조시켜 상인에게 매도하여 그 소득을 조합원에게 등분(等分)하든가 했다. 그리고 도가와 소임은 조합원으로서의 소득 외에 1인반분(人半分)을 취득했으며, 계장 및 공원은 무급(無給)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공동출자, 공동노동, 공동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공동경영형태를 띤 조선시대 계조직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계의 조직은 오늘날 현대적 의미의 조합과 일맥상통하고, 실제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조합의 명칭을 도입하며 근대적 협동조직체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수산업협동조합의 효시,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과 거제한산모곽전조합

»

한일강제병합 직전인 1908년 7월 10일 구 한국정부 농상공부대신의 인가를 받아 거제한산가조어기조합과 거제

한산모곽전조합이 설립된다. 두 조합의 설립 목적, 배경 등에 대한 내용은 문헌자료의 미비로 인해 분명히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어업환경을 고려할 때 거제도, 한산도, 가조도 등 인접 지역에 산재한 부락 단위 소규모 협동조직체들이 협력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지역단위로 결성한 조직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거제도와 한산도 일대는 대구, 청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래식 대형정치망인 어장(漁帳)과 죽방렴(竹防簾)의 전신인 방렴(方簾)이 널리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모곽(毛簍), 즉 우뭇가사리를 비롯해 미역, 가사리가 대량으로 서식하여 해조류 채취업이 성행한 곳이기도 했다. 이 같은 어업환경에서 공통의 업종을 영위하며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부락 단위의 계 또는 유사 공동경영체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형태의 시초인 협동조직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두 조합은 1910년 통합되어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으로 개칭하였고 1912년에는 거제어업조합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게 된다. 두 조합은 우리나라 사람이 조직한 수산단체 중 최초로 조합이라는 명칭이 붙은 단체이자, 구한말 우리 정부가 인가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기에 충분하다.



거제어업조합 조합장과 임원들(1933년)

이처럼 상부상조의 전통 속에서 생성, 발전해 온 우리 고유의 어업 협동조직은 일제 침탈로 인해 자생적 성장의 기반을 상실하고 식민지 정책에 의해 왜곡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일제의 어업수탈과 근대수산단체의 태동



일제의 어업수탈과 수산단체

»

어업분야에서 일제의 수탈은 한일병합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1883년 한일 간 체결한 통상장정으로 인해 일본은 한반도 연안에서 공식적 어업권을 획득했다. 일본인들은 어획행위에 대한 세금조차 면제받은 채 한반도 전 연안에서 약탈적인 어업에 돌입했다. 한발 나아가 일제는 자국 내 어민들의 이주어업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걸쳐 침탈을 가속화했다. 마침내 1897년 2월 일제는 침략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조선어업협회(朝鮮漁業協會)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조선어업협회는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 어민들을 감독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였다. 일제는 이보다 앞서 1889년부터 일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부산수산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어민에 대한 보호와 이주어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 조선어업협회는 부산수

산주식회사의 업무를 인계받아 일제의 침략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기 시작한다.

1900년 5월에 이르러 조선어업협회의 후신으로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가 일본 후쿠오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다. 동시에 부산에 출장소를 개설하며 업무를 개시한 이 단체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한반도 연해에 출어하는 일본 어민을 지원하고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역할에 목적을 둔 단체였다.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는 1901년 8월 본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이듬해인 1902년에는 인천과 군산에 지부를 설치하며 업무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침략정책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일제는 자국 어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기관을 육성하고자 1902년 외국영해수산조합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근거하여 1903년 4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개편하여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產組合)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조선해수산조합은 앞서 설립된 단체들과 달리 법정단체로서 일제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하에 자국 어업과 어민들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마침내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조선총독부를 설치한 일제는 식민지 수탈정책을 가속화한다. 전 방위에 걸친 일제의 약탈에 어업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일제는 1911년 6월 3일 근대적 수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명목 하에 일본인의 한반도 어업 장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령(漁業令)을 공포했다.



부산수산주식회사(1926년)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설립 - 근대 수산단체의 태동

»

어업령 공포 이듬해인 1912년 2월 23일, 어업조합규칙과 수산조합규칙이 공포되어 전국에 걸쳐 조합의 설립이 본격화된다. 1912년 말 어업조합규칙에 근거하여 거제한산가조어기모곽전조합이 거제어업조합으로 개편되는 등 지역 어민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조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어업조합은 10년만인 1922년에 전국에 걸쳐 101개, 1930년에는 204곳에서 설립, 운영되는 등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각종 어업 관련 계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개편하면 곧 어업조합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강원도 후포어업조합, 경상북도의 영해어업조합, 경기도의 용유어업조합 등이 어촌계에서 조합으로 개편 조직된 대표적인 사례다.

수산조합은 지역이 아닌 업종을 기준으로 설립되는 단체로 수산조합규칙 공포 후 최초로 등장한 단체는 조선수산조합(朝鮮水産組合)이다. 이 단체는 1914년 7월 조선해수산조합을 개편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각 도에 지부를 설치했다.

이후 수산단체조직이 확대되는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23년 1월 조선수산회령(朝鮮水産會令)이 공포된다. 이로써 조선수산조합과 그 지부는 조선수산회 및 도수산회로 개편되고, 상급기관으로서 조선수

산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계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일병합 후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함으로써 근대 수산단체의 체계가 잡혀나가기 시작했으나, 이는 일제의 한반도 연안 어업권 침탈의 토대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어업수탈에 활용할 목적으로 수산단체 조직과 정비가 이뤄졌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의 통제 하에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왜곡되면서 한국수산업의 구조적인 병폐를 야기하고 식민지의 굴절된 잔재를 깊게 드리우게 됐다.

전국 수산단체의 계통조직화

»

어업령 시행 후 17년이 지난 1929년, 일제는 어업의 발달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한 제도 개선을 명목으로 조선어업령(朝鮮漁業令)을 공포하고 1930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선어업령의 가장 큰 특징은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의 상급기관으로서 연합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어업의 발달과 조합수의 증가에 따라 연합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어업조합들은 1930년 12월 29일 경상북도어업조합연합회를 효시로 하여 1940년 1월 충청남도어업조합연합회 설립을 마무리함으로써 연안을 접한 12개 도 모두에서 연합회 설립을 완료한다. 수산조합에서는 1936년 5월 19일 정어리 유비(油肥)제조업조합들이 조선약유비제조업수산조합연합회를 결성한 것이 최초이자 유일한 연합회 설립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이 연합회 설립이 이어지고 전국적 조직체계에 의한 중앙기관의 필요성 역시 고조됨에 따라 1937년 조선어업조합중앙회가 설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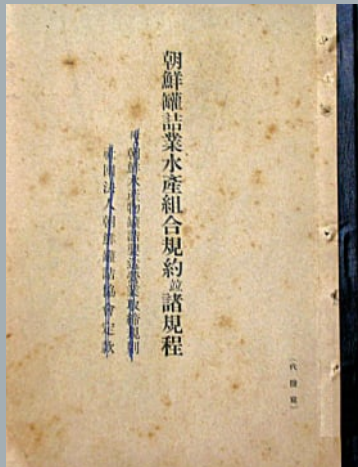
이처럼 조선어업령 시행 이후 수산단체는 기존의 어업조합(지구별 어업조합, 도별 연합회), 수산조합(업종별 수산조합, 연합회), 조선수산회(도별 수산회 포함)라는 세 계통의 조직이 병립하여 업무 중복과 상호 영역 침범에 따른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아울러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장기적인 전시 동원체제에 돌입한



군산어업조합(1930년대, 한국수산업단체사 p.110)

일제의 통제체제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산단체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1943년 9월 11일 시행된 수산단체법에 따라 기존 조선어업조합중앙회를 대체하여 조선수산업회가 설립되고 어업조합연합회와 수산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일원화된 계통 조직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처럼 우리 어업은 제국주의 식민정책에 철저히 희생된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점은 자생하여 성장해온 전통적 상부상조 어업 협동조직의 기반이 철저히 무너져 버렸다는 점이다. 즉 일제의 통제와 억압 속에 상부상조의 자율조직이 아닌 수탈에 동원되는 지원 조직으로 왜곡되어 버린 것이다.



조선관할업수산조합(朝鮮罐詰水産組合)
규약 및 제 규정(1930년대)



정어리기선견착망어선(1930년대, 한국수산업단체사 p.15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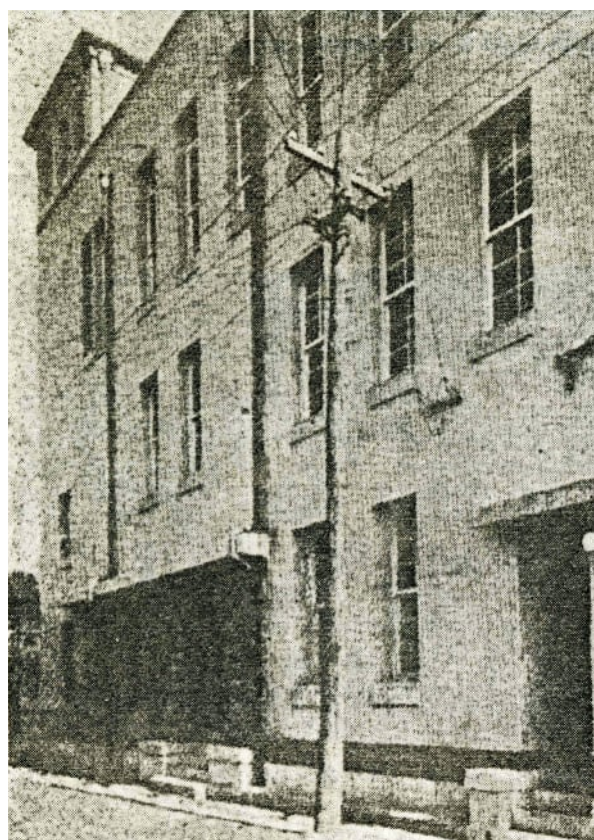
어업과 어민을 위한 민족적 과제



조선수산업회와 한국수산업회

»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수산업 관련 제도는 대체로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산단체 역시 1944년 단행된 통합작업 이후 조선수산업회와 어업조합연합회 및



조선수산업회

수산조합으로 이어지는 계통조직 체계가 존속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시작된 미군정 하에서도 수산단체는 일제시대의 구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 가운데 1946년 3월 미군정청은 어업취체규칙과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어업의 면허와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수산업회는 미군정청의 어업정책 대행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조선수산업회는 수산단체의 중앙조직으로서 일제의 업무를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물자 중 수산물자를 배급, 할당하고 수산자금을 산하 단체에 공급하는 등 어민과 회원조합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광복 후 정세 혼란과 물자 및 자금부족, 조직 운영 경험의 부족 등으로 전문성이 떨어져 역할의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조선수산업회는 대한민국 정부 출범에 따라 1949년 1월 30일 명칭을 한국수산업회로 변경하고 위탁판매, 수산자금대부, 수산자재 배급 및 수출입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해태 생산어민과 어업조합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대통령 유시에 의해 각종 사업의 실시기능을 대부분 상실당하고 만다. 한국수산업회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어업협동조합과 수산조합에서 각종 사업기능을 직접 수행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뿐이었다.



대한수산중앙회(서울시 중구 명동) ©국가기록원

수산업 협동조직의 정체성 회복 기반, 대한수산중앙회

»

1952년 11월 4일, 한국수산업회는 절치부심 끝에 수산업 협동조직 중앙단체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그리하여 설립된 것이 대한수산중앙회다. 수산업 중앙단체 기능 박탈에 따른 부작용에 고심하던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1953년 5월 4일 대통령지시로 대한수산중앙회 발족을 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설립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53년 5월 7일 국제연합한국부흥위원회단(UNKRA)의 원조사업에

의한 수산부흥계획을 목적으로 만든 수산관리위원회와 마찰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주요 업무이관을 요구하는 대한수산중앙회와 위원회 간에 대립과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위탁판매, 자금융자, 자재배급 등의 기능을 회복하고 수산단체의 단일 중앙조직으로서 그 기반을 확립하기 시작한다.

대한수산중앙회 설립은 어업인의 자조협동조직으로서의 단체기능을 회복하는 단초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일제의 통제와 억압 속에 젖어 있던 과거의 타성을 청산하고, 조직을 쇄신함으로써 수산단체의 단일 중앙 협동 조직체로서의 면모를 일신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를 보호, 육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심하고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1953년 강석천 이사장은 평화선 내의 일본어선 불법어로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대규모 어민결기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등 발족 초기부터 대한수산중앙회 본연의 임무와 역할 확대에 주력하며 조직의 위상을 확립해 나갔다.

1954년부터는 회장제로 직제를 변경하여 1대 안상한 회장이 취임했다. 이어 1955년 출범한 제2대 이한창 회장 재임기간에는 빈곤한 운영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자 회장과 임원진이 모두 경질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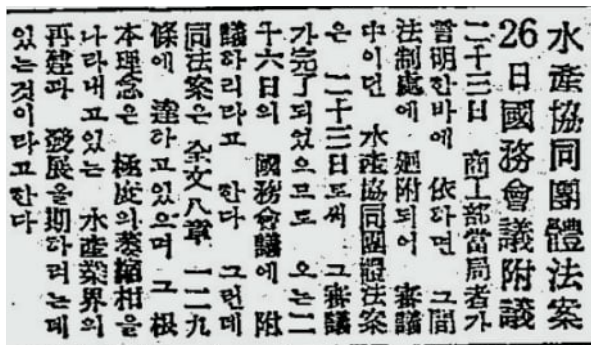


일본의 영해 침입을 규탄하는 전국어민결기대회(1952년 11월 1일 부산 충무로광장) ©국가기록원

같은 해부터 어선공제사업을 개시하며 협동조직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1958년부터는 선원공제사업도 개시했으며, 부산을 비롯한 주요 어항에서 어선원기술 양성을 위한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어업과 어업인 보호 육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일제와 미군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 왜곡된 채 머물고 있던 협동조직은 대한수산중앙회 설립을 계기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점차 회복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어업질서의 확립



수산업협동단체법안 26일 국무회의 부의 (조선일보) 1954년 3월 25일 1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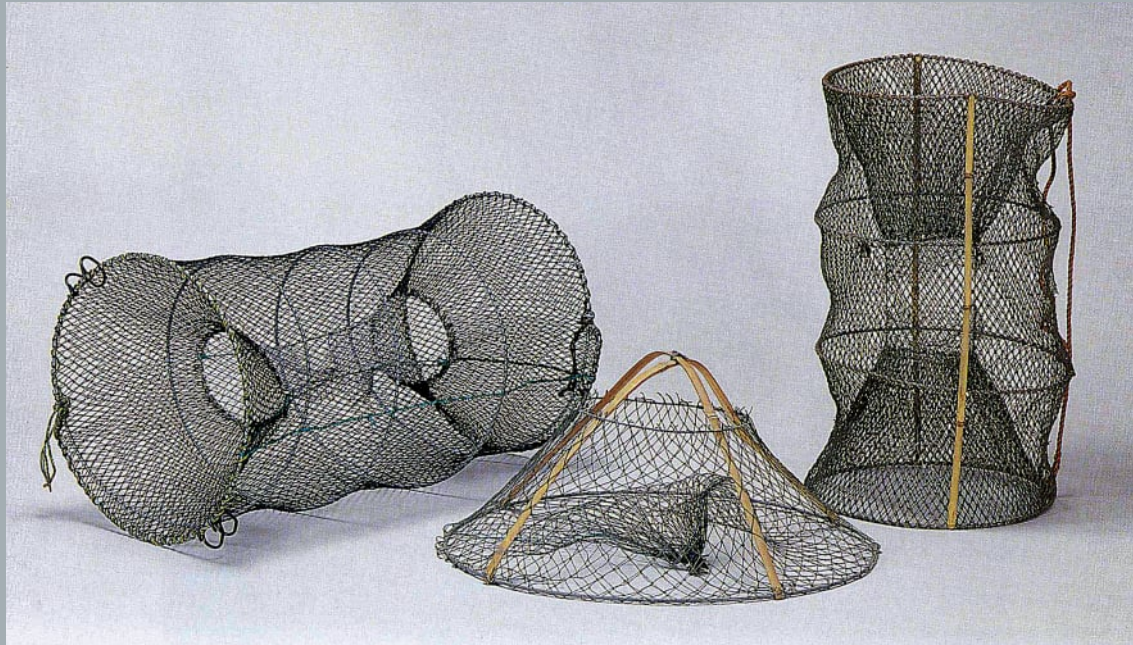
한편 광복 이후 독립국가로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수산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활발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지 못한 채 6·25전쟁이 발발한다. 전쟁의 혼란과 참상이 잦아든 1953년 9월,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수산업법이 공포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때 수산단체제도의 정비가 보류되면서 새로운 어업질서의 확립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동법 부칙 제79조에서 “조선어업령과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 관한 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기존 수산단체는 일제강점기 체제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뒤이은 미군정기 그리고 6·25전쟁, 역사적 격동기를 거치면서 수산업계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과 동시에 수산단체의 부실, 경합,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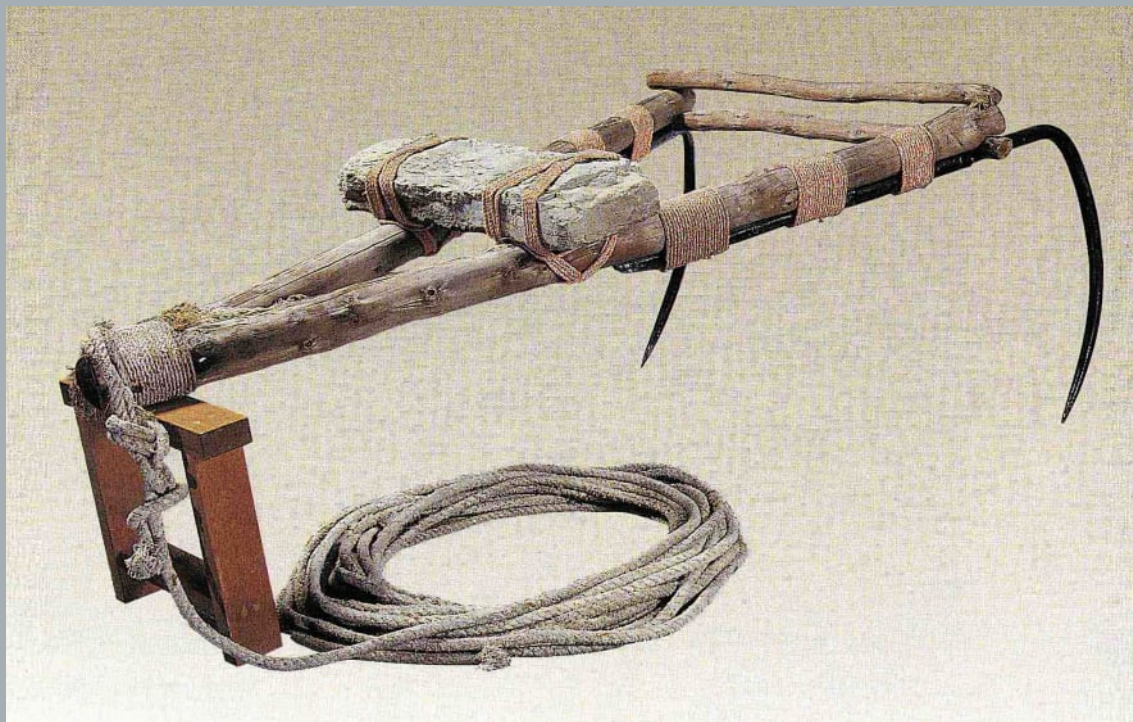
립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 같은 여론에 의해 1954년 1월 상공부 수산국은 수산업협동단체법이라는 법안을 작성하여 이를 법제처에 회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54년 입법 작업 이후 1962년 1월 20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 공포되기까지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만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약 16년간 일제시대의 수산단체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재현하고만 것이다.

이 같은 공백은 새로운 어업질서의 확립과 정착이 지연되고 수산업 발전이 더뎠음을 의미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어업과 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나가야 할 주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장구한 역사와 함께 성장하며 고난과 역경을 견뎌 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이 마침내 탄생 전야를 맞고 있었다.



고동통발 ©부경대학교 박물관



개불갈퀴 ©부경대학교 박물관

제2장

어민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이름, 수협

어민의 희망, 수산업의 새로운 서막

수산업은 황폐화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질 소중한 산업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광복 후 1960년대 이전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했다. 여기에 고립·분산된 어민을 조직화함으로써 자원과 어장 조성, 어업 관리에서부터 생산과 유통, 금융에서부터 가공 및 지도교육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수산업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였다.

사진설명_ 수협중앙회 현판식(1962년 4월 2일)

수협이 탄생



희망의 새 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바다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수산업의 역사는 매우 장구하며 그 의미 또한 지대했다. 그러나 1945년 광복 이후의 정치적 격동기와 1950년 6·25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수산업이 나아갈 새로운 길과 어민들에게 희망을 여는 길은 곧바로 열리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자국에 있던 어선과 어업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였다. 하지만 근대적 어업기술과 어업권의 취득, 수산자금 지원 같은 혜택은 일본인에게 우선 적용되었고, 우리 어민들은 선진화된 어업의 혜택을 보기보다는 더 심한 착취를 당하였다. 패망 후 일본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어선과 어구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광복 이후 어민들은 일본의 착취에서 벗어났지만 생산수단과 자재부족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광복 이전에 일본에서 들여오던 어망, 로프, 어선건조용 목재 등의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어민들은 해태(검)의 대일 수출을 통해 자재 수입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했지만, 공급이 단기적이고 턱없이 부족한 까닭에 지속적인 어업생산량 증대를 기대할 수 없었다. 생산수단이 부족해진 우리 수산업은 크게 정체될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탄 일본의 어선들은 어로 금지구역까지 들어와 어류를 남획하였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서러움도 모자라 우리 바다에서 타국의 어선이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참담함까지 느껴야 했다.



광복 이전 어촌의 위판장(나로도, 1930년대)



제주도 갈치잡이 조업(1963년, 수산통계연보)



수출용 해태(김) 건조와 채취(‘어민’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던 우리 수산업은 1950년 일어난 6·25전쟁에 의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전쟁 당시 어선 및 각종 수산시설이 크게 파괴됨으로써 수산업 생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어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선의 경우 수천 척 이상이 파괴되면서 당시 우리의 어업은 거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게다가 분단 이후 북방한계선으로 인한 조업수역 축소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경영, 생산 등 모든 활동에서 제약을 받거나 위축되었다. 어민들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가뜩이나 협소한 연안 어장에서 과잉조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소형 쌍끌이 어선으로 치어까지 끌어 담는 불법조업을 일삼았고, 그럴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목조선이라도 타고가 물고기를 건져 올렸다. 살기 위해 제 살을 파내는 심정으로 조업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졌고, 결국 연안어장의 황폐화와 어촌경제의 궁핍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해무청(海務廳)을 설립하고 수산업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어선 세력의 강화, 수산시설의 확충, 굴 증산 사업 등 수산시험 사업의 활성화를 시도했다. 물론 영세 어민들의 삶이 당장 운택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시도는 어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는 듯했다.

하지만 1959년 9월 17일에 발생한 태풍 사라호 때문에 1만여 척의 어선이 파괴되고 수산시설도 막심한 피해를 입으면서 어민들은 또다시 좌절에 빠져야 했다. 서서히 기반을 갖추고 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했던 수산지원금은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쓰이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악성 인플레이션과 물가 폭등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체 어획고의 과반수를 생산하고 있던 영세 어민들은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공부 소속의 수산국 역시 어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이용한 당시 상업자본가 세력인 객주(客主)들은 한 달에 4%가 넘는 이자와 더불어 잡은 수산물의 판매대금 3%를 챙겨갔다. 특히 도서벽지에 사는 어민들의 경우, 어획한 수산물의 운송과 생필품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 약점이 되어 더 심한 착취를 당하였다. 그러나 어민들은 이렇게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객주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당시 유일한 수산물 수출시장이었던 일본이 1940년대와 1950년대에 경제 침체를 겪은 데다 한일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수산물의 대일 수출마저 위축되어 어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수산인구의 증가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1946년 약 40만 명이던 수산인구는 1962년 약 113만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어업인구의 증가는 어류 남획과 어업 허가 남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어업행정을 혼선에 빠뜨렸다. 1960년대 초 기선저인망어업을 포함한 허가어업 건수는 어장의 적정 허가 범위를 넘어서서 일제 강점기의 2배 가까운 3,000건에 이르렀고, 면허어업도 6,000여 건이나 되었다. 어업분규 또한 급증해 어업 이용 관련 어민진정서가 2,000여 건에 달하며 우리 수산업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일이었다. 수산업은 황폐화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생계를 책임질 소중한 방안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광복 후 1960년대 이전까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만 했다. 여기에 고립·분산된 어민을 조직화함으로써 자원과 어장 조성, 어업 관리에서부터 생산과 유통, 금융에서부터 가공 및 지도교육에 이르기까지 근대적 수산업으로 재탄생시켜야 하는 것이 절대적 과제였다.

우리 수산업을 되살리고 어민의 희망을 열어줄 그 과제를 수행할 주체가 곧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었다. 따라서 수협의 탄생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일이었다.

수산업의 격랑을 헤쳐 일어서는 새로운 가능성

»

1960년대 초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수협의 탄생기였다. 그리고 그 역사적 탄생의 여건이 조성된 시기이기도 했다.

당시 우리 수산업은 큰 격랑을 겪고 있었으며, 수산업을 이끄는 수산단체 또한 혼돈과 진통 속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존립해온 우리나라 수산단체는 광복 이후에도 어업조합, 수산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및 대한수산중앙회로 나뉘어 있었다. 6·25전쟁 직후인 1955년에는 어업조합 160개, 수산조합 17개로 총 177개에서 1961년에

는 어업조합 152개, 수산조합 13개로 총 165개로 12개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경합과 부실조합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조합 난립에 대한 비판이 일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상공부 해무청은 1961년 6월 8일 ‘수산단체 정비폐합 요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비 대상 조합은 설립 요건이 미비하거나 과거 정치적으로 설립된 조합, 당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조합과 실제 휴무 상태에 있는 조합, 1959년도 및 1960년도 위판고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1,400만 원)에 미달하는 조합, 사업이 부진하여 재정상 유지가 곤란한 조합 등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수산단체 임직원 인사 쇄신 요강’이 각 지방에 시달되어 수산단체 인사행정의 부패와 구악(舊惡)을 일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 해무청은 ‘수산단체 정비폐합 요강’을 발표한 이후 152개의 어업조합 가운데 64개를 통폐합하여 총 88개 조합으로 정비했다. 수산조합은 이미 이전부터 꾸준한 자체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13개 조합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수산단체 정비폐합 요강’ 실시 후의 수산조합

한국제2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 한국제3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 한국제4구기선저인망어업수산조합, 한국제2구잡수기어업수산조합, 한국제3구잡수기어업수산조합, 한국제4구잡수기어업수산조합, 경남정치어업수산조합, 한국통조림어업수산조합, 한국청간척망어업수산조합, 한국한천제조업수산조합, 한국원양어업수산조합, 경남온망어업수산조합, 한국포경어업수산조합

아울러 각 수산단체의 기능 중복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어업조합의 각 도별 연합조직이었던 어업조합연합회 업무를 대한수산중앙회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대한수산중앙회는 152개 어업조합과 13개 수산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2단계 계통조직’으로 형성하여 1962년 4월 수협중앙회가 설립되기 직전까지 10년간 조선어업조합중앙회를 모체로 한 전국 수산단체의 중앙기구로 활약하게 되었다.

1961년 8월 1일까지 수산단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해무청은 같은 해 10월 2일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폐지되

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동안 해무청이 담당하던 수산행정업무는 농림부 수산국으로, 해양경비대업무는 내무부로 각각 이관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정부의 수산 정책에도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전의 수출산업 중심의 수산정책 방향이 수산업을 식량산업과 어촌경제 진흥에 있어 핵심산업으로 재인식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다.

설립의 기반 –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

우리나라에서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소생산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전국적·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것은 광복 이후이며, 그것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부터 농협의 조직과 구성 문제를 두고 부처간 의견이 대립되어 오던 중, 1957년 2월 14일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과 농업은행법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신용업무만을 취급하는 ‘농업은행’과, 신용업무 이외의 경제사업을 취급하는 ‘농협’이라는 이원적 조직체제로 분리·운영되는 기현상이 노출되었고, 당시 2만여 개에 달하던 농협이 신용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후 학계와 농민단체에서는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하여 신용업무를 포함한 경제사업과 지도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형농협(綜合型農協)으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1961년 7월 29일 농협과 농업은행 통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농협법이 제정·공포되어 종합농협이 출범하게 되었다.

종합농협이 수많은 영세 농민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었듯이, 삼면이 바다인 이 땅의 어민들에게도 진정한 동반자가 절실했다. 그리고 이미 그 새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이름이 바로 ‘수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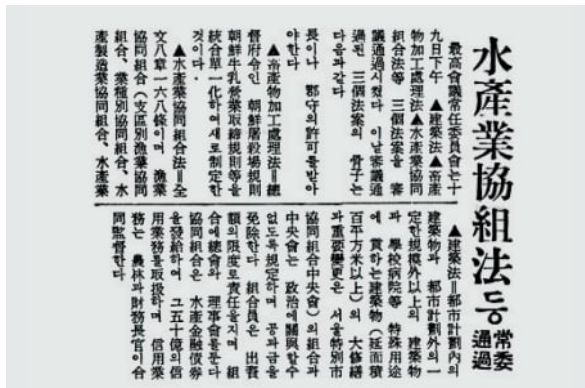
1954년 1월 16일 당시 상공부 수산국은 1953년 9월 9일 제정된 수산업법 부칙(제79조)에 의거하여 본문 140조와 부칙으로 된 전문 141조 수산업협동단체법 초안을 완성했고, 이 법안은 법제처에 회부되었다. 이후 정세가

복잡하여 오랜 기간 심의가 지연되어 오는 과정에 이 안은 전국의 수산관계자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961년 1월 23일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안이 다시 법제처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세가 복잡하여 오랫동안 심의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61년 1월 23일 오랜 시간 지연되었던 법안이 전국의 수산관계자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다시 법제처에 회부되었다. 이로써 수협 탄생의 근간이 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공포가 가시화되는 듯했지만 곧 발생한 5·16으로 인해 다시 지연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격동기에 잠시 표류하던 수협법은 수많은 어민들의 숙원에 힘입어 다시 활로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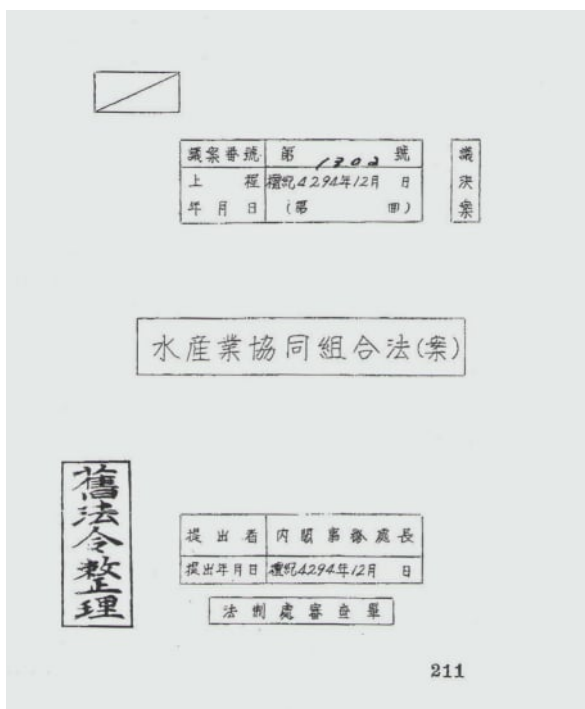
당시 입법부 기능을 갖게 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1962년 1월 19일, 전년 초부터 심의 요청 중에 있던 수협법에 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다음 날인 1월 20일 법률 제1013호로 공포되었다. 이로써 광복 후 최초의 수협법 초안이 만들어진 지 약 8년 만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본문 168조와 부칙 11조를 합친 총 179조인 단행법으로 탄생되었으며, 같은 해 3월 31일 대통령령 제619호로 수협법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수협법 초안에는 “조선어업령 제6장은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구 법령인 바 이는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대체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어민과 수산제조업자의 협동조합을 촉진하고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제정 이유를 명시하고 있었다.

제정 당시 수협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어업협동조합, 제3장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5장 회계, 제6장 감독, 제7장 벌칙, 제8장 보칙으로 구성되었다. 총칙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수협 계통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어업협동조합은 다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으로 양분하였다.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산하에 어촌계(漁村契)를 조직할 수 있게 했으며,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가구주’만을 조합원이 될



수협법 통과 (동아일보) 1962년 1월 20일 1면



통과된 수협법 초안 ©국가기록원

수 있도록 규정하여 1가구 1인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4장에 규정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두었다.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했으며, 회원은 전국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되었다.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선출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수협중앙회장,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명(3명은 대의원, 2명은 수산업과 수산경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했다. 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3명을 두도록 했으며, 회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내각수반(현 국무총리)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었다. 아울러 부회장과 이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역시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수협중앙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수협법은 1962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곧 수협의 탄생을 의미했다.



칼럼(이주호 청산사무국장) - 수협법 공포의 의의 (경향신문) 1962년 3월 23일 3면



수협중앙회 창립 현판식



설립 초기의 명동 청사 ©국가기록원

반세기 역사의 첫걸음 -

어민의 희망, 수산업의 새로운 서막

》

수협중앙회 초대 회장으로 거제 출신의 윤준근 씨가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내각수반으로부터 임명받았다. 또한 노갑술 부회장과 진도석 상임감사가 취임하여 첫

경영진을 구성했다. 조직의 구성과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소재 대한수산중앙회 청사를 인수하여 업무에 착수함으로써 그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수협법 공포 이후 공식적으로 수협 조직이 발족하기까지는 수협중앙회의 총회와 대의원회의 업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했으며, 단위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와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둘 수 있게 하고, 단위조합의 경영방침결정기관으로 이사회를 두었다. 운영위원회는 정관·규약·규정의 개정,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간부직원 임명 승인 등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최고의 정책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1962년 4월 20일 운영위원회는 최초의 직제규정(1966년 10월 6일부터 직제규약으로 변경)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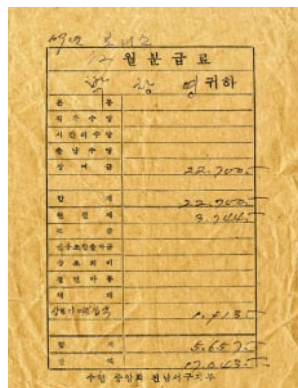
수산업협조 발족 <경향신문> 1962년 4월 2일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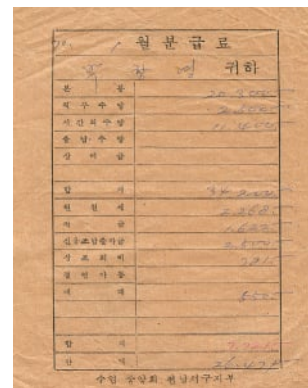
수협 최초 정관



직원임명장(1962년 5월 1일, 김윤덕 기증)



1969년 상여금명세서·1970년 급여명세서(박창영 기증)



에 총무부·사업부·신용부의 3개부와 공제사무국·청산사무국의 2개국을 두고, 지방조직으로 경상남도지부를 위시하여 9개 도지부를 두었다. 정원은 직급에 따라 참사 16명, 부참사 24명, 서기 및 서기보 82명, 임시직 19명 등 총 141명으로 책정하고, 공제사무국장, 청산사무국장, 9개 도지부장 등 11명의 간부직원을 임명했다.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수협법은 수협 탄생의 근거이자 기반이었다. 그리고 수협법의 시행과 동시에 1962년 4월 1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그 구성을 완료한 수협의 탄생은 우리 어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희망의 신호탄이자 '전근대적 어업'을 넘어 '근대적 수산업'의 시대를 여는 서막이었다.

전국에 걸친 회원조합의 탄생

»

수협법 시행과 수협 탄생을 계기로, 일제강점기의 잔재였던 과거의 수산단체들이 소멸되어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수협법에는 수협과 구 수산단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본법 시행 당시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수산중앙회는 수협중앙회로, 대한수산중앙회의 회원조합인 어업조합과 수산조합은 수협중앙회의 회원단체인 어업협동조합과 수산제조업협동조합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며, 단지 구 수산단체의 계통조직에 없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지구별 어업협동조합별로 별도로 설립하여 계통체계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조직체계에서는 모두 개별 어민 또는 수산업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전국의 단위조합, 그리고 이들 단위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중앙조직인 수협중앙회의 2단계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어촌계는 이러한 공식적인 수협계통조직에서는 제외되었다. 초창기에는 단일화된 수협법에 근거하여 회원조합의 분류 방식도 수산업법상의 수산업 분류 방식에 따라 수산업을 어업과 수산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어업을 다시 ‘일

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어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는 지역별 조합’과 ‘기업적 어업경영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으로 분류하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수협법 시행을 일주일 앞둔 1962년 3월 24일자 농림부장관 통첩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운영지침’을 산하 수산단체에 시달하고, 동시에 새로 탄생되는 수협조직의 ‘임원 후보자 추천지시’ 공문을 각 도에 시달하여 구 수산단체의 조직을 수협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조합장을 비롯한 수협의 임원, 기관 구성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수협법 시행일인 1962년 4월 1일 전국의 단위조합은 수협중앙회와 동시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였다.

단위조합은 지구별어업협동조합 86개, 업종별어업협동조합 11개, 수산제조업협동조합 2개 등 총 99개였다. 대청도어업조합, 거진어업조합 및 전남정치어업수산조합은 행정처리 미숙으로 4월 1일에 단위조합으로 개편 발족되지 못하고 누락되었다. 이후 대청도어업조합이 그해 7월 1일에, 전남정치어업수산조합이 8월 4일에, 거진어업조합이 8월 20일에 단위조합으로 발족하였다. 이로써 2개의 지구별 조합과 1개의 업종별 조합이 추가된 총 102개의 단위조합이 설립되면서 전국에 어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 구 수산단체의 수협 재편 과정 (1961~1962)

구분 / 시기	1961.06.08 수산단체 정비폐합 요강 실시 후	1962.04.01 수협중앙회 발족 후	1962.12.31
합계	101	99	102
수산조합	11	11	12
수산물 가공조합	2	2	2
어업조합	88	86	188

구 수산단체 부채 상황을 통한 초기의 기반 구축

»

수협중앙회는 창립과 동시에 대한수산중앙회 및 각 도 어업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인수하고 재산을 청산하는 업무에 착수했다. 먼저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 1962년 6월 2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업조합, 수산조



부산 자갈치 시장(1963년)

합, 대한수산중앙회 및 각 도 어업조합연합회의 재산평가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했다. 또 ‘어업조합, 수산조합의 재산평가위원회’는 각 단위조합의 주사무소에 두고 ‘대한수산중앙회 및 각 도 어업조합연합회의 재산평가위원회’는 수협중앙회 내에 두도록 했다.

1962년 12월 19일 수협중앙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수산중앙회 청산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시행했다. 그리고 청산위원회의 구성은 청산인과 수산청장이 임명한 위원 4인으로 하였으며, 청산인을 위원장으로 하였다.

이 같은 기본 절차를 거쳐 수협중앙회가 구 단체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총 5억 8,109만 3,000원으로, 이 중 유동자산은 5억 3,542만 6,000원, 고정자산은 4,566만 2,000원이었다. 그러나 부채 역시 총 5억 8,109만 3,000원으로 이 중 유동 부채가 5억 4,976만 4,000원, 부채정리기금이 3,132만 9,000원이었다. 창립 당시 총자산 7억 1,000만 원으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각종 사업전개와 조직운영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갓 탄생한 수협중앙회가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구 단체의 부채 정리였다.

당시 인수한 자산은 단위조합을 통하여 수산업에 필요한 어선건조시설 및 영어자금 등으로 지원된 채권들이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상환하여야 할 부채는 농협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해 온 각종 단기성 채무들로, 이 채무에 대한 지불이자만 해도 계속 누증되어 가는 상황이

었으며, 경제사업의 수익잉여금만으로는 부채상환에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매각 처분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자 급증과 부대비용의 누적 증가로 인해 부채상환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채권자들은 수협금고를 강제 집행하여 운영기금을 인출하는 등 수협자금이 청산계정에 전용(轉用)되어 고유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렇듯 구 수산단체의 부채 정리 문제는 과거의 망령이 되어 수협의 대내외적인 이미지와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초창기의 수협 발전을 오히려 막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대로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을 수 없었다. 수협은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구 단체의 인수부채 조기 정리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인수부채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함으로써 과거 부채정리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

그 결과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수협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으며, 1965년 ‘수협중앙회의 구 단체 인수부채 청산대책에 관한 대정부건의문’이 국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수협이 제정을 촉구한 특별조치법안에 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1965년 정부로부터 1억 8,000만 원, 1966년 1억 8,600만 원을 각각 보조 받아 구 수산단체의 부채를 모두 상환하게 됨으로써 1968년 12월 28일 드디어 수협은 구 수산단체 부채라는 족쇄에서 자유롭게 풀려나게 된다. 종결 당시의 청산인은 박상길 제5대 수협중앙회장이었고, 청산위원은 이철모, 김윤하, 어용주, 이민우였다.

Story in History



조운현 전(前) 수협중앙회 부회장

세 개의 암초, 수협법 제정으로의 험난한 항해

조운현 전(前) 수협중앙회 부회장은 1961년 농림부 수산국 어정과장으로 재직 당시 장경순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수협법 제정을 추진하라는 명을 받고 그 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관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수협법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수협법 제정 추진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조과장과 법학과를 나온 직원 두 명이 전부였으며,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결국 3개월 만에 수협법 초안 (이하 수협법안)을 만들어냈다.

고생 끝에 탄생한 수협법안이었지만 제정해 보기도 전에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수협중앙회장과 임원 선출 시 대위원회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과반수도 아니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의 이면에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조합장들은 경기, 충청, 전라를 묶은 서구권과 강원, 경상을 묶은 동구권으로 세력이 나뉘어 있었고, 그 수도 50대 50을 이루며 매우 팽팽하였다. 당연히 수협법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수협중앙회장 선출부터 시작해서 어떤 안건이든 제대로 의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조과장은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우격다짐이 아닌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 더욱 확고해졌고, 조합장들을 만나 일일이 설득하기에 이르렀다. 며칠을 설득한 끝에 수협법은 겨우 국무회의로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되었는데, 다른 아닌 수협법안에 명시된 신용업무를 제외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수산자금을 취급하던 농협에서 수협의 신용업무 취급에 대해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신용업무를 하지 못하는 수협은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했다. 따라서 수협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강경히 맞섰고, 결국 수협법안 제정은 3주 동안이나 방치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위기를 타개할 기회가 왔다. 수협법 제정이 지체되는 것을 보다 못한 장경순 농림부 장관이 왜 빨리 수협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느냐며 다그친 것이다. 이에 대해 농협이 신용업무를 통해 기반을 잡은 예를 들며 신용업무 없는 수협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 의중을 이해한 장관은 내각수반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결국 수협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수협법 제정이라는 배는 국회에서도 조용히 지나가지 못했다.

조합장들 사이에서도 문제시되었던 3분의 2 조항 때문이었다.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설득하며 수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수협법은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수협법 제정에 따라 수협중앙회장선거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과열된 선거가 치뤄졌으나 김재식 수산국장이 수협중앙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세 개의 암초에 부딪히며 만들어진 수협법 제정이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수협법 제정과 회장 선출을 계기로 동·서 조합장들은 서로 조금씩 소통의 문을 열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수협의 대단합, 미래를 향한 출발의 신호탄이 되었다.

※ 이 글은 2011년 10월 18일 편찬자료 기증이벤트 에피소드 수집을 위한 조운현 전(前) 수협중앙회 부회장과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작성

02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업을 위한 의지



수협의 최상 목표 – 잘 사는 어민과 어촌 만들기

»

수협의 설립은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싹틔운 일이었다. 수협은 발족과 동시에 이 땅의 모든 어민들, 나아가 오랜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 수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산적해 있었고, 향후 가야 할 길이 그만큼 멀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 어선은 약 90%가 무동력선일 정도로 조업여건이 열악했다. 1961년 어선 1척당 어업 생산량은 9.8톤에 불과했고, 어업 인구 1인당 소득은 762원으로 국민 1인당 평균소득 수준의 1/3에 지나지 않았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5년 동안 국민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4.1%인데 비해 어업성장률은 0.1%에 그쳤으며, 여기에서 매년 6.9%씩 수산인구가 늘어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우리나라 어촌은 궁핍함의 상징이었고,

우리 어민들은 가난의 대명사였다.

이처럼 어촌경제가 극도로 열악한 만큼 수협은 어민과 수산업을 살릴 특별한 과제를 안고 탄생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경영체제의 미비와 사업자금의 부족은 성장의 걸림돌이 되었다. 더군다나 당시 어민들의 조합원 가입률은 저조하여 1962년 말 조합에 가입한 어민 수는 6만 3,540명이었다. 한 어가당 조합원 1명이 가입한다고 할 때 조합원 가입률은 당시 전체 가입대상어가 19만 4,565호의 32.7%에 그치고 있었다. 초창기 수협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 약한 탓이었다. 따라서 어민이 먼저가 아닌 수협이 먼저 어민 곁으로 다가가야 했다.

어민들의 고단한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수협. 그 역사적 사명을 이루고자 수협은 스스로 강해지는 법과 더불어 잘사는 어민과 어촌을 만들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된다.



태풍에 파손된 배를 수리하는 어민들(1964년 울릉도)

생산 어민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유통질서 개척

»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어민과 어촌의 경제적 빈곤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수산물 객주’로 불리던 전근대적 상업자본가에 의한 경제적 수탈이었다. 이들 객주는 수산물의 유통과 수산금융을

장악하여 고리대금업으로 어민을 착취하였으며, 행정력이 부족했던 1950년대에는 객주세력이 전국적으로 창궐하여 부당한 횡포를 자행했다.

수협은 고리대금으로 인해 지속적인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고통과 암울한 수산업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일선 조합의 위판사업을 강화하여 전통적으로 수산업 부문에 기생해 온 객주세력의 존재 기반을 근절시키고자 하였다. 수협중앙회는 객주세력이 가장 왕성한 인천·마산·강경·울산 4개 지역에 공판장을 개설·운영하기 시작했으며, 1963년에는 부산·목포·여수·영광 4개 지역으로 이를 확대했다. 이들 8개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객주세력의 본거지였기 때문이었다. 공판실적은 1962년 4억 6,400만 원에서 1965년 15억 5,100만 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전국의 단위조합 또한 수협중앙회로부터 위판사업자금 및 건어물수집자금을 지원받아 위탁판매사업을 강화해 나갔다. 1962년 말 전국 단위조합에 총 92개소의 위판장을 설치하여 객주들의 입지를 점차 좁혀나갔다. 위탁판매액 규모는 1962년 41억 200만 원에서 1965년 87억 7,299만 원

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수협중앙회의 공판장 개설과 단위조합의 수산물 위탁 판매사업 실시는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열고 우리 수산업의 가능성을 밝힌 일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민과 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어민들을 괴롭혀 왔던 객주세력이 점차 사라지면서 수산물 유통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변화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권익 향상을 최상의 목표로 한 수협에 의해 시작되었다.

생산활동의 기반인 수산자금 공급체계 수립

»

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협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또 다른 일은 수산자금 공급이었다.

수협 발족 이전까지 우리나라 수산금융은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에 의해 분산 취급되고 있었다. 1961년 일반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융자된 수산자금총액은 7억 6,4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47.8%는 시중 상업금융기관이, 32.9%



인천공판장(1962년)



담보없이 융자키로(경향신문) 1962년 9월 20일 6면

는 산업은행이, 그리고 19.3%는 농협이 각각 취급하고 있었다. 당시 총 융자 취급 규모는 수산 부문에 필요한 자금의 30%를 넘지 못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역시 영세 어민들이었다. 당시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 융자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영세 어민들은 불가피하게 객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고 그 대신에 어획물을 헐값으로 매도하는 고리대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종전의 수산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어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하는 객주세력의 어민 수탈행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설립 첫해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신용사업의 목표 재원은 4억 원밖에 책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도 당시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 따라 2억 6,000만 원이 배정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설립 당시 농협으로부터 차입한 신용자금 6,4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목표치의 81%인 3억 2,4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수산자금 첫 공급 실적은 어업자금 2억 원, 경제사업자금 1억 원이었다. 이렇게 어민들을 위한 수산자금 공급의 첫 발을 내딛긴 했

지만 아직 갈 길은 너무 멀었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어민을 위한 수산자금 공급이라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여수산업무를 동시에 시작하지 않고 1963년 5월 1일 여수산업무를 먼저 개시하게 된다.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자금이 필요했고 수산자금의 원활한 공급이라는 뚜렷한 목표는 수협 신용사업의 존립 당위성을 인정받게 했다. 현재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사업은 바로 어민이 있었기에 그 시작이 가능했던 것이다.

2억 6,400만 원의 자금으로 여수산업무가 시작되었지만 제도적 미비로 1965년까지 어민들은 여전히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의 창구를 이용해야 했다. (당시 수산자금 취급은행은 수협, 상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산업은행, 농협 등 7개 금융기관이었다.) 어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수협은 수산자금 공급체계 일원화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고자 노력했으며 결국 금융계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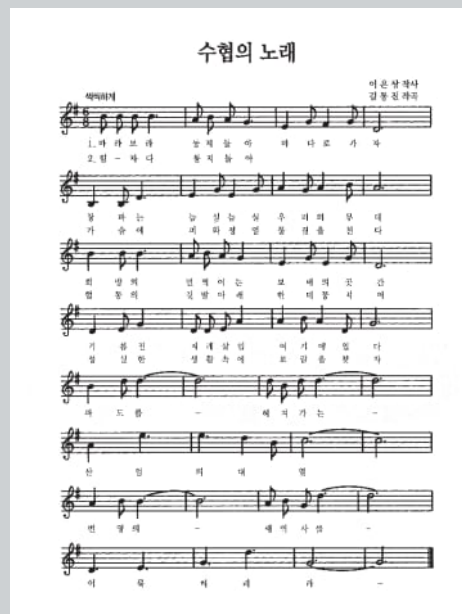
1964년 7월 9일 수협, USOM(미국대외원조처), 경제기획원, 산업은행, 농협은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어 단계적으로 산업은행과 농협의 수산자금을 수협에 이양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65년 4월 16일을 기해 연근해 수산자금 공급체계는 수협으로 완전히 일원화되었으며, 수협은 '한국은행-수협중앙회-단위조합-어촌계'로 연결되는 수산자금 공급의 계통금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Story in History

‘수협’의 노래’의 탄생

1963년 11월 27일 오후 4시, 당시 서울 남산에 있었던 서울중앙방송국 재연극실에서 이루어진 ‘수협의 노래’ 녹음은 작곡자 김동진(작사 이은상)의 지휘로 서울중앙방송국 전속현악단, 전속합창단과 함께 테너 김금환과 메조소프라노 김혜경(이상 국립오페라단 소속)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당시 ‘수협의 노래’를 녹음한 릴테이프는 창립 당시의 공보담당자였던 김윤덕 씨가 수협중앙회의 역사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영구 기증하였다.



‘수협의 노래’ 녹음 장면(김윤덕 기증)



제3장

어민 곁으로 더욱 가까이

수협, 새어민과 함께 새어촌을 만들어가다

처음에는 지도원의 활동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던 어민들도 차츰 지도원들의 열의와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스스로 변화하고 있었다.

더불어 지도원을 통해 그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수협에 대해 알아가고 수협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일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사진설명_ 100억 자체자금 조성에 대해 강연 중인 박상길 회장

수산진흥의 새 역사 주도



어업용 유류공급의 새로운 시대 개막

— 유류직배와 면세 실현

»

우리 어민을 위해, 어민에 의해 탄생한 수협은 처음부터 어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가 수협의 구매사업의 일환인 어선에 대한 유류공급 사업이었다. 수협중앙회는 설립 후 1964년까지 3년간 계속해서 대정부 건의와 국회청원을 통해 어선에 대한 유류공급업무 실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마침내 1965년 5월 1일부터 수산용 유류직배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5년 5월에 석유산업기지인 울산에 ‘울산유류사업소’를 개설하고 전국 22개 주요 어항에 급유소(給油所)를 설치하여 시중보다 15% 싼 가격으로 공급을 개시했다. 이어 1972년 1월 1일부터는 연근해어선에 한해 면세유류(免稅油



직배유류 점검

類)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유류공급 사업은 처음에는 과세유류(課稅油類)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유류공급 경로는 복잡한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유통비용이 과도하게 높아져 유류를 구입하는 대다수 어민들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공급물량 면에 있어서도 유류수급 장소가 어항 또는 해상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적기에 수요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어민들도 이중으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어선은 곧 어민들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고, 유류가 없이는 어선을 움직일 수 없었다. 조업을 위해서는 유류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어민의 현실을 악용하여 유류공급 상사와 중개업자 등은 시중가격보다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으로 어민에게 유류를 판매했으며, 특히 영세 어민들은 값비싼 유류를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아 출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수협은 이러한 어민들의 유류난 해소를 위해 1950년대부터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유류직배 문제의 해결에 부심했으며, 1960년대 들어와서는 더욱 본격적으로 활동을 강화했다. 일찍이 대한수산중앙회 때부터 어업용유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에 지방대책위원회를 조직했으며, 1961년에는 유류직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어민 운동까지 전개하였다.

유류직배제 실시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64년 1월 4일 전국어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용국)의 국회청



어민권익보장에 대한 결의문 (수협시보) 1964년 4월 6일 1면

원서 제출과 2월 26일 전국 조합장의 '어민권익보장에 대한 결의문' 채택이었다. 이어 3월 26일에는 정기총회에 참석자 모인 전국 조합장들이 유류직배 문제를 포함한 대정부 건의안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총궐기운동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수협을 구심점으로 하여 어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이러한 어민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고 국회 또한 농림부 과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산물 유류는 실수요량을 배정하고 대한석유공사는 가동과 동시에 실수요자인 수산단체를 통해 어민에게 직배(直配)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5월 29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경제기획원, 농림부, 상공부, 재무부 그리고 대한석유공사와 석유회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바로 이 관계기관 연석회의에서 유류직배 문제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

계속된 건의와 설득, 그리고 투쟁의 결과 그 해 12월 5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965년 5월 1일부터 당시 상공부로부터 소요량을 배정받아 어업용 유류공급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각 어업용 유류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 전국에 유류급유소를 설치하는 등 업무체제를 정비했다. 1차로 대한석유공사가 위치한 경남 울산항에 울산유류사업소를 설치했으며, 여기서 대한석유공사 정유공장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게 하여 전국에 설치된 22개 각 급유소로 수송하는 등 효

율적 공급에 만전을 기했다.

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조치가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다음 단계로 면세유 공급 실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어민들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하고 궐기대회를 갖는 등 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촉구하는 대정부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처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위한 활동을 계속한 끝에 드디어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이루는 데 성공을 거두어 1972년 1월 1일부터는 중유, B·A유 및 경유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석유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어 1975년 4월부터는 윤활유에도 면세 적용을 받게 되었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면세유 공급. 그러나 어업용 유류공급에 있어 직배와 면세가 처음부터 주어진 혜택이 아니었다. 어민과 수협, 이들이 하나 되어 피땀 어린 투쟁과 노력을 통해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인 것이다.

대일어업협력자금 도입

»

대한민국은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그리고 이를 통한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 중 '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따라 무상공여 3억 달러,



한일민간어업협정 체결(일본 후지TV 영상)

유상재정 차관 2억 달러를 각각 10년에 걸쳐 균등분할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며, 양해사항으로 민간차관 3억 달러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본의 차관 제공형식은 일반 플랜트차관으로 했기 때문에, 이후 실제 금액은 당초 합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총 외환 보유고가 2억~3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액은 실로 엄청난 규모였다.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일어업회담도 성사되었다. 하지만 한일어업회담이 이뤄지던 시기에 부산 등지에서 데모가 일어나며 회담이 중지되는 일이 생겼다. 어민들이 데모를 일으킨 이유는 어민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을 설명하고자 원양조합장과 권선망조합장이 수협중앙회를 찾아왔다.

국가적 행사에 수협이 시위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조운현

수협중앙회 부회장이 중앙정보부에 소환되어 정부 각처 사람들에게 현재 어민들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수협은 어민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부의 담당자들은 어민들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다.

다음날 여수에서 국무총리가 어업협력자금 9,000만 달러와 선박청구권문제 해결에 따른 선박 관계자금 3,000만 달러를 합쳐 총 1억 2,000만 달러의 대한어업협력자금을 공여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 수산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었다. 결국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대규모 차관 도입은 1966년 우리나라가 12.4%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이룩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수산업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수산진흥정책의 추진 주체, 수협

»

정부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오랜 침체에 빠져있던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때 수산업도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책 대상에 포함된 분야는 진흥계획 수립에 서둘렀고, 수산업 역시 연차적 수산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수협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산업의 기반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



대일어업협력 차관으로 도입된 어선과 냉동차





전국수협경진대회 후 청와대 방문(1966년 12월 9일, 최기영 기증)

그리고 수협이 부채청산과 조직 정비를 마무리 하던 시점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년)에 ‘수산진흥 5개년 계획’이란 별도의 시책 목표를 수립하며 내자 155억 1,000만 원과 외자 1억 3,761만 4,000달러를 합친 총 534억 원 규모의 수산업 투·융자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섰다.

한편 1966년 수산청 발족과 수산진흥법 탄생은 수산진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집약하고 있었다. 그리고 점차 확대되는 수산진흥 사업을 수협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였다.

의욕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수산진흥사업은 자금 투입 면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수협을 사업주체로 삼고 있었다. 제2차 수산진흥 5개년 계획 기간에 총 534억 원의 수산진흥자금 가운데서 생산부문(근해어업, 연안어업, 원양어업, 증식어업)에 72.1%인 385억 원이, 생산지원부문(기본시설, 시험지도, 수산자금)에는 20.2%인 108억 원이, 그리고 유통부문에는 7.7%인 41억 원이 각각 투입되었다.

본격적인 수산진흥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협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14건에 대해서는 모두 수협이 사업주체가 되었고, 어업기본시설 총 14건 중 9건, 증식사업 총 22건 중 10건, 유통부문 22건 중 13건, 수산자금 5건에

대해서도 수협을 주체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총 534억 원이 투입되는 87건의 수산진흥사업 가운데서 51건의 사업이 수협을 주체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36건만이 정부와 민간에 의해 추진되도록 했다.

수산진흥사업 확대에 따라 수협 중앙회는 부서를 신설하고 기능을 강화했다. 1966년 10월 6일 외자관리부를 신설하여 계획과·운영과·관리과를 두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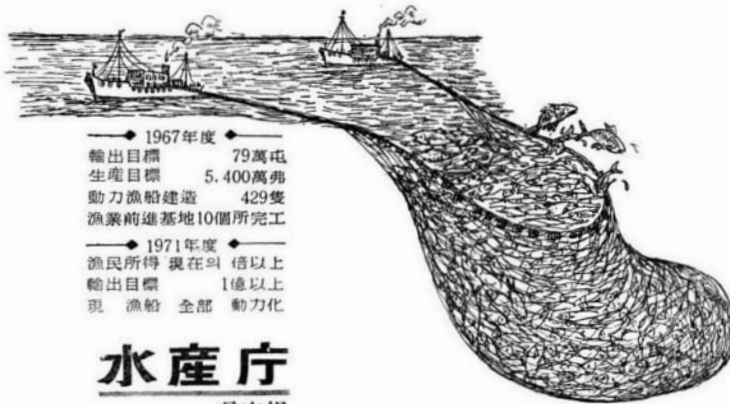
한일민간어업협정에 따른 사무기구로 어업위원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신용부에 특수자금과를 두었다.

회원조합과 조합원 수 또한 증가하였다. 특히 업종별 조합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1962년 11개 → 1970년 18개). 그 이유는 정부에서 업종별 수협 조직을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진흥사업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조합원 수 또한 수협 설립 당시 전체 어가수의 32.7%였던 조합원 가입률이 1970년에 50%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

어촌계는 1962년 말 1,786개에서 1972년 2,258개로 26.4% 증가하였으며, 계원 수 또한 1962년 9만 2,366명에서 1972년 12만 9,457명으로 40.2% 증가하는 등 수산진흥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수협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수출 해태(김) 생산을 위한 화입공장(전남 완도)



◆ 1967年度 ◆
 輸出目標 79萬屯
 生産目標 5,400萬弗
 動力漁船建造 429隻
 漁業前進基地10個所完工
 ◆ 1971年度 ◆
 漁民所得 現在の 倍以上
 輸出目標 1億以上
 現 漁船 全部 動力化

水産庁

廳長 吳定根

躍進하는 水産業!

■ 理想漁村 建設
 ■ 水産物 生産地 造成
 ■ 漁船・漁具 裝備 近代化

水協中央会

會長 盧明愚

1960년대 수협 신문광고 ©매일경제

02

자립과 성장의 길 개척



어촌을 변화시킨 수협의 역군, 지도원

»

1960년대 후반 나라 전체가 가난을 이겨내고 부강해지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붓고 있었으며 이때 수협은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으로 발전함과 더불어 가장 낙후한 지역인 어촌을 잘 사는 마을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대물림되는 가난으로 의욕을 잃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수협이 추진한 일이 ‘지도원’ 양성과 이들의 어촌 파견이었다.

지도원 선발은 1966년 첫 공개채용과 시험을 거쳐 이뤄졌으며 수산계 전문대학과 수산대학, 수산계 고등학교 출신으로 하여 어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어촌사회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지도원들은 협동조합, 수산업, 통계, 경영 등 전방위적인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우리나라 어촌 곳곳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어촌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어민들에게 수산 기술을 가르치고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는 한편 공동판매, 공동구매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했다. 그 외에도 지붕개량, 마을 공동우물 설치 등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앞장섰으며, 어민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어민의식 계몽운동을 선도하였고 문맹률이 높은 어촌에서 ‘야간재건학교’ 운영 등을 통해 어민들의 자녀교육을 돕는 등 그들은 무기력한 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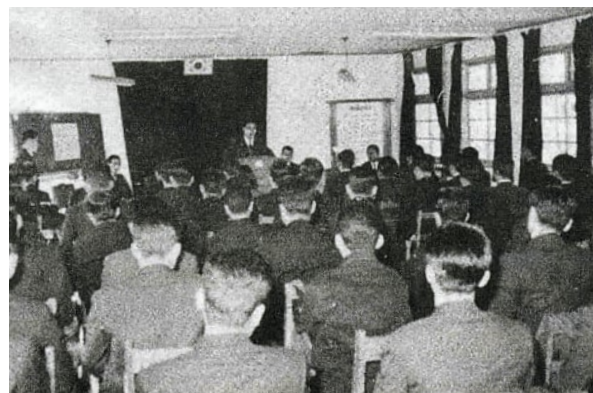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지도원들은 어촌과 어민의 자립을 위해 어촌계 단위로 신용조합을 결성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는 후일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으로 연결되게 된다. 처음에는 지도원의 활동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던 어민들도 차츰 지도원들의 열의와 노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계속되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스



어촌지도원 사령장(수협인물사-어촌지도원 p.24)



어촌지도원 메달(박영태 기증)



어촌지도원 1차 교육(1967년 1월 30일, 수협인물사-어촌지도원 p.37)



강원도 야간재건학교 학생들과 지도원들(수협인물사-어촌지도원 p.110)

스로 변화하고 있었다. 더불어 지도원을 통해 그전에는 존재조차 몰랐던 수협에 대해 알아가고 수협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일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수협 초창기 어촌에 파견되어 어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새어촌 건설에 앞장섰던 지도원들. 그들은 협동운동의 진정한 정신을 어촌 구석구석에 심고 어촌사회에 수협의 중요성과 역할을 널리 알린 진정한 수협의 역군이었다.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을 통해 자립의 길로

》

수협은 1960년대 기반 구축기를 거쳐 1970년대를 자립과 성장의 시대로 만들고자 하였다. 1963년 여신업무 개시, 1964년 수산자금 일원화, 1967년 정부의 수산진흥 5개년 계획 등의 추진에 따라 사업규모와 조직은 확대되고 있었으나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은 순탄치 못했다.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자생력을 갖추고 자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자금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제5대 박상길 수협중앙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스스로 자체자금을 조성하기로 한다.

1968년 12월 21일, 박상길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자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수협은 1969년을 기준으로 향후 5개년 계획으로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의 방안으로 수협기금규약을 제정한다. 그 제정 내용은

일. 전국 2,349개 어촌계와 134개 어협에 신용조합을 만들어 전 어민의 자체 저축운동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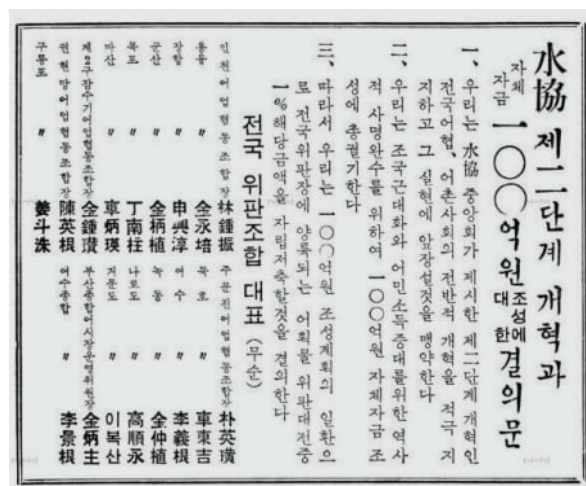
일. 수출 해태 대전(代錢)에서 일률적으로 5%를 적립한다.

일. 모든 수산물의 위판대금에서 1%를 적립한다.

일. 모든 수산창구의 자조저축과 수협 및 각 조합의 잉여금 증대, 정부로부터의 대출금을 보조받아 이것을 모두 백억 자체자금 조성에 충당한다.”

자금부족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민 지원과 어촌사회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협은 자체자금 조성에서 활로를 찾았다.

그리하여 1969년부터 시작된 어촌지역 사회 개발과 신용조합 육성을 통한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은 시작되었다.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에 대한 결의문 (동아일보) 1965년 5월 8일 8면

‘자체자금’이란 수협의 수신창구를 통해 조성되는 어민 예금, 일반 고객예금과 공제사업의 공제로, 조합원 및 회원의 출자금, 잉여금 등을 합한 전체 금액을 말한다. 당시 수협이 자체자금 조성 목표를 100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 계획의 수립 기준연도인 1968년도 총 수산자금 운용 규모가 115억 원이고 외부재원 의존도가 87%에 달하고 있어 적어도 공급재원 기준 80% 이상을 자체조달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수협은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을 위해 어촌마다 신용



어촌지도원교육 수료(1968년 김차량 기증)



100억 자체자금 조성을 위한 간담회(1969년 10월)

조합 결성을 추진했다. 저축은행 성격의 신용조합을 통해 어촌에 산재한 소액자금을 흡수하고자 하였다. 신용조합 결성에 있어서는 전국 각지의 어촌에 파견한 지도원을 활용하였다. 그들은 전국 어촌을 누비면서 신용조합 결성과 자체자금 조성의 필요성을 전파하였다. 동해안 최북단 거진에서 시작된 대장정은 동해의 포구와 남해의 포구를 거쳐 국토 최남단 서귀포에 이르고 다시 서남해안을 거쳐 서해안 최북단 백령도까지 6,400km에 걸쳐 진행되었다. 대장정의 여정마다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 어민결기대회'와 '어촌 신용조합 결성대회'를 개최했다. 1969년 9월부터 회원조합을 거점으로 신용조합 결성에 들어간 결과 1969년 말까지 719개, 목표연도인 1973년에는 총 2,730개의 신용조합을 조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회원조합 수가 총 88개였음을 감안할 때, 조합당 평균 31개의 신용조합을 설립한 것이 된다. 조합의 신용조합 설립은 지구별·업종별 조합이 다 같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어촌계별 신용조합 개설을 통한 어촌의 저축유인 정책과 판매사업 적립금 조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한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을 통해 목표연도였던 1973년보다 1년 앞서 1972년 드디어 자체자금 100억 원을 달성하게 됨으로써 수협은 외부자금 의존도를 낮추고(1974년 58.5%) 어민들의 저축의식을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이 같은 성과에는 조합과 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으며, 수협 조합원이 아닌 일반 어민들로부터도 호응이 컸다. 특히 전국의 어항과 어촌에서 일어난 신용조합 결성대회에는 어민들의 열기가

가득했다. 만성적인 부채와 객주의 손아귀에서 벗어남으로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150만 어민들의 염원이었으며 이를 위해 수협이 밤낮으로 발 벗고 뛰고 있음을 어민들도 인정했기 때문이리라. 수협의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은 자금의 외부의존도를 낮추고 어민에 대한 수산자금 확대 공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풍요로운 어촌사회를 이룩할 원동력을



100억 자체자금 조성에 대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는 박상길 회장 (수협인물사-박상길 p.77)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협을 어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으로 만들겠다는 내부로부터의 움직임으로 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어민과 국군을 함께 살리다 - 수협의 군납 시작

»

군납사업은 한국전쟁 중 군에서 필요한 물자 특히 의식주를 한국 현지에서 공급하지는 취지로 시행되었다. 전쟁 중 '돈벌이 대상'이 없었던 업자들에게 있어 군에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물자를 공급하면서 정부로부터 대금을 지불받는 군납은 누구나 군침을 흘리는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군납을 둘러싸고 그야말로 한 몫 단단히 챙길 수 있는 군납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군납은 업자와 정계, 관계, 군부 등이 모두 연루된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

군납사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량공급, 특히 부식공급을 둘러싼 이권싸움이 가장 치열하였다. 부식 중 수산물 공급을 차지한 군납사업자들은 기존의 군납사업권을 지키기 위해 정계, 관계, 군부에 줄을 대는 것은 물론이고 폭력까지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영어자금 등 늘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어민들에게 돈을 고리로 빌려주고 어획물을 싼값에 가져가서 군에는 비싼 값으로 납품하는 식이었다. 이로 인해 어민은 어민대로 큰 손해를 입고 있었고,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지출됨으로써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했고, 질 낮은 군 부식으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폐해를 수협도 잘 알고 있었다. 어민들이 힘들어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도록 하고 군에는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을 부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수협이 수산물 군납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청원을 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하였다. 수산물군납협회 회장과 면담하여 설득하는 한편 국방부 등 유관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왜 수협에서 군납을 해야

만 하는지를 역설하였다. 군납업자들의 전횡과 군납비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던 국방부와 정부 당국에서는 수협이 내세운 논리와 설득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다.

마침내 1969년 1월 8일, 박상길 수협중앙회장과 김계원 육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물군납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수협은 기존의 군납 관행을 과감히 깨뜨리고 일체의 중간상인, 객주, 민간 군납업자를 배제한 가운데 조기, 가자미, 도루묵, 콩치, 갈치, 오징어, 명태, 멸치, 미역, 새우 등 선도가 뛰어나고 상품가치가 높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전국 각 지역 군부대에 군납을 실시하게 되었다.



수산물 군납협정 체결식(1969년 1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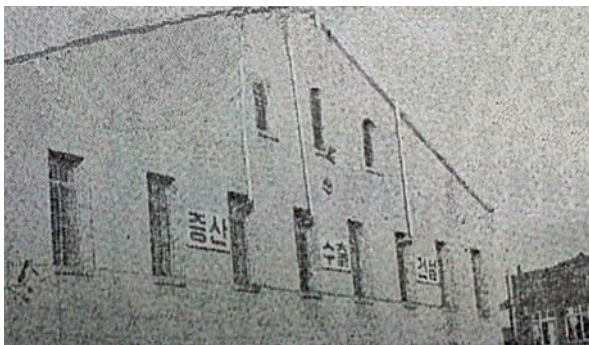
수협이 일괄 군납을 하게 되면서 어민들이 제값을 받고 수산물을 팔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풍어가 되어 수산물 공급이 넘쳐도 군납용으로 다량 구매하면서 가격폭락의 위험이 줄어들었다. 무엇보다도 이전 민간 군납업자들의 공급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싱싱하고 질 좋은 생선을 섭취할 수 있게 된 군인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수협에는 각 사단장과 군단장으로부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서신과 감사패가 연이어 전달되었으며 수산물군납협정을 체결했던 김

계원 육군참모총장은 수협중앙회장실을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힘겨운 싸움을 이겨낸 수협의 군납사업은 어민들과 군인들 모두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그렇게 시작되었다.

새로운 청사로의 이전

»

수협중앙회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소재 구(舊) 대한수산중앙회 청사를 인수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채를 청산하고 점차 경영이 안정화되면서 기구와 조직이 확대되었고, 더 이상 기존의 공간에서 업무를 하기에는 힘들었다. 따라서 1966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구 경기여고 입구에 위치한 화신백화점 창고인 목조 2층 건물을 매입하여 개조한 후 이곳으로 본부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어 1969년 1월 6일부터는 수신업무를 개시함으로써 기존의 여신업무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신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13일 수협 역사상 처음으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사 건물이 너무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사 신축을 추진하게 된다. 196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94의 29번지 외 5필지에 소재한 체비지 4,542㎡를 불하받아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제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에 1970년 8월 3일 사회적 공신력 제고 및 환경 개선을 통해 협동운동을 확산하고자 재단법인 천도교



수협중앙회 신문로 청사(수협시보 1967년 1월 제71호)

유지재단 소유의 수운회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수협은 재단 측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에 있는 수운회관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다.



수협중앙회 경운동 청사(수운회관)

변화된 환경, 새로운 출발

»

1970년대 들어 경제의 고도화와 수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어촌사회 구조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교통·통신 수단이 발달되고 선착장과 물양장 같은 생산기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전업 어민의 수가 증가하였고, 새마을운동의 효과로 생활과 주거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다. 이와 동시에 수산경영 규모의 확대와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협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조직의 정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였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다수의 조합이 경쟁적으로 설립되어 조합 사업규모의 영세화와 이로 인한 경영부실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구별 조합은 수협법에 '1시·군 1조합'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지만, 1970년 통계에 따르면 총 105개 조합 가운데 시·군 범위 미만의 구역을 가진 조합이 67%인 70개에 달하고 있었다. 업종별 조합도 동일 업종, 동일 조합구역 내에 다수의 조합이 세분화되어 난립하는 현상이었다. 이로 인해 1968년부터 1971년까지 수지악화로 정상적인 경영에 제한을 받게 된 조합의 수가 전체의 80% 이상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지구별·업종별 조합에 대한 정비작업이 단행되었다. 이는 그 해 초 박정희 대통령의 수협 정비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농림부 주요 시책의 하나로 수협 조직 정비를 수산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수산청과 수협중앙회는 이 시책에 따라 조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회원수협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4월 25일자로 각 조합에 대해 '수협합병 방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시달하고, 수산청은 5월 9일 정비 대상 조합장 및 수협중앙회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수산청은 5월 25일 '난립부실조합 정비계획'과 '수협 정비작업 지침'을 발표하고, 이러한 방침에 따라 최초로 정비된 조합은 같은 해 5월 25일 경기도 관내의 대청도·연평도·백령도 3개 지구별 조합이 합병하여 설립한 웅진군조합이었다. 이어 덕적·용유조합이 부천군조합으로 합병되었으며, 전북에서는 안서·곰소조합이 합병하여 부안조합으로 신설하였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대진·거진·아야진 세 개의 조합을 통합하여 고성군조합으로 신설하였다. 이때 업종별 조합의 정비도 있었는데, 서해구중형기선저인망조합과 남해구중형기선저인망조합이 통합되어 서남구중형기선저인망조합이라는 단일조직으로 정비되었으며, 9월 27일 동해남구중형기선저인망조합과 동해북구중형기선저인망조합이 통합하여 동해구중형기선저인망조합을 발족시켰다. 이로써 1970년까지 126개였던 수협 단위 조직은 1972년 말을 기해 87개로 정비되었으며, 이때 총 39개 조합이 통폐합되었다.

1972년의 조합 정비는 단순한 축소 조정에 그치지 않고 조합의 구역에 있어서까지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예를 들어 신설된 전남완도군조합은 피합병된 군외·신지·고금·약산·금일·금당·소안·노화·청산의 9개 조합의 재산과 구역을 모두 통합적으로 관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합정비 계획에 의해 단위조합 수는 축소되는 대신 업무구역은 대폭 확대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조합 정비에 이어 1년 후에는 어촌계 조직에 대한 정비가 단행되었다.



부실어협 정비 <매일경제> 1972년 4월 4일 1면



통영 인평어촌계 굴건조장 준공식(1973년 1월 11일)



이가리어촌 새마을 사업 현장(1976년)



새로 건조된 어선(1970년)

1972년 2,258개에 달하던 것을 1973년에 1,641개, 1977년에는 다시 1,591개로 정비했다. 이처럼 1973년부터 어촌계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된 이유는 1972년부터 실시된 어촌새마을사업이 어촌계를 주축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촌의 협업사업과 새마을공장, 복지시설, 부업단지 조성 등이 어촌계를 추진 주체로 하는 새마을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규모 확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조합의 조직 정비 계획에 맞추어 1973년에는 수협중앙회도 대폭적인 내부 체제의 정비를 단행했다. 발족 후 수협 경제사업 추진조직의 대명사로 불려왔던 수협중앙회의 사업부를 폐지하고, 1970년 기구개편 당시 폐지됐던 유통부·비상계획부·저축추진부를 2년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또 전남 동·서구지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로 남게 됨에 따라, 전국 9개 도지부는 8개 도지부로 축소하고, 전남 동구지부 폐쇄에 따라 여수공판장을 수협중앙회가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도지부 수의 축소 조정 등에 따라 발족 이후 12년 동안 존속해 온 전남 동구지부와 서구지부를 동시에 폐쇄하고 전남지부 단일 지부체제로 전환한 것은 수협중앙회 조직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두 조합은 그동안 같은 전남을 터전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통합되어 전라남도지부로 개편·설치되면서 좀 더 폭넓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사무실을 도청 소재지로 두었는데 좋은 효시가 되어 경북지부·충남지부·전북지부도 1974년을 기해 모두 해당 도청 소재지인 대구·대전·전주로 각각 도지부 사무실을 이전했다. 1970년대

초에는 이처럼 어촌계에서부터 수협중앙회에 이르기까지 수협의 전체 계통 조직에 걸쳐 전국적으로 조직 정비가 단행되었다. 이 같은 정비는 단순한 수협 조직 수의 조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경영에서 나타난 누적된 수협 계통조직의 부실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 조합의 합병 및 통합을 통한 정비 효과는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조합운영 경비의 절감과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의 증대, 대외경쟁력 및 신용도 강화, 경영기반 확충, 사업영역의 확대와 내실화, 조합경영 위기의 극복, 전문화 추진 가능성 모색 등이 그것이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수협이 탄생한 196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며 도약의 70년대를 준비한 기간이었다. 이때 오랜 가난을 벗고자 하는 어민들의 열망은 더욱 간절했다. 그 간절한 바람으로 수협이 탄생할 수 있었고 수협은 이러한 어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그러한 노력에 대해 어민들은 마음을 열어갔다. 우리 어민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 옆에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어민이 만든 어민을 위한 조직, 바로 수협이었다.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사회적 약자인 어민을 위해 탄생한 수협, 초창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모색하여 객주 등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어민을 지켜내고 어민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수협. 수협은 그렇게 설립 초창기의 혼돈을 이겨내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과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더욱 큰 성장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바다와 함께, 어민과 함께.

Story in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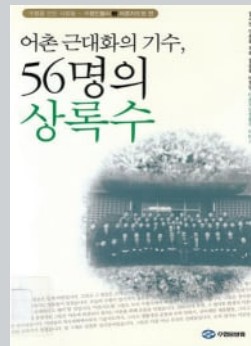
수협이 역사를 만든 사람들

‘수협인물사’는 수협을 만든 사람들, 발전시킨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와 행보를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는 수협의 뿌리를 찾아내는 일이기도 하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고 반성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지표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 2006년부터 총 4권의 서적을 제작하였다.

먼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하기 나름’이고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며 ‘100억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을 전개했던 박상길 전(前) 수협중앙회장. 군산어업무선국과 제빙냉동공장, 종합어시장 등 고군산군도 일대에 초기 인프라를 구축하며 1977년 전국조합 최초로 100억 원의 위판고를 달성한 김병식 전(前) 군산조합장. 대한민국 어민과 수산업을 위해 가까이 도서벽지에 머물며 수협과 어민들의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50명의 어촌지도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수협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하며 조직의 기강과 업무체계를 바로 잡고 어민 중심의 사업을 펼친 남문희 제8~9대 수협중앙회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이 만든 업적이 지금의 수협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에 이의를 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힘든 일을 자처했을까? 바로 협동은 말로만 실천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 때 내 옆 사람을 위해 한 번 더 몸을 움직이며 ‘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협동조합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다. 물론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산업을 위해 힘써온 모든 수협인이 책에 실려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도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듯 지금의 수협은 수많은 선배들의 도전과 희생으로 이뤄진 것이다. 그 도전과 희생은 그들의 삶이었고, 역사였다. 지금의 후배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이어받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의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수협인들이 있다.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바로 지금 모든 수협인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기획 01

공제병원선의 궤적을 찾아서

낙도, 그곳에는 오늘도 부르튼 손을 붙여가며 조개를 캐는 할머니가 앉아 있다.

할머니는 수협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수협은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 수협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수협이 생긴 이래 많은 어업인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있었다. 한반도 654개의 유인도에 거주하는 27만 명,

그곳에는 병원도 식수도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한 곳에서 그들은 발을 가꾸고

물고기를 잡으며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다.

병원이 없어 이가 아프고 살갓이 벗겨져도 참았고, 병원이 있어도 치료비가 없어 참았다.

그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고통을 참아가며 일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우리의 어업인이었다.

수협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어업인들을 찾아 1974년 7월 27일 희망의 닻을 올렸다.



드디어 어업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공제병원선이
수협과 어업인의
힘으로 출항하는
순간이었다.



01

수협 공제병원선 - 희망의 기적을 올리다

1974년 당시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한지역에는 2,900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으며 그 중 2,195개는 무인도였고 705개는 19만 가구 110만 명이 거주하는 유인도였다. 유인도에 존재하는 의료시설은 병원이 40개소, 한의원이 55개소, 조산원이 11명, 약방이 336개소가 전부였다. 그것은 100만 명의 인구를 돌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그나마도 의료 시설과 의료인은 유인도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51개의 군·면도에 몰려 있었고 654개의 낙도에는 의료시설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섬들에는 의료시설의 부재만큼이나 심각한 교통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까운 이웃 섬 면 소재지에 가기 위해서는 발동선을 타고 2~3시간을 가야하는 것은 보통이었고 이마저도 기상이 안 좋으면 기약이 없었다. 이런 시설미비와 교통의 부재로 응급환자 발생 시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낙도에 거주하는 어업인들은 항상 병마에 신음하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낙도 주민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수협은 1974년 7월 27일 오전 10시 서해와 남해에 있는 134개 어촌계에 살고 있는 10만 2,025명의 무의낙도 어업인을 진료하기 위해 인천 수산물공판장 부두에서 출항식을 갖게 된다. 드디어 어업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공제병원선이 수협과 어업인의 힘으로 출항하는 순간이었다. 진료에 사용된 공제병원선 척양호는 수협의 공제기금에서 마련한 것으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인수하여 개조한 것이었다.

척양호에는 내외과 의사, 치과의사가 각 1명, 간호원 2명과 수협의 사무장이 탑승하였다. 배 안에는 수술실과 병실까지 마련되어 있어 소규모 수술과 단기입원도 할 수 있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많은 어업인들의 격려 속에 출항식을 마친 척양호는 힘찬 기적을 올리며 낙도를 향해 출발하였다.



02

01
수협 공제병원선 척양호

02
선상 진료 모습

그렇게 수협중앙회는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 못하던
의료봉사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하얀 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제병원선입니다.

공제병원선에서 만난 사람 - 진정택 사무장

●

1970년대는 경제개발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수협중앙회 역시 풍요로운 새어촌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무던히 애를 쓰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민들의 복지문제였죠. 당시 수협중앙회는 어촌지도원을 파견하면서 어촌의 현실을 알고 있던 터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 식구가 아픈데 못 본 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수협중앙회는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지 못하던 의료봉사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하얀 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공제병원선입니다.

공제병원선의 출항이 결정되면서 배에 탑승할 사무장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장으로 선발됐습니다. 아마 군복무 시절 위생병으로 근무했던 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일에 선정된 것은 기뻐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약 이름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들긴 했는데……. 다시 한 번 군에 입대하는 느낌이 들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의료진 구성과 의약품 구매, 병원선의 일정 등을 짜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척양호의 개조가 끝났고 모든 출항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1974년 7월 27일 인천수산물공판장 부두에서 출항식을 갖고 어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에 고통 받고 있을 어민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져서 제가 할 일을 검토하고 또 검토했어요. 배에서 제가 할 일은 확성기를 들고 협동운동과 공제사업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호를 받았어요. 배가 도착하면 마을주민들이 모두 나와 박수를 쳐주거나 밴드부를 불러서 공연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기쁨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제병원선의 활약상은 금방 다른 섬들에 퍼졌어요. 그리고 배가 뜬다는 소식이 들리면 각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인근 섬에 연락을 취했고, 저마다 배를 타고 배가 도착하는 섬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도착하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죠.

당시 어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분야는 치과였어요. 대부분의 주부들이 만성 치주염을 앓고 있었는데 그 중 상당수가 이를 뽑아야 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치과가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위생관념이 부족한 게 더 큰 문제였죠.

치료를 마치고 양치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지만 돌아가는 주민들을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미안함이 남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치료하고 있지만 언제 또 들리지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제 생각이 그랬을 뿐 전문의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돌아가는 주민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든 생각이 '내가 확성기를 들고 협동운동과 공제사업의 중요성을 외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이미 주민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낀 표정이었거든요.

01
당시 척양호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진정택 씨

02
초도 전경

03
위도 전경

04
하의도 전경

01



그 곳에서 일어난 일

진료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때로는 분노했어요. 그 모든 게 우리 어촌의 모습이었고, 공제병원선이 만난 풍경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02

초도에서 일어난 일(전남 여수시)

초도에 머물고 있던 중 어촌계장으로부터 급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그 곳에는 만성복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었고, 우리는 응급처치를 하면서 목포항 근처에 있는 콜롬바 병원에 연락을 취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환자는 신속한 조치 덕분에 응급수술을 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환자는 작업 전후에 항상 술을 마셨고 그게 병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릴 놀라게 했던 건 환자의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50대 후반이었지만 임신 중이었고, 임신중독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장수녀님은 환자의 무책임함과 부인의 무지함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인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역시 기막힌 도서벽지의 현실에 절로 한숨이 나왔고, 응급의료 체계만큼은 무엇보다 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3

위도에서 일어난 일(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진료를 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역시 오전부터 진료를 했고, 오후 늦게 끝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퇴선을 했는데 한 부인이 아이를 업고 나타났어요. 제발 아이를 치료해달라는 것이었죠.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치료해 주고 싶었지만 의료진 역시 계속된 강행군에 지친 상태여서 무리하게 진료를 요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인에게 아이가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면 내일 산 넘어 있는 마을에서 진료를 하니 꼭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부인은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고 저 역시 마음이 아파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아이를 업은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도 반가워 어제 예약한 환자라며 의사선생님께 정밀진단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약을 받아든 부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산길을 올랐어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져 공제병원선에 타길 정말 좋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4

하의도에서 일어난 일(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는 참 황당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욱한 안개 탓에 선장이 썰물 때를 잘못 예상하면서 배가 뱃발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물때가 될 때까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배가 옆으로 기울지 않도록 드럼통을 떠받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바다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에서도 모든 의료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느덧 우리는 누구보다 어민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어민들 역시 아픈 본인들 보다 늦게 오는 우리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게 공제병원선이 이뤄낸 수협과 어민의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섬 앞에 나타난 ‘하얀 배’

편찬팀은 취재를 위해 보길도를 방문했다. 한눈에 봐도 의료시설이 부족해 보였다. 마을 주민들에게 ‘지내기 괜찮으세요?’라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약국도 있고 보건소도 있어서 살 만합니다”였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집 근처에 병원이 없다고 짜증내는 도시인들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됐기 때문이다. 과연 그들에게 공제병원선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지 궁금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새마을지도자였던 김종률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는 여기 9대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촌도 양식업을 하면서 형편이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요즘은 유행가에도 안 나오는 보릿고개 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야 어떻게든 해결됐는데 진짜 큰 문제는 아플 때였어요. 병원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병원에 갈 수 있어도 돈 아낀다고 참는 사람이 태반이라 거의 모든 주민들이 크고 작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미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생활이 어려웠던 겁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껴야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참다보니 맹장염에 걸린 사람이 복막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애를 가진 산모가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죠. 그럴 때면 하늘도 참 무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버텼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섬 앞에 나타난 배 한 척이 우리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섬 앞에 큰 배가 한 척 들어왔다는 소릴 들었어요. 뭔가 싶어서 기웃거리보니 하얀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한 배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곧 의사선생님들이 내 리더라고요.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보는데 확성기를 든 남자가 주민들을 무료로 진료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배로 달려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 갔죠. 저 역시 아프지는 않았지만 신기해서 배 안을 구경해 봤죠. 배 안을 둘러본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섬에도 없는 병원이 그 속에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우릴 지켜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따금씩 섬을 찾아 진료를 해주던 배가 어느 시점부터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들린 소식이 우리 섬보다 열악한 낙도 위주로 진료하러 다닌다는 것이었죠. 그 배는 더 이상 우리 섬에 오지 않았지만, 다른 병원선이 우리 섬을 찾기 시작했고, 보건소와 약국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그 하얀 배가 만들어낸 일이었습니다.



당시 보길도 새마을지도자 김종률 씨

편찬팀》 안녕하세요. 수협 50년사 편찬팀입니다. 혹시 1970년대에 수협에서 공제병원선을 운영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보건지소장》 수협에서 공제병원선을 운영했다고요? 어업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편찬팀》 당시에는 상당히 의료 환경이 안 좋았다던데 요즘은 어떤가요?

보건지소장》 물론 그때와 비교하면 훨씬 좋아진 편이죠. 보건지소가 생기면서 간단한 진료와 약 처방은 가능해졌으니까요.

편찬팀》 그게 전부인가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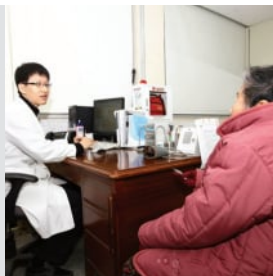
보건지소장》 현재 우리 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차 진료뿐입니다. 2008년도에 노화도와 보길도를 잇는 보길대교가 완공되면서 두 섬이 하나로 연결됐고 주민 수는 9,000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엑스레이조차 갖추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수술은 불가능하고요.

편찬팀》 말씀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게 열악한가요?

보건지소장》 도시에만 계시던 분들은 놀랄 수도 있죠.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노화도에서 완도나 해남을 가는 배가 수십 차례 운항되기 때문에 기상만 관촬으면 병원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로로 노화도에 있는 약국, 한의원, 아간 진료소 등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기초적인 의료 환경은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찬팀》 그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지소장》 예전에는 배를 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기상이 악화되면 큰일이었죠. 하지만 2011년 9월부터 운행되기 시작한 응급 의료헬기 덕분에 단순 후송이 아닌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2m 높이의 다리에서



어제보다 오늘 만나 공제병원선



떨어져 빠와 장기 손상이 우려돼 선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헬기가 있어서 무사히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섬에도 응급환자를 빠르게 후송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찬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시스템이 보길도와 노화도 같이 큰 섬에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작은 섬에는 1차 진료시설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2차 진료 시설이 갖춰져도 모자란 데 말이죠.

편찬팀》 그렇군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재정적인 문제가 크겠죠. 하지만 진료시설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협에서 공제 병원선을 운영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죠. 한두 번 치료해준 것 때문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전무하던 시절에 그 누구보다 빨리 섬의 의료 환경을 전국에 알렸으니까요. 수협에서 다시 한번 그런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찬팀》 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소장》 그렇죠. 수협만큼 어촌과 섬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기관은 없으니까요. 많은 기관들이 섬에 병원을 세울 때 재정문제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협만큼은 어업인을 먼저 생각할 테니까요.

편찬팀》 앞으로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보건지소장》 시간이 지날수록 섬을 잇는 다리가 놓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래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물론 경제적인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2차 진료시설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협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01
03



02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

노화도와 보길도를 잇는 보길대교는 전체 사업비 539억 원이 투입돼 8년간의 공사 끝에 교량 길이 620m와 접속도로 1.4km길이로 2008년에 완공되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이 다리는 과연 무엇을 연결한 걸까? 답은 간단하다. 섬과 섬을 연결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섬과 섬을 연결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다. 그리고 그 잦은 왕래는 소통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다. 결국 노화도와 보길도는 소통을 하기 위해 8년이란 시간 동안 조금씩 쉬지 않고 다리를 놓은 것이다. 다리가 연결되고 두 섬은 더 이상 다른 섬이 아닌 하나의 섬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다리가 완공되기 34년 전 이미 다리를 놓은 곳이 있다. 바로 수협이다. 모든 게 부족했던 그 시절, 수협의 공제병원선은 우리나라의 바다를 누비며 낙도에 사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지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것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수협의 공제병원선은 몸에 난 상처만 치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다시 전국에 알리는 다리가 되었던 것이다.

공제병원선이 운영되는 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넜고, 오랜 시간 그 무게를 지탱해준 수협의 노력으로 낙도의 현실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 속에 모든 게 부족했던 낙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바램은 하나씩 이루어져 갔고, 섬의 환경에 맞는 어업활동을 지원 받기도 했다. 수협이라는 다리 위에서 수많은 다리가 느리지만 천천히 연결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34년 전 하얀 배가 만든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01
30년 전 보길도 전경

02
보길대교

03
보길도의 주요 사업은 전복 양식이다.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젊은
부부가 전복의 먹이로 미역을 주고 있다.

04
보길도 소재 윤선도 유적, 세연정

춘사

윤선도

앞바다에 안개 걷고 뒷산에 해 비친다
배 뛰어라 배 뛰어라
썰물은 물러가고 밀물은 밀려온다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강촌 온갖 고지 먼빛이 더욱 좋다
날이 덥도다 물위에 고기 떴다
돛 들어라 돛 들어라
갈매기 들썩들썩 오락가락 하는구나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낙시대 쥐고 있다 탁주병 실었느냐

그 곳에 봄은 올까

정현중 시인의 <섬>이라는 시가 있다. 그 시에서 화자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그 섬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과연 사람들 사이에 놓인 그 섬은 어떤 곳일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일까? 아니면 지상낙원일까? 분명한 건 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우리 어업인들이 살고 있던 섬은 소외와 단절,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 낸 외로운 곳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 곳의 계절은 바뀌었지만 어업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겨울만이 존재했다. 홀로 남겨진 느낌. 그것은 가난과 병마, 아니 그 어떤 것보다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빈손으로 시작한 수협 역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공제병원산을 띄우고 어촌 지도원을 파견하며 스스로 그 섬에 찾아 들어갔다. 수협이 만난 섬의 어업인들은 겨울 속에 살면서 겨울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동상이 걸려 있었다. 닿기만 해도 얼어붙을 것 같은 마음에 손을 내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외로움의 깊이만큼 타인에 대한 경계심 역시 깊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차가움을 녹이는 것이야말로 수협의 존재 이유였다. 수협은 녹이지 못한다면 차라리 같이 얼어붙을 각오로 어업인들을 껴안았다. 처음에는 같이 동상에 걸려 얼어붙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온기가 서로의 얼음을 녹이고 있었다. 그렇게 윤선도의 시 <춘사>에서처럼 시린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작은 바람에도 얼어붙고 흔들리던 어업인들은 더 이상 얼어붙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수협과 함께 바다에 배를 띄우고 낙시를 하며 다시 찾아올 겨울을 대비했다. 그리고는 깨달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를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것도, 지상낙원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로 만드는 것도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그렇게 봄은 왔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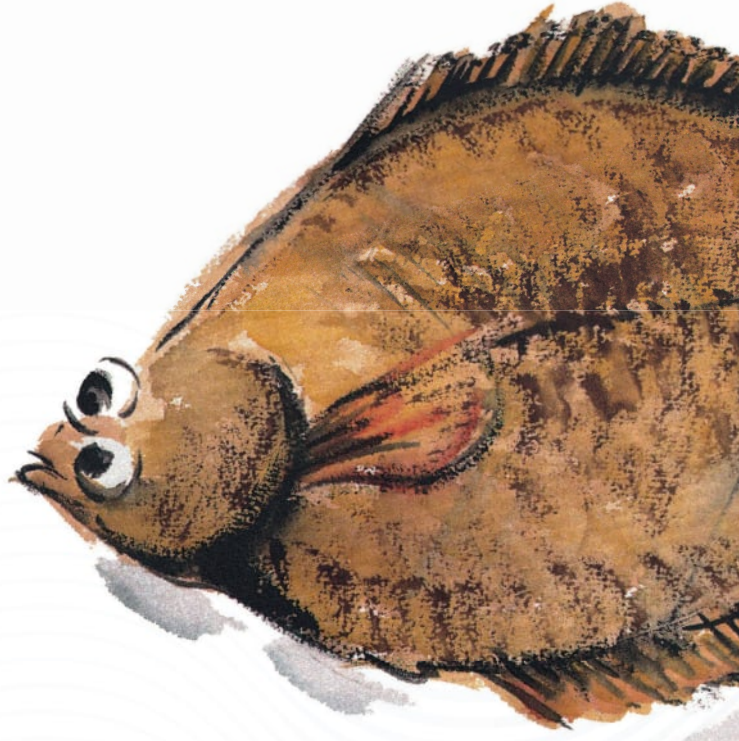


제2부

바다와 함께, 고객과 함께 더욱 큰 성장의 바다로 (1976~1989)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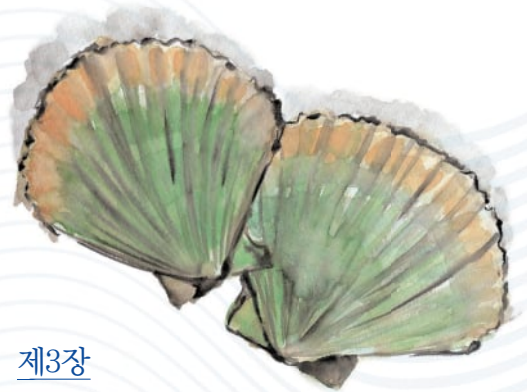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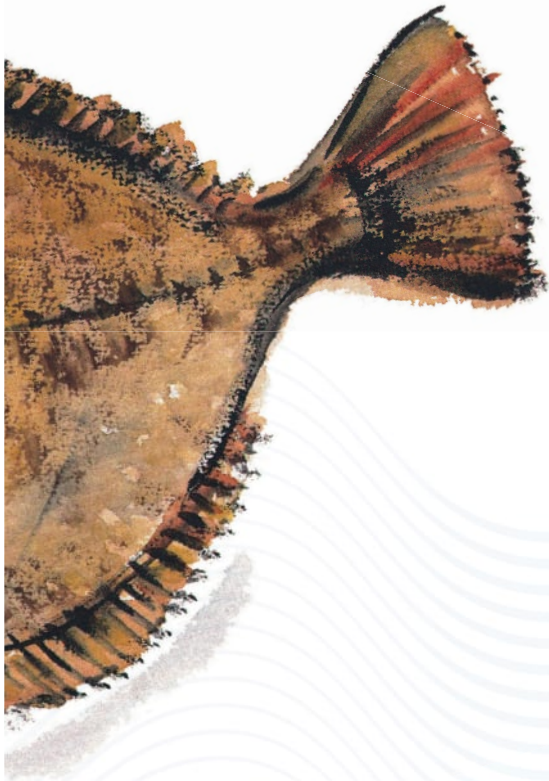
성장을 향한 의지





제2장

어민을 섬기며,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며



제3장

수협이 새로운 위상과
세계를 향한 도전

19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끈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수협은 어촌계 조직력과 어촌계원의 협동을 바탕으로 어촌새마을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환경 개선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수협은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과 각종 어업생산자재의 원활한 공급, 수산물가격지지사업 및 무역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이와 함께 ICA 가입과 집행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협동조합운동에 동참하는 등 수협은 성년 수협상(像)을 구축하며 도약의 기반을 다져갔다.

새수협건설

제1장

성장을 향한 의지

적극적인 변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

전국 8개 주요도시에 내륙지 공판장을 개설하여 수협의 공판기능 강화와 유통단계 단축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일관된 유통체제를 구축했으며, 법인어촌계 제도를 신설하고 상호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민의 저축의식 고취와 더불어 자체자금 마련을 위한 통로를 확대했다.

사진설명_ 지구별 수협 시찰 (1970년대, 성산포수협)

‘수협’ 명칭의 정착과 경영 여건의 변화



어협, ‘수협’으로 명칭 변경

»

1970년대 중반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한 신용사업을 바탕으로 정부에 의존하던 기존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어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쓴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그동안 확장에 주력했던 계통조직을 본격적으로 통합·정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그 첫 번째 작업으로 1976년 12월 31일 제8차 수협법 개정을 단행하기에 이른다. 개정 전까지 회원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어업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데다 은연중에 수협중앙회와 차별의식을 갖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또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는 조

항은 법률조문 해석상 혼란을 주기도 했다. 제15조(어업협동조합)에서 어업협동조합을 지구별어업협동조합과 업종별어업협동조합으로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2조만을 본다면 회원조합이 마치 두 종류만 있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제8차 수협법 개정을 통해 회원조합의 명칭을 ‘어협’에서 ‘수협’으로 통일했다.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서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진정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변화였다.

수협법 개정에 따른 조직운영권 강화

»

제8차 수협법 개정에서는 그동안 확대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다수의 조항 개정도 이루어졌다. 수협중앙회의 권한 강화와 회원조합의 자체적인 운영능력 확보가 그 대표적인 내용이었다.

수협중앙회의 경우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것을 ‘정관이 정하도록’ 하고, 간부 직원 임명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또한 출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을 연 5%에서 10% 이내로 조정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운영의 폭을 넓히면서 점차 권한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취지였다.

회원조합의 경우 여전히 수협중앙회의 도움 없이는 사



수협 임시총회(1976년)

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조직체계 역시 정비
비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자
체적인 운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 및 신
설하였다.

그 중 하나가 조합장의 권한을 높이는 일이었다. 제6차
개정 당시 전무를 ‘조합 경영에 대한 책임자로 규정하면
서 전무가 실질적인 관리자가 된 바 있다. 이는 조합의
투명경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조합장
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따라서 그런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해 조합장에 업무통리권을 부여하고
전무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위치로 변경하였다.

한편, 회원조합의 출자는 ‘평균좌수의 2배 이내에서 정
관이 정하도록’ 했던 조합원 1인 출자좌수 최고한도에 2
배수 제한을 없애고, 조합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제도를 신설하면서 회원조합의 자금이 원활하게 운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수협은 서서히 전국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틀을
갖추는 동시에, 자금 및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주체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어촌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역할의 조정

»

수협법 제8차 개정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뿐 아니라
어촌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전까지 공동어장 중심의 공동사업 수행이 주된 역할
이었는데 “어촌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로 수협법 제16조의2를 신
설하였다. 이 조항은 단일 형태의 어촌계를 법인어촌계
(法人漁村契)와 비법인어촌계(非法人漁村契)로 구분하
도록 한 것이다. 법인어촌계는 수협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인가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비법인어촌계를 법인어촌
계로 조직변경하거나 법인어촌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상호금융업무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역할을 다양화했다.

1977년 4월 23일 이뤄진 제9차 수협법 개정은 어촌계의
제도적 성격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어업권을 취득하고
어장을 개발하는 소유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점, 업무 구역이 행정구역(읍·면 지역)과 경제권 중심으



어민후계자반 연수원 교육 수료(1981년, 홍건식 기증)



어촌계장반 제49기 연수원 교육수료(1987년, 정청 기증)

로 광역화된 점, 법인 자격을 부여받아 지구별 수협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익적 및 경제적 사업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점 등이었다. 이런 변화는 어촌계가 지구별 수협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1977년부터 법인어촌계 설립을 장려하는 가운데 그 해 처음으로 17개 법인어촌계가 생겨났다. 1981년까지 총 400개의 법인어촌계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어촌계는 지구별 조합과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같은 업무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업무구역을 재분할해야 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며 어촌계 육성을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제9차 수협법 개정은 한 지역 안에 동일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수협조직을 2개 이상 존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며 어촌계의 법적 지위 상승 기회를 주었으나, 법인어촌계는 1980년 총 45개를 끝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2000년 1월 28일 제24차 수협법 개정을 통해 제16조의2항이 삭제됨으로써 2000년까지 존속돼온 총 17개 법인어촌계를 마지막으로 법인어촌계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법인어촌계의 지구별 수협 승격(9개)

- 죽왕 법인어촌계 → 죽왕수협(2001.01.27)
- 서면 법인어촌계 → 서면수협(2001.01.29)
- 대포동 법인어촌계 → 대포수협(2001.04.21)
- 사랑 법인어촌계 → 사랑수협(2001.11.19)
- 진동 법인어촌계 → 진동수협(2002.02.14)
- 신흥 법인어촌계 → 신흥수협(2002.04.01)
- 남면 법인어촌계 → 태안남면수협(2002.04.17)
- 영흥 법인어촌계 → 영흥수협(2002.04.26)
- 안면 법인어촌계 → 안면수협(2002.05.13)

» 주요연도별 법인어촌계 현황

1977년(17개)	1980년(45개)	2000년(17개)
영흥, 대부, 대포, 남면, 마서, 개연, 계화, 금산, 울촌, 관산, 창포, 구산, 서포, 방어동, 사랑, 온평, 한경	영흥, 대부, 대포, 남면, 소원, 마서, 개연, 계화, 금산, 울촌, 관산, 창포, 구산, 서포, 방어동, 사랑, 온평, 한경, <u>죽왕, 신흥, 주포, 고북, 서면, 안서, 삼호, 낙월, 군외, 골약서부, 양남, 정석, 장기, 원남, 송라, 청하, 해금강, 대송, 진동, 사천, 남면, 중문, 남원, 표선, 애월, 연평, 한동</u>	영흥, 죽왕, 대포동, 서면, 주포, 신흥, 남면, 소원, 안면, 계화, 양남, 창포, 구산, 원남, 진동, 방어동, 사랑

02

어업 환경의 글로벌화와 수협을 대응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제3차 수협 장기발전 계획'

»

수협중앙회는 발족 이후 사업규모에 있어 연평균 51.3%가 넘는 고도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1969년부터 5년 동안은 연평균 23.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감소세에 접어들게 된다. 이에 제7대 장덕희 수협중앙회장은 성장률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게 된다. 그것이 바로 1974년부터 실시된 '제1차 수협 장기발전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정부의 '제3차 수산진흥 5개년 계획'과 '연근해어업 진흥계획'과 맞물려,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개년을 추진 기간으로 했다. 그리고 기본 목표를 어가소득의 증대, 계통조직의 완전 자립, 생산유통의 전면 협동에 두었다. 또한 이 기간인 1976년 4월 미국이 「어업자원 보존관리법」을 제정·시행함에 따라 1977년부터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국제적 해양질서를 규정하는 신해양질서의 재편성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국제해양 경쟁력 강화라는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더욱 빠른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도시와의 소득격차 해소, 어촌계의 협동기능 확대, 생산수단과 기술의 근대화, 유통단계 단축 및 유통시설 근대화, 수산금융 자립체제 확립, 생활물자 구매사업 확대 등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기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계획과 맞물려 실행된 한국은행의 영어자금 대출어음을 담보로 담보어음

의 6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더욱 많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협 장기발전 계획 실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와 더불어 실행된 '농어촌 1조 원 저축운동'과 1974년 설립된 전국 67개의 상호금융 점포 운영은 1978년 1조 16억 8,000만 원이라는 자체자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재원을 바탕으로 전국 8개 주요도시에 내륙지 공판장을 개설하여 수협의 공판기능 강화와 유통단계 단축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일관된 유통체제를 구축했으며, 법인이어촌계 제도를 신설하고 상호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민의 저축의식 고취와 더불어 자체자금 마련을 위한 통로를 확대했다. 또한 직수출과 외국환업무를 시작하고 사업영역을 넓혔으며, 15개 지부를 개설하는 등 어민지원을 위한 세부조직 확대를 꾀했다.



3개 회원조합 수산업무 실시(대한뉴스 1968년 11월 2일)

결과적으로 ‘제1차 수협 장기발전 계획’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민의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계통조직의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였다.

전산화의 첫걸음

»

1970년대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 역시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 것이 독자적인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기기의 설치와 온라인방식의 전산화였다.

1977년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은행은 자체 컴퓨터를 도입하고 예금업무를 전산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업무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면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지 않는 은행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형국이 되었다.



온라인 업무 개시

수협 역시 이런 상황에 맞춰 1977년 2월부터 본격적인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먼저,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1975년 12월 기획조사부를 기획부와 조사부로 분리하고 조사부에 조사·세무·전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조사부 직원들은 전산화가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밤낮없이 개발에 몰두했다.

핵심 장비인 컴퓨터는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KCC(한

국전자계산), KIPS(한국상역컴퓨터), EICC(에머징일신전산), KICO(한국전산) 등의 전산용역센터에서 설비를 임대해 사용했다. 그러다 1984년 4월 전산업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자체 컴퓨터(VNIVAC 1100/61) 도입이었다. 물론 기존처럼 전산용역센터를 이용한다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객의 요구나 수정사항이 곧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때문에 자체 컴퓨터 도입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는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등 다양한 상품개발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전산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기관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었으며, 수협을 믿어주는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진정한 수산인의 요람’ 수협연수원

»

수협의 지속적인 성장은 사업영역의 확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을 이끌어 갈 기관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인재가 필요했고, 그 인재를 교육시킬 공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바람을 이루기 위해 1977년 11월 1일 경기도 인천시 북구 효성동에 수협연수원을 신축 개원하였다.



수협연수원 개원(1977년 11월 1일, 홍건식 기증)

물론 그전에도 청사 내에 마련된 공간을 이용하거나 외부 교육시설을 임차하여 교육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지만, 독자적인 연수프로그램에 의한 교육훈련을 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수협연수원이 개원함으로써 임직원과 조합원, 어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다양하고 충분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수협연수원의 교육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중요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법, 주인의식제고 등 수산인으로서의 의식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정신교육과 수산물 유통, 새로운 어업기술 전수와 같은 실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의식과 지식을 모두 갖춘 수산업의 리더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같은 다양한 교육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조합원들의 결속력 강화,

어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내며 더욱 전문적인 수산인을 만들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어업활동을 위한 정보공유는 물론 선진지 견학을 주도하며 견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내기도 했다. 아울러 수산업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토론을 개최하며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고, 각종 연찬회 및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합의 장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이렇듯 수협연수원을 찾은 수산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협동을 배울 수 있었고, 수협의 존재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그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과 교류에 목말라 있던 이들이 마음 놓고 의식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진정한 수산인의 요람이었던 것이다.

» 연수원 교육 계획 (1982년)

구분	과정별	교육대상
새마을교육	가. 어촌지도자반 조합임원반 조합총대반 어촌계장반 어민후계자반	조합임원 조합총대 어촌계장 어민후계자
	나. 농수산 공직자 정신교육	(중)(조)임직원실무교육
실무교육	가. 간부교육과정	(중)간부 (조)조합장
	나. 고급관리자과정	(중)1,2급 (조)전무, 상무
	다. 초급관리자과정	(중)3급 (조)3급감
	라. 기초과정	(중)(조)신입직원
	마. 직무연수과정	
	지도반	(중)(조)새마을 및 경영지도담당
	여신반	(중)(조)여신담당
	수신반	(중)(조)수신담당
	세무반	(중)(조)2급, 3급
	신용점포장반	(중)(조)신용점포장
	공제반	(중)(조)공제담당
	수산물검사원반	(조)수산물검사담당
	이용가공반	(중)(조)이용가공담당
	통신기술반	통신기술직
	여직원교양반	(중)(조)여직원
	법인어촌계직원반	법인어촌계직원
	바. 협동연구리더반	협동연구반리더
	사. 직장정화 선도위원반	직장정화 선도위원
	아. 어촌지도자 현장교육	어촌계장 및 간사

※ 중앙회는 (중), 회원조합은 (조)로 표시

Story in History

물고기 엄마, 수산질병관리사

저는 어릴 때부터 수산 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직접 물고기를 잡아서 기를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죽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물고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어른이 되면 항상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때도 별다른 고민 없이 부경대에 있는 수산생명의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죠.

제가 입학했던 1990년대에는 수산생명의학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학문이었어요. 물고기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 친구들만 해도 물고기가 병들면 먹으면 되지 왜 치료를 하냐고 물었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지만 저는 상당히 재미있게 그 공부를 했고 2001년 졸업을 하면서 때마침 개장한 부산 아쿠아리움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2002년도에 「기르는 어업 육성법」이 생기면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서 키우는 개념이 생기게 됐고, 2004년 8월 '수산질병관리사'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동안 제가 공부한 분야에 대한 자격증이 생긴 것이죠. 저는 시험을 치르고 처음으로 배출된 수산질병관리사 40명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이 직업은 부경대나 전남대 등에 있는 수산생명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특수한 직업이라서 한 해 평균 배출되는 인력이 50명도 안 돼요. 그만큼 희소한 직업이기에 사명감도 크게 느끼고 있어요.

수산질병관리사는 물고기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처방 및 예방을 하는 일을 하죠. 물론 먹이를 주거나 수조를 관리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모두 수산 생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게 일하고 있죠. 다만 아쿠아리움에 있는 수만 마리의 수산 생물을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저를 포함한 많은 관리사들이 물고기가 아프면 밤을 지새우거나 집에 못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4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간 적 있는데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이가 어느새 변기에 앉아서 볼 일을 보는 모습을 보고 '나는 참 나쁜 엄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씩씩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올해로 수족관에 온지 11년이 됐는데 저랑 같이 들어온 녀석들은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중에는 몸이 많이 약해져서 더 이상 전시되지 못하는 녀석들도 있는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찡하죠. 자연이 아닌 수조에서 내게 의지하며 살고 있는 생물들을 마지막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물고기 엄마'로서의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글. 정지윤(부산 아쿠아리움 수산질병관리사)

제2장

어민을 섬기며, 풍요로운 어촌을 만들며

잘 사는 어촌 만들기

1972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열기는 어촌에도 불붙기 시작했다.

역사 이래로 가난의 상징이었던 어촌은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개척되길 바라는 열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다.

어촌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새 희망의 창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였던 것이다.

수협은 종전의 지도사업을 어촌새마을운동 확산 체제로 전환하고, 1972년 '새어촌 건설'을 슬로건으로 시범어촌계를 선정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어촌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설명_ 1970년 초 어민들(한국의 수협 중에서)

고도성장기의 업무 영역 확대



금융환경 변화와 수협의 대응

»

1974년 일어난 유류파동은 전 세계에 공급되던 유류가격의 인상과 각종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어업용 유류를 비롯하여 어업기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어민들은 어선어업의 출어자금과 양식어업의 운영자금 등 어업경영자금의 조달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자금이 필요했으나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으로 인해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이 중단되게 되고 대신 정부는 1974년 5월 3일부터 수산자금에 대해 이차보전(利差補填,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협은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자금의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자금을 조성해야 했고 이는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전개된 '농어촌 1조 원 저축운동'의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저축운동 전개는 1974년 6월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업무 시작으로 이어진다.

또한 1976년부터는 한국은행에서 재할인 범위를 일반 수산자금에까지 확대하고 영어자금의 대출어음을 담보로 담보어음의 60%까지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전체 차입금 중 30~40%의 비율을 차지하던 한국은행 차입률을 80% 수준까지 늘리면서 더 많은 수산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협은 신용대출 한도 인상, 연대보증인 입보 완화,

어업자금 연체금리 인하 등을 통해 어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체적으로 담보물 감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용자 취급기간이 단축되는 등 어업인의 수산자금 이용에 편의성을 더했다.

이렇듯 대내외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어민들과 더불어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수산업과 수협의 동반 성장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어민들은 이처럼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수협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선수물자 공급사업의 확대

»

수협은 1975년부터 군산시수협과 제주시수협 등 각 지역의 단위조합에서 자체적인 구매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선구점의 방해로 인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았으며, 그런 횡포가 이어지면서 선수물자의 가격은 갈수록 비싸지게 되었다. 모든 어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선수물자를 살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민들과 영세한 어민들의 경우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런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수협중앙회는 본격적으로 선수물자 공급사업을 계획하고 1976년부터 착수하였다.

사업 초창기에는 계약업체 수가 3개, 연쇄점이 10개에



군산시수협 중동연쇄점(1980년대)

불과해 민간 선구점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간업체와의 경쟁뿐 아니라 어민들의 오랜 거래 관행과 계통구매 인식 부족도 어려움을 더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어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확장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 연쇄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간이매장을 개설해서라도 선수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나가는 동시에 취급물품도 더욱 다양화하였다. 아울러 초기의 협동조합인 로치데일조합의 경우 상인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비조합을 구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홍보하며, 그 같은 정신이 협동조합 활동의 기본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어민들이 계통구매사업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점차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체계를 받아들이며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처럼 선수물자 공급사업은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시 한 번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수산물 가격안정사업의 시작

»

197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반입된 원양어업자들의 북양어획물(北洋漁獲物)은 연근해 수산물 가격의 폭락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1974년 유류파동으로 인해 어업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연근해어업은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수산물의 경우 일시에 다량으로 생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성어기에는 가격이 폭락하고 수요기에는 가격이 폭등하는 등 수급불안이 심하였다. 더군다나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들의 가격조작까지 성행하여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어민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중간상인의 이윤을 배제할 목적으로 1970년부터 수산물가격안정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초기에는 체계가 잡히지 않아 제철 수산물을 수매하여 오히려 값을 올리기도 하는 등 실수가 있었고, 더욱이 선어를 생산하는 어민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정부비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협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는데, 1971년 8월부터 수산물 직매장을 전국에 개설하여 직매사업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꾀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정부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수매 비축량을 늘려가는 등 수산물가격안정사업은 점차 정부 주도에서 수협주도로 바뀌었다.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 수산물(해태) 방출



수협은 추석이나 연말연시 등 물가폭등이 예상되는 시기에 사전 수매로 비축한 수산물을 방출함으로써 상인의 매점매석 및 가격조작 행위를 견제하는 등 어민 소득의 실질적 향상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하였다.

수산물 수출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

우리나라의 수산물 무역사업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이 인천의 활갯지렁이를 보고 수출 제안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어민들은 가계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위해 수출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출업체가 난립하게 되었다. 또한 업자들이 사전 담합하여 어민들에게서 매우 싼값으로 사거나 구입대금을 늦게 주는 등 업자들만 실속을 챙기고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이익은 없는 형국이었다. 이런 문제가 이어지면서 우리 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수협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활갯지렁이 수출업자의 횡포를 막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갯지렁이 수출을 전담하게 된 수협중앙회는 1976년 1월 19일 무역사업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에 사업소를 설치함으로써 1976년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전선에 뛰어 들게 되었다.

사업 진행은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직수출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하역·탑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수협중

앙회의 역할도 커졌으며, 이에 따라 1977년부터 주요 수출 도시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수출증대에 힘썼다. 그러나 1979년 이후 갯지렁이 수출은 더 이상 수협이 전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취급 규모는 1979년 906톤에서 1990년 106톤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결국 수출은 중단되었다.

비록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수협은 활갯지렁이 수출을 통해 그 이익이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수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수산물 유통 전 과정을 일관하는 체계 구축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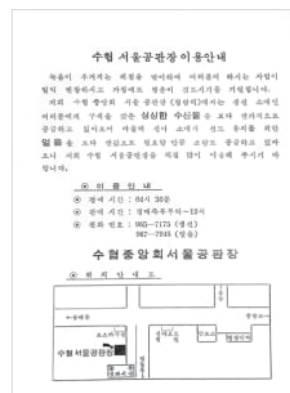
》

단위수협은 일찍부터 산지에서 항구 및 포구에 조합 위 판장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산지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갔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산지와는 달리 소비지에는 유통시설이 부족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하는 수산물 출하체계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는 산지에서 소비지로 운송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다한 유통비, 보관비, 마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산지보다 소비지에서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이 절실했고, 결국 1978년 2월 1일 서울공판장을 개설함으로써 소비지 유통구조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어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정부의 수산물가격안정정책에 부응하여 광주, 진주, 춘천, 대전, 청주, 전주 등 전국 주요 6개 도시에 공판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공판장 개설에 투자한 금액은 국고보조금 20억 2,700만 원, 융자금 20억 2,700만 원, 자체 자금 3억 900만 원 등 총 43억 6,300만 원이



갯지렁이 채취



수협 서울공판장 이용안내장(안태웅 기증)



춘천공판장 개장(1979년)



전주공판장 개장(1980년)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수협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산물의 산지 유통 과정에만 관여하던 초창기의 유통지원 기능에서 벗어나 이를 소비지까지 확대 추진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지원 기능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되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자립정신 고취를 위한 상호금융업무의 개시

»

상호금융(相互金融)이란 조합원 상호간에 자금을 상호 융통하는 호혜적인 금융을 말한다. 여기에 가입한 조합원 중 상당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원들은 상호금융에 가입하여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금을 예치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상호금융의 특징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은행과는 달리 조합원 위주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적 담보 대신 인적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자금 흡수를 위해 예금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점 또한 다르다. 이렇듯 상호금융은 공동유대 강화와 자립정신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큰 금융사업의 한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어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였다.

1972년 농어촌의 사설 계와 유사금융조직을 규제하기 위한 상호신용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협이 상호금융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 '농어촌 1조 원 저축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1974년 5월 9일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정관 변경 과정을 거쳐 그 해 6월 10일부터 제주시수협과 한림수협을 기점으로 첫 상호금융 업무가 시작되었다.

수협 상호금융은 업무 개시 첫 해에 47개 조합에서 67개 점포를 개설하고, 4개의 수신상품을 통해 총 12억 7,800만 원의 예탁금 실적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어 어촌지역의 저축의식 고취를 위하여 1976년 12월 31일 수협법 개정을 거쳐 어촌계에서도 상호금융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1978년 3월 18일 여수수협 울촌 법인이촌계가 법인이촌계로서는 처음으로 상호금융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협 상호금융의 시작은 저축 장려를 통해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여유자금 흡수를 통해 자체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어민들에게 수산자금을 제때 공급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어민과 함께 풍요로운 어촌을 가꾸는 수협



새마을운동을 통한 어민소득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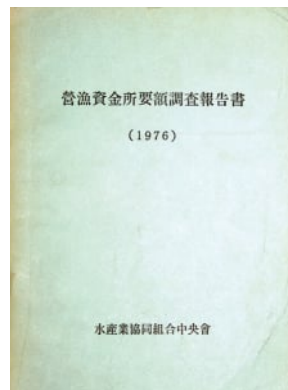
»

1972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열기는 어촌에도 불 붙기 시작했다. 역사 이래로 가난의 상징이었던 어촌은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개척되길 바라는 열망으로 늘 가득 차 있었다. 어촌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새희망의 창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절실한 기회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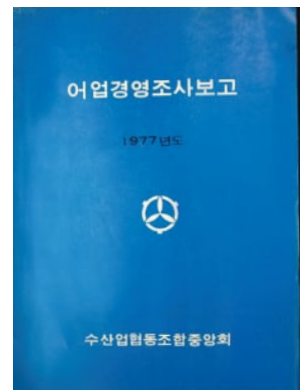
수협은 종전의 지도사업을 어촌새마을운동 확산 체제로 전환하고, 1972년 '새어촌 건설'을 슬로건으로 시범어촌계를 선정하여 소득증대사업과 어촌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1973년에는 지도부를 새마을부로 개편하고 조합에도 새마을지도과를 두어 어촌새마을운동의 핵심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그리하여 1970년 중반부터 수협중앙회를 추진본부로 하여 종전의 소득증대 사업을 포함한 다음의 7대 사업으로 수협 새마을운동 추진 범위가 확대되었다.

- 어촌소득증대사업
- 수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 어촌환경개선사업
- 어촌의 문화복지사업
- 법인어촌계 기반조성사업
- 봉사활동
- 어민정신계발사업



영어자금소요액조사보고서(1976)



어업경영조사보고서(1977)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지도는 196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맞춤형 경영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조합의 건전경영과 경영내실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어촌 새마을운동 추진과 어촌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1973년부터 '어촌계 분류 평정'을 실시했다. 한편, 어촌계와 업종별 조합 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이 어촌계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에 대한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정부의 각종 수산정책 수립과 어업경영 개선을 위한 자료제공 목적으로 수산청에서 실시하던 '어업경영조사'를 1976년부터 수협중앙회에서 위임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1976년부터 어업건수와 건당 영어자금 소요액 파악을



공제병원선 새수협호 취항식



위한 ‘영어자금소요액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영어 자금 공급 규모와 지원방안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어촌 새마을운동을 통해 수협은 협동조합의 고유활동인 어촌과 어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와 지원범위를 대 폭적으로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더불어 회원조합과 어촌계에 대해서도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계통 조직 간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어업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면세유 혜택 확대

»

어민이 어업활동을 계속하는 데 필수적인 어업용 면세 유류의 공급에 있어 1965년 직배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완전 면세와 공급 확대를 추진하였다.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통해 드디어 1978년 1월 1일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특별소비세 외에 부가가치세 까지 면제됨으로써 완전 면세유 공급이 실현됐다. 이어 1983년에는 기존에 허가어업어선에 국한된 면세유 공급 대상이 면허 및 신고어업어선 등 전체 연근해 어선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면세유를 회원조합과 어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는가 하면 낙도 유류공급 활성화를 위한 유류사업지원자금을 조성· 지원하였다. 또한 경인, 충남, 전북지역 어민을 위해서는

면세유류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89년 9월 1일 충남 서산군 대산면에 유류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더욱 많은 어민들이 면세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에 힘썼다. 면세유 공급은 어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수협으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면세유의 원활한 공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수협의 병원선’, 삼면의 바다를 누비다

»

1970년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던 도시와는 달리 우리 어촌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족한 현실이었지만 그 중 가장 부족한 것이 의료 시설이었다. 특히 도서벽지에 살고 있던 어민들의 경우 그 상황이 심각해서 간단한 수술만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한 의료시설이 있는 곳의 어민들조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당시 어촌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어촌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공제병원선 운영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국립수 산진흥원으로부터 척양호(68톤, 강선)를 무상으로 대여 받아 병원선으로 개조하는 등 준비를 서둘렀다.

척양호의 개조가 완료된 후 내·외과의사, 치과의사가 각 1명, 간호원 2명과 수협중앙회 사무장을 탑승인원으로 구성하고 654개의 유인도에 거주하는 27만 명 어민들을 진료하기 위해 1974년 7월 27일 인천수산물공판장 부두에서 출항식을 갖고 닻을 올렸다. 척양호가 출항한 첫 해 83개 도서, 2만 2,617명을 진료하며 우리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전국에 ‘하얀 배의 기적’을 알리기 시작했다.

공제병원선이 각 도서지역을 돌며 어민들을 치료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심한 경우 섬 대부분의 주민이 환자인 섬도 있었기 때문에 한 척의 병원선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병원선을 추가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에 따라 1975년에는 공제 환원 사업비 4,787만원을 투자하여 129톤급인 새어민호를 건조하여 척양호와 함께 다치고 아픈 우리 어민들을 찾아 나서기에 이른다. 두 척의 공제병원선은 1975년 221개 도서 5만 8,715명의 어민들을 진료하였다.

한편 1977년에 건조된 130톤급 새수협호는 움직이는 종합 병원이라 불릴 정도로 최신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총 3척의 공제병원선은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를 누비며 전국 355개 도서에 거주하는 어민 10만 7,495명을 진료하며 진정한 어민의 희망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수협중앙회의 공제병원선 운영은 의료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큰 자극을 주며 그들 역시 병원선을 운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다 1980년 정부의 무의촌 일소정책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에서 직접 병원선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수협의 공제병원선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인 수협중앙회의 노력은 어민들에게 박수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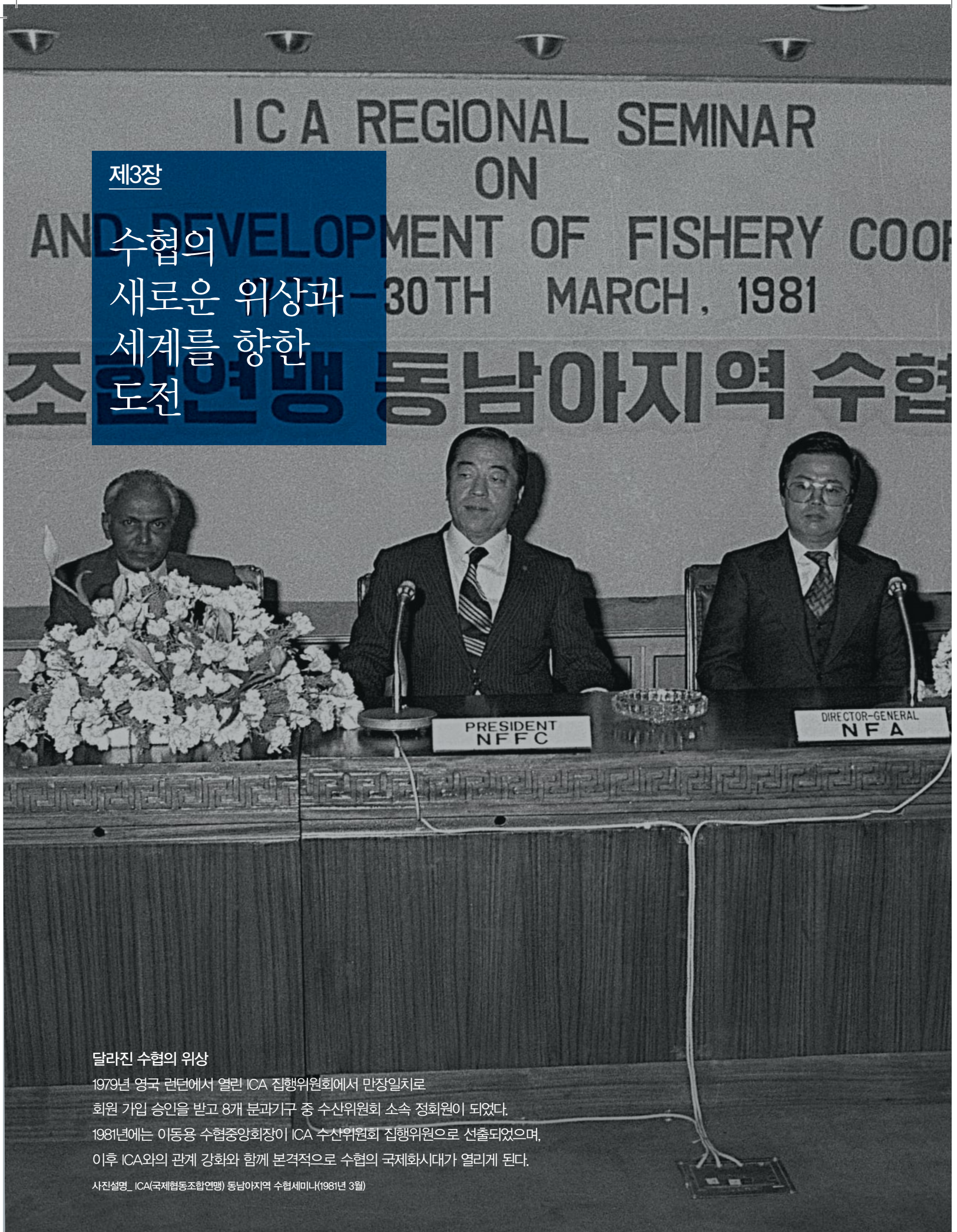
이후 공제병원선을 운영하던 자금 중 일부를 공제장학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병원선의 경우 서해5도에 배치되어 공동운반선이라는 이름으로 어민들을 위한 운항을 멈추지 않고 또 다른 희망을 찾아 힘차게 닻을 올렸다.



공제병원선에서의 진료

제3장

수협의 새로운 위상과 세계를 향한 도전



달라진 수협의 위상

197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CA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원 가입 승인을 받고 8개 분과기구 중 수산위원회 소속 정회원이 되었다.
1981년에는 이동용 수협중앙회장이 ICA 수산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ICA와의 관계 강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수협의 국제화시대가 열리게 된다.

사진설명_ ICA(국제협동조합연맹) 동남아시아 수협세미나(1981년 3월)

성년 20년 새로운 수협상(像)의 정립



어민을 위한, 어민의 봉사자

»

1980년 8월 9일 제11대 이동용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수협인상 정립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어민을 위한, 어민의 봉사자로서의 새수협인상을 정립, 성실하고 신뢰받는 봉사자세를 확립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어민에 대한 투철한 책임봉사 의지를 다지고, 국가와 어민에게 신뢰받는 새수협인상 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일체의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하고 어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 돕는 건실한 봉사단체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새수협인상 정립 결의대회

우리의 결의

우리 수협 임직원 일동은 국운 개척의 시대적 사명을 통감, 어민 돕는 봉사 자세를 더욱 새롭게 가다듬고 몸소 실천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 우리는 국가보위와 사회정화의 역사적 과업수행에 참여하여 아직도 은폐된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고 어민을 위한 어민의 봉사자로서의 새수협인상을 정립한다.
- , 우리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잡는 새시대 새사회 건설에 즈음하여 국가와 어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실하고 근면한 책임봉사자세를 확립한다.
- , 우리는 어민의 소득향상이 초미의 급선무임을 인식하고 어업불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 수협기능을 총동원하여 어민소득증대에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80년 8월 9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일동

어민과 회원조합의 자립 - 제2차 장기발전 계획

»

1980년대에 들어선 수협은 그동안 힘써온 자체자금 마련과 지속적인 조직정비를 통해 점차 안정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계통조직의 경우 여전히 경영이 불안정하였고, 어민들 역시 지역별로 소득에 많은 차이가



성년 맞은 수협운동 (매일경제) 1982년 4월 1일 11면, 협동운동 20년 기념패(박영태 기증)



갑류 외국환업무 승격식(1982년 5월 21일)

나는 게 현실이었다. 따라서 외형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어촌 경제의 안정 기반 정착화, 회원조합의 자립과 균형발전 도모, 어민 소득증대를 통한 복지어촌 건설을 목표로 한 '제2차 수협 장기발전 계획'(1982~1986)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통해 수협은 신규어장 개발 및 어업권 조정 등을 통한 어가경제의 안정적 기반조성과 더불어 회원조합의 자립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공동생산에서 공동판매로 이어지는 협업시스템을 정착시키하고자 하였다.

어민과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된 것은 수협중앙회 조직을 정비하는 일이었다. 먼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통합하고

그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대어민 지원을 위해 차관사업으로 김 종합처리 가공시설 25대를 설치하여 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어민의 수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힘을 쏟았던 수산물 수출사업이 괄목할 만한 신장률을 보이면서 1983년 제 20회 수출의 날 기념식에서 2,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영어자금 대출에 있어 신용대출한도 인상, 부동산 및 선박 담보비율 인상 등을 통해 영세 어민의 담보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영어자금 대출이자 징수에 있어서도 선취 또는 후취하던 기존 방침에서 3개월 후취로 단일화하여 어민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켰다.



새수협운동 추진 조합장대회



전국에 금융지점을 확대 개설하고 외국환업무 등 신규 업무를 취급하는 등 어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수협은 사업을 키워가고 있었다.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수협의 위상 제고

»

1895년 8월 18일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은 전 세계의 협동조합이 연합해 조직한 협동조합의 대표기구이다. ICA가 정의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ICA는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비정부기구이다.

수협과 ICA의 인연은 1965년 이래 국제협동조합 간의 교류에 참여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수협은 수산선진국의 정책 및 기술을 배우고 도입하기 위해 상호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4년 6월 17일 가입신청서를 발송하였지만 승인을 얻어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제8대 남문희 수협중앙회장이 1978년 9월 7일 덴마크에서 열린 ICA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수산업 발전상과 수협운동' 등을 발표하며 수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보여주고 각국 대표들에게 적극적인 교

섭활동을 펼쳤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197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ICA 집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원 가입 승인을 받고 8개 분과기구 중 수산위원회 소속 정회원이 되었다. 1981년에는 이동용 수협중앙회장이 ICA 수산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ICA와의 관계 강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수협의 국제화시대가 열리게 된다.

1980년대 들어서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차 높아졌다. 그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1981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태국 방콕의 동남아시아 세미나를 주관하고, 1984년과 1985년에는 말레이시아 수산관계자 연수를 실시하는 등 동남아시아 ICA 및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협운동과 수산업에 대한 국제교류의 폭을 한층 넓힘은 물론 수산업 부문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에도 기여했다.



이동용 수협중앙회장 ICA 세미나 참석(1981년 9월 15일 핀란드 헬싱키)



수협의 가입을 승인한 ICA 런던 집행위원회

국제사회에서 수협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전까지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던 우리 어민들의 현실도 점차 개선되었다.

수협중앙회는 1965년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1966년에 대한민국어업위원회의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일본과의 공동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의 안전조업과 어구 피해 복구,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업위원회사무국 공고(1980년)



일본 전어련과의 한일수협회장 회의(1989년 11월 8일)

나아가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어련)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수협운동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꾀했고 매년 이뤄지는 한일수협회장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게 되었다. 1978년부터는 일본 전어련에서 주최하는 동남아시아 수협세미나에 수협 직원을 파견하기 시작하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 역시 아끼지 않았다.

1983년 5월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 간에 처음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를 틈타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의 어업자원보

호수역에서 집단조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애써 만들어진 우호적 분위기가 깨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두 나라는 해상에서의 조업 충돌을 방지하고자 민간 차원의 어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최초의 한중 민간어업 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1987년 12월 15일부터 16일에 있었던 동경회담이며, 이것이 곧 제1차 한중민간어업회담이다. 수협중앙회는 대한민국 대표로서 중국 대표로 나온 황해어업협회와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중 간 '어선 긴급피난 및 안전조업과 해상 사고 처리에 관한 민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1989년 5월 21일 북경에서 제2차 회담을, 1989년 12월 18일 서울에서 제3차 회담을 각각 개최하면서 민간차원의 한·중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1989년 12월, 한국의 수협중앙회와 중국의 황해어업협회는 '어선 해상사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며 더욱 진일보한 민간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비록 민간수준의 교류로 그치긴 했으나, 우리 어장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칫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성공적인 민간교류를 이끌어낸 수협중앙회의 성과는 1992년 체결된 한중수교의 중요한 발판 중 하나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수협세미나(1979년 9월, 권영두 기증)

어민과 고객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금융사업의 새로운 국면 전환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협중앙회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문,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부문이 중앙회 신용사업과 조합 상호금융사업이었다. 당시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자율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에 은행들은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증권업무를 취급하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들은 갈수록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수협 역시 그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금융자율화가 진행되면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정부의존성을 낮추고자 정책자금 지원을 줄여나갔다. 이것은 곧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수협 역시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어민과 일반고객에게 더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용점포와 상호금융 점포를 확대하고, 수신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온라인 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수산자금의 융자조건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규대출이 증가하였다. 특히 단순히 사업규모와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더욱 다양한 금융업무를 도입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1982년 9월 14일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증권업 겸영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판매업무를 취급하면서 더 나은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쳤다.

» 1980년대 초반 금융상품 변화

1980.09.17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가 면제되는 우대가계적금제도 실시
1981.07.01	가계당좌예금을 가계종합예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신설
1982.07.03	금융거래실명제 기본방향 마련
1983.04.23	상호부금제도 취급
1984.06.01	할인식 양도성예금증서(CD) 시판
1985.01.15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제도 신설



수협 정기적금 소개 기사 <매일경제> 1984년 8월 20일 9면



수협 저축 광고(1981년)



수협 저축 광고(1985년)



수산물 거래질서 확립 촉진대회



공제 상담 창구

소비지 수산물 유통 활성화

»

1985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협도 수산부류 지정 도매법인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개설된 가락동공판장까지 합쳐 내륙지 공판장은 총 9개로 늘어났다.

당시 소비자 유통은 내륙지 직출하로 되어 있어 유사 도매시장이 성행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유력한 중도매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소비지에서의 계통출하는 가격을 보장할 수 없었고, 어민출하 시에는 어선원의 임금보합제(조업경비를 제외한 수산물의 가격을 선원 직급별로 분배하는 제도) 등의 이유로 산지판매를 희망하는 어민이 많았던 것이다.

이에 수협은 내륙지 공판장에 조합의 계통출하를 장려하고 출하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농안기금 지원액 30억 원의 이자 차액을 '계통출하결손보전기금'으로 적립하였다.

수협은 계통출하 체계를 확립하고 내륙지 공판장을 활성화시켜 소비지 시장 점유율을 높임으로써 민간상인 주도의 유통기능을 견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어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수협 공제사업

»

“서로 구제하여 준다”는 취지로 시작된 공제사업은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물론 비슷한 성격의 보험도 있지만, 보험은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가 대상인 데 반해 공제는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가 대상으로, 그 취급 범위나 성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업의 경우 사고빈도가 높아 보험사가 인수를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 수협 공제는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수협의 공제사업은 1960년대까지 어선, 선원 및 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공제사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다 1970년대 들어와서는 어민뿐 아니라 일반 고객 유치를 위해 생명공제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면서부터 종합공제사업자로 성장·발전하게 된다. 또한, 금리변동에 적극 대응하고 공제상품 종류를 다양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신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출시했다. 수협은 어민들과 고객들에게 공제사업의 중요성과 장점을 홍보하며 점차 공제사업을 정착시켜 나갔다. 1980년대 들어 요동치는 금리로 인해 공제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저축기능을 보강한 장기화재공제 등을 포함해 14종의 신상품을 순차적으로 개발하며 금리변동에 대응했다. 이런 다양한 상품의 개발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일이었으며, 궁극적으로 공제사업은 어민의 재해구조 및 생활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



'수험과 물고기' TV 광고

기획 02

獨島, 수협이 지키고 보존합니다



01

독도수호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1996.03.12

서울 명동성당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독도 사랑예금 및 어민사랑통장 가입을 권유하는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 상품의 수익은 이후 독도어민을 지원하고,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일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02

독도연구보전협회 사무실 무상임대·1997.01.18

독도연구보전협회의 전담 후원 은행으로 지정된 수협중앙회는 협회와 협약을 맺고 매년 독도상품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어 독도연구보전협회가 안정적으로 독도보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03

독도보전 결의대회 및 캠페인 전개 1997.02.28

독도연구보전협회와 공동으로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서 독도사랑 캠페인 및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서명을 진행했다. 또한 이날은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도 이루어졌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망언했다. 이에 수협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임을 알리기 위해 전국의 회원조합장들과 임직원이 서울역 광장에 모여 독도 망언 규탄대회 및 독도사랑예금 캠페인을 펼쳤다.





04

독도사랑 어린이 수호대 발대식 후원·1997.04.03

1997년 4월 3일 독도사랑 어린이 수호대 발대식이 열렸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소속 어린이 35명으로 구성된 독도사랑 어린이 수호대는 역사공부를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배우고 독도 현지 탐방을 통해 자연 생태계 학습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05

독도사랑 글짓기 교실·1997.08.13

광복절을 이틀 앞둔 8월 13일, 독도사랑 바다사랑 어린이 글짓기 교실이 개최되었다. 독도수호 의지와 깨끗한 바다 가꾸기 운동 확산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글짓기 교실에는 서울시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250명이 참가하여 경합을 펼쳤다.





06

독도보전 결의대회 · 2005.03.23

수협중앙회 본부청사 및 잠실에서 독도보전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공익상품인 독도사랑예금 판매에 맞춰 전국 영업점 주변에서 '우리 땅 독도이야기' 책자를 비롯한 안내전단과 독도관련 기념품을 나누는 행사도 펼쳐졌다.

07

반크 지원금 전달 · 2005.05.17

수협 바다마트와 수산물 전문 인터넷 쇼핑몰인 e-바다마트에서 판매한 수산물 판매액의 일정액, 그리고 '독도수산물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으로 조성된 우리 독도 알리기 기금을 전 세계인에게 독도의 올바른 표기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VANK)에 전달하였다.





08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규탄대회 · 2008.07.17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기 위해 어업인, 수협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대로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09

독도수호 결의대회 · 2010.04.14

2010년 수협중앙회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반대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한 데 이어 외교청서에 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명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기 위해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0

독도연구보전협회에 독도사랑海기금 전달

• 2011.03.29

독도연구보전협회에 독도사랑海기금 2,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공익상품 판매를 통해 조성된 이 기금은 독도의 학술적 연구, 독도보전 및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그해 9월 개최된 독도 영유권 대토론회를 비롯하여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규탄활동, 독도 관련 유관단체의 학술활동 지원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이게 되었다.(19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기금액은 2억 4,400만 원)



11

독도 도동어촌계 및 독도경비대 방문 • 2011.07.07

도동어촌계를 방문하여 독도어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독도지원금을 전달했다. 또한, 같은 해 독도수호에 힘쓰고 있는 독도경비대를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12

독도어장지킴이 홈페이지 · 2011.0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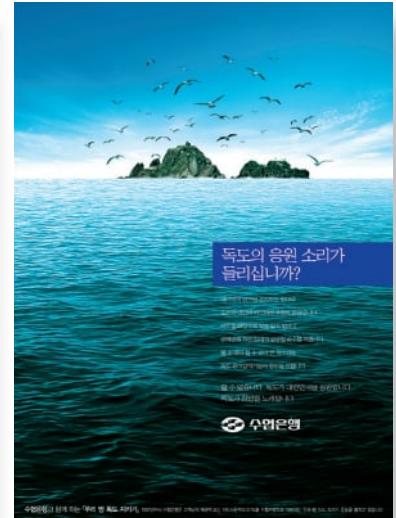
정보화시대를 맞아 네티즌을 대상으로 독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백한 우리 땅을 알리기 위해 독도어장지킴이 홈페이지(<http://dokdo.suhyup.co.kr>)를 열었다. 이 홈페이지는 독도어장을 바르게 알리기 위한 어장의 가치 탐구, 독도수산물물을 소개하는 코너 및 독도를 지키는 어업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곳도 준비되어 있다.



13

독도사랑 상품

1996년 이래로 수협은 독도사랑예금, 독도사랑학생부금, 독도사랑카드 등의 공익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수협은행이 자체 출원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독도연구보전협회 지원 등 독도보존활동에 쓰이고 있다.



14 수협은행 독도 광고

수협의 독도사랑 정신을 널리 전하고 보다 많은 사람이 독도사랑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독도를 테마로 한 수협은행 광고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독도사랑 상품을 홍보하고, 조성된 기금은 독도보전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도 독도사랑에 작은 힘을 보탬 수 있도록 했다.



15 「독도와 수협」 발간

우리 땅 독도를 널리 알리고 독도지킴이로써 수협의 역할을 담은 「독도와 수협」을 발간했다. 「독도와 수협」은 우리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수협의 수산자원의 보고인 독도를 지키고 보전하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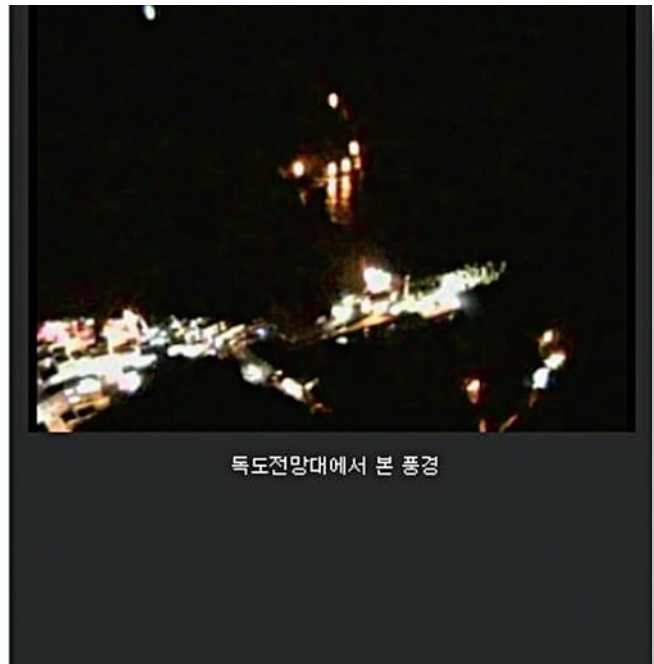
16 수협중앙회 2층 강당

2층 강당에 독도사랑 결의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다. 이로써 수협은 언제나 독도사랑에 앞장서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으며 보다 많은 수협은 독도사랑정신을 가슴에 새기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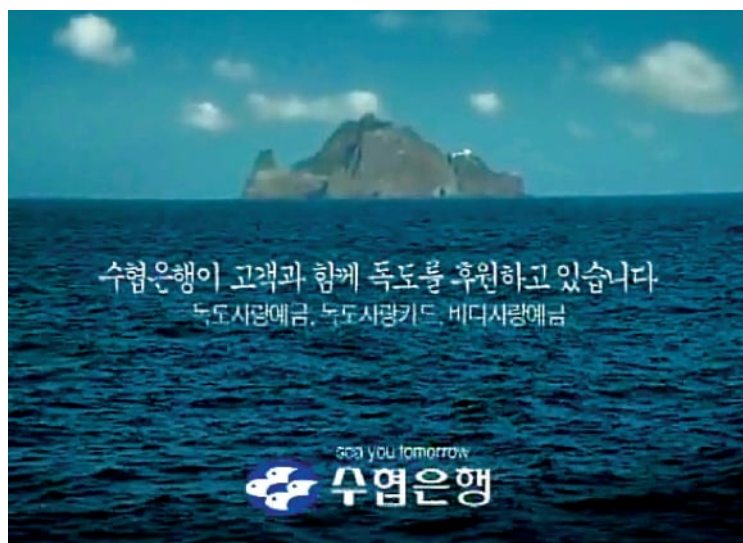
17 독도 거리 홍보 스티커

독도를 평소에도 더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 수협은 전국의 지점에 독도와의 거리를 명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 전국 어디에서나 독도와의 거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고취시키게 되었다. 독도와의 마음간 거리는 더욱 가깝게 만드는 수협의 응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18 독도 실시간 방송 운영

우리의 땅 독도의 모습을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독도 실시간 방송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방송을 통해 시민들은 안방에서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독도수호정신을 고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독도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19 수협은행 독도 TV광고

태극기가 꽂힌 독도의 해저 전경을 담고 대한민국 영토와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영상광고를 제작했다. 컴퓨터그래픽으로 바다 속에서 풍치 떼가 태극 문양을 이루는 장면도 삽입하였고 일반인들이 좀 더 독도에 관심을 갖고 수호의지를 고취하도록 했다.

제3부

하나가 되어, 위기를 넘고 대약진운동과 IMF외환위기(1990~2001)

제1장

민주 수협의 기반 위에
대약진의 길로





제2장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헤쳐 나가는 수협의 새 물결



제3장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길에 서다

민주 수협법의 탄생은 '어민의 자주조직'이라는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 의미 아래 1990년 최초의 직선 수협중앙회장이 탄생했으며, 계통조직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1993년 잠실청사를 준공하는 등 수협 대약진을 위해 전 임직원의 노력을 한데 모았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인해 수협은 초유의 시련을 맞았으며, 전사적인 경영혁신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투입 받기에 이른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과 어업인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었던 수협은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큰 길에 섰다.

제1장

민주 수협의 기반 위에 대약진의 길로

수협의 자율성 확보

수협경영의 자율화는 수협이 민주적 협동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기존에 상당 부분 간섭을 받아왔던 수산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 사항이 대폭 축소되거나 수협중앙회장에게 이양되어 수협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 수협은 곧 어민의 권익 향상을 지상 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이는 곧 발전된 수협, 조합원을 위한 수협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사진설명_ 대전수협 조합장 직접 선거(1989년 3월 10일)

21세기 수협 구현의 초석- 민주 수협의 재탄생



제3차 수협발전 5개년 계획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정치적 격변을 맞으면서 민주화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대상국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시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시장을 개방하라는 외국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며 더 이상 그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 수산업 역시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그 역할의 주체는 바로 수협이었다. 민주화의 흐름 속에 수협 역시 정부 주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었다. 젊은이들은 어촌을 떠나 도시를 찾아 가기 시작했다. 이에 어촌의 인구가 점점 감소됐고 노령화되어 갔다.



저축홍보 가두 캠페인

게다가 간척 매립 사업에 의한 환경오염과 어장 축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생겨났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고, 어촌의 선진화 추진과 연안어장의 목장화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했다. 수협중앙회는 제13대 박희재(朴喜宰) 회장의 주도 아래 정부의 이런 정책을 기본으로 삼고 어촌과 수협의 발전 방향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과 기능 개발에 중점을 둔 제3차 수협발전 5개년 계획(1987~1991)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은 '어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율적·자조적 협동조직체의 정착', '어촌사회에서 다목적 협동조합 기능 수행', '국민경제 발전과의 균형 유지'를 큰 목표로 삼고 추진되었다.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창고, 다목적선 등 공동시설을 확보, 수산장학생 선발과 안전조업 지도, 급유시설 및 연쇄점 증설, 신용점포 확대와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을 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이렇듯 수협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아 어민과 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된다.



수협 창립 28주년 기념광고(1990년)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 직선을 통한 민주 수협의 구현

»

수협은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어민들의 권익신장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조직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으로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도 있었다. 그 단적인 예가 수협 임원의 임면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1962년 설립 당시 조합장은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으나 정부는 “선거과열 및 그로 야기되는 부조리를 사전에 막는다”는 명목 하에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조합장은 중앙회장이 임면하도록 하였다.

1988년까지 유지되어 왔던 이 조치는 수많은 조합원들의 불만을 팽배시켜왔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1987년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수협 안팎에서도 민주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8월부터 ‘농·수협법 개정 시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여러 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마침내 1988년 7월 말 여당과 함께 ‘농·수협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것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당시 수산청은 1988년 6월부터 7월까지 학계, 정부,

수협으로 구성된 10명의 ‘수협법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률이 갖는 문제점과 민주화 시대에 요청되는 수협법을 심의하였으며, 그 최종 작업 결과인 개정 시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던 개정 시안은 당시 여소야대(與小野大)의 정국에서 여당의 법률안 외에 야당에서도 제각기 개정안이 제출되기에 이르렀으나, 심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여야합동의 단일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1일에 마침내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법률 제4083호)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법률 제4084호)이 각각 공포되었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협법 제1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수협중앙회장을 임면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조합장으로 구성된 중앙회 총회에서 중앙회의 회장, 감사, 이사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협법 제55조를 통해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직접 선출하며,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게 하였다.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총회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민주제가 도입되었다. 종전에는 조합의 총회를 조합장과 총대로 구성하도록 했지만 개정 수협법 제43조에서 총회는 조합원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1962년 제정 당시 민주적으로 어민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고자 했던 수협 정신을 재확인했으며, 제53조에서는 총회 소집의 어려움 및 의사행정의 문제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수협법 제53조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와 운영 방법은 조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산물제조수협의 경우에는 조합원 전체 수가 소수이므로 대의원제도를 둘 수 없도록 했으며, 중앙회의 경우에도 그동안 존재하던 대의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총회 및 이사회에 배분했다.

水協창립이후 처음으로 실시하고있는 직선조합장선거가 지난 4월말로 73개 회원조합중 20개 조합이 마무리됐다. 지난 62년 창립된 水協은 그동안 회원 조합장을 거의 일방적 형태인 黨派式 간선제를 통해 선출해왔으나 읍면에서 처음으로 漁民素으로 직접 뽑은 조합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10일 大川수협조합장 선거가 과열, 불만을 품고 갑독

총조합 4개 회원조합은 단독출마, 무투표당선되었다. 20명의 당선자중 13명이 기존 조합장이었으며, 나머지 7명도 대부분 수협조합사자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12명의 당선자가 大卒출신이라는 점도 흥미거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조합에서는 선거가 과열, 불만을 품고 갑독

새롭게 변모하는 水協

直選조합장 20명 탄생

투표율 84%... 진정한 漁民기관 "첫발"

선거로 시작된 이번 직선제는 직지않은 말로도 있었으나 평균 투표율 84.6%라는 높은 참여속에 마쳐「일단성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명의 후보자가 나서 가장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蔚山수협을 비롯, 차점자와 20표 차이도 나지않았던 몇몇 회원조합이 있었던 반면 廣州·康津·유자합·관청인 수산청에 탄원을 내는등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수산관계자들은 이번 직선제가 水協이 진정한 의미에서「漁民素」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며, 앞으로 직선제당선자들의 보다 활기찬 노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煥>

새롭게 변모하는 수협 - 직선조합장 20명 탄생 (매일경제) 1989년 5월 12일 13면

초대 직선제 수협중앙회장의 탄생

»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중 개정 법률」은 공포 3개월 후인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협중앙회장과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시대가 열렸다. 1990년 4월 19일, 드디어 역사적인 수협중앙회 직선 회장 선거가 수협연수원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이 날 선거는 2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제10대 수협중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던 홍鍾文(洪鍾文) 전 회장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과정 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취임 3개월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곧이어 치러진 재선거에서 이방호(李方鎬) 삼천포수협 조합장이 당선, 제1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실상 실질적인 첫 직선 수협중앙회장이 탄생한 것이었다. 이방호 회장은 제16대 회장까지 연임하면서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계통조직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협의 대약진을 위한 전 임직원의 노력을 이끌어내며 수협 발전을 가속화시켜 나갔다.

경영의 자율성과 사업 활성화의 도모

»

1988년 제11차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은 기존의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



홍鍾문 회장 선출

련하게 되었다. 우선 그동안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던 조합 총회 의결 사항과 정관에 정한 조합 해산 사유에 대해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도록 했으며, 조합과 수협중앙회 모두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왔던 규약의 제정과 개폐권은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했다. 또 수산청장의 권한으로서 수협중앙회장에 위탁하고 있던 조합의 임시이사 임명권을 수협중앙회장에게 이양하였고, 어촌계의 설립에 대해 종전에 수산청장이 설립을 인가하던 것을 수협중앙회장 인가사항으로 했다.

아울러 수협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에 대한 정부 인가제를 폐지하고, 조합은 수협중앙회에게, 수협중앙회는 수산청장에게 보고만 하도록 한 것도 중요한 변경 내용 중 하나였다. 다만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혹은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조합의 협동력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시설이나 조합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사업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처음으로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했다. 준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어민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수산단체'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했다.

또 보유 차량의 유상운송사업을 허용하고, 비조합원의 예금충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구분 없이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재무부장관이 승인한 유가증권 매입도 가능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여유자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했다.

수협경영의 자율화는 수협이 민주적 협동조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다. 기존에 상당 부분 간섭을 받아왔던 수산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 사항이 대폭 축소되거나 수협중앙회장에게 이양되어 수협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에 부응하게 된 것이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조



수협중앙회 노동조합 헌판식



제1회 노조 전국 분회장 및 대의원 노동교육

합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 수협은 곧 어민의 권익 향상을 지상 과제로 삼게 되었으며, 이는 곧 발전된 수협, 조합원을 위한 수협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수협중앙회 노동조합 설립

»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산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노동조합(이하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의 설립은 수협법의 민주적 개정과 더불어 수협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합원의 지위 향상,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일부 3급 이하 직원 45명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발기하였다. 위원장에 강태국, 부위원장에 정광진·유호성을 선출하고 1987년 7월 15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의 탄생을 알렸고, 1987년 7월 18일 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금융노조 산하 조직으로 정식 출범함으로써 수협 역사에 첫 이름을 새기게 되었다.

1987년 8월 11일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이 상근 발령을 받았고 전국 68개 분회의 조합원 1,647명이 가입했다. 이로써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이어 1988년 2월 10일 전문 83조 부칙 6조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임직원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 그 활동목적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협의 침체를 막고 내실을 강화하는 목표로 연결되며, 단순히 직원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더 진보된 수협, 발전된 수협을 이루자는 대의와 맞닿아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설립 후 계속 활동을 확대해나갔던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은 1991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에 이어 총무조직부장, 기획조사부장, 교육선전부장, 여성부장이 상임 근무를 하게 되고 13개 분회를 설립하는 등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다.

내실화를 위한 수협대약진운동



대약진을 위한 조직개편

»

1980년대 말의 수협법 개정으로 민주화와 자율화의 속원을 이룬 수협은 1990년대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도약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제15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방호 회장은 자립경영 기반 확립을 위해 1990년대를 ‘수협대약진시대’로 선언하고, 보다 내실 있는 수협을 만들기 위한 정책과 변혁을 수협에 나갔다.

1990년 1월에는 전자계산소를 본부직할 부서로 변경하고 소장은 간부직으로 직급을 상향했다. 또 늘어난 부서의 비중에 따라 필요해진 업무 및 개발담당 차장직을 신설했다. 감사부 업무 중 감사 보좌기능을 따로 분리하여 감사실을 신설했으며, 도지회 소속 지점의 차장제를 폐지하고 2급 대리체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11월부터는 3급 직위에 주임제를 신설하고, 공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통부, 판매사업부, 무역부를 유통사업부와 특수사업부로 개편했다. 아울러 저축부 점포개설반을 보강하고, 심사관리부를 심사부(심사1, 심사2)와 관리부(관리, 기술)로 분리했으며, 저축과를 분리하여 종전의 3급으로 운영하던 과장을 2급으로 승격 강화했다.

1990년 12월 4일에는 ‘3조 원 자체자금 조성운동’ 추진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운동은 이후 199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991년 들어 12개 이상의 신용점포 개설 및 상호금융업무 기능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 개편을 추진하였다.



‘3조 원 자체자금 조성’ 결의대회(1992년 1월 31일)

무엇보다 1992년의 가장 큰 성과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자체자금 조성운동의 목표액 3조 원을 달성한 것이었다. 다양한 혁신과 변화로 일구어낸 이 성과를 통해 수협은 1993년부터 제2단계 수협대약진운동을 전개할 원동력을 얻게 된다.

1992년에는 신용점포 14개소를 신설하고, 직판 사업소 판촉과를 수산물백화점으로 개편하여 본격적인 수산물



‘수산물 값 싸고 믿을 수 있어요 수협 수산물백화점 인기’ (동아일보) 1996년 3월 16일 23면



수협 수산물백화점



여직원 동계 근무복 품평회(1994년)

백화점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수협이 이전보다 질적·양적으로 개척된 조직으로 거듭났음을 증명한 것이다. 수산물백화점은 수도권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원산지 표시가 확실하고 비교적 값이 싼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소비자의 윈스톱 쇼핑을 위하여 매장 내에 정육 및 농산 코너를 함께 마련하기도 하였다. 모든 수산물을 도매가로 팔기 때문에 소매점보다는 10~30% 정도 가격이 저렴했으며, 이는 주변 수산물 관련 상권의 판매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00~300평 규모의 수산물백화점은 산지에서 출하한 신선한 선어, 활어, 건어 등 다양한 종류의 수산물을 갖춰놓았으며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당시 수산물백화점 서울 잠실점의 점장은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산지별로 확인하고 골라서 구입하는 경향이 부쩍 늘

어 원산지 표시를 가장 중시하였다”고 밝혔다.

수산물백화점 사업 참여를 통해 어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직거래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이후 금융계획부에 어음교환실을 설치하고, 장표관리업무를 총무부로 이관했으며, 판매사업부에 직매장개설반을 추가로 설치했다. 10월에는 제1단계 종합온라인이 개발 완료되어 전자계산소장에게 독자적인 운영 권한을 부여했다.

이처럼 1990년대 초 수협이 자체자금 조성운동을 조기 달성하고 제2의 수협대약진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내부 조직과 사업 전 부문에 걸쳐 개혁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수협 임직원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진정한 민주화와 자율화는 수협 조직의 내실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성숙한 인식이 가져다준 소중한 결과물인 것이다.



수협 미역 상품(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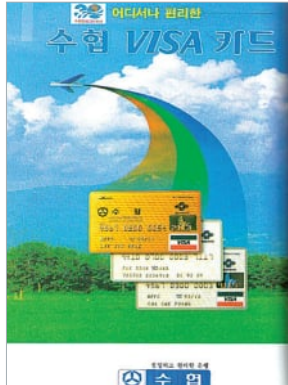
사업의 성장과 확대

»

1991년부터는 영업점의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신탁 부문의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는 수협대약진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자체자금 조성계획의 일환이었다. 그 밖에 미취급 상품의 조기 전산 개발과 특점금전신탁 및 기금운용신탁 등 업무 취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탁도 증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 결과 적립식 목



수협 금융업무 소개 광고



수협 VISA 카드 광고



녹번동지점 개점(1991년 5월 2일)

적신탁 6억 원, 가계금전신탁 413억 원, 기업금전신탁 715억 원, 한전 국민주신탁 61억 원을 합쳐 총 1,195억 원의 일반 신탁고를 달성했으며, 특정금전신탁은 232억 원을 달성했다. 1992년에는 신탁 수탁고가 총 2,184억 원에 달했으며, 1993년에는 그 두 배가 넘는 4,716억 원을 달성했다.

1990년부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지연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왔던 신용카드업무 취급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3일 국민신용카드(주)와 업무제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6일에는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 영업인가를 받았다. 이어 1991년 3월 4일엔 재무부로부터 VISA International 회원 가입 승인을 받았고, 드디어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용카드 상품을 선보임으로써 '고객과 가까운 협동조합'으로서의 면모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한편, 수협의 사업이 점차 확충되고 성장하면서 공제 업무를 담당할 기구와 공제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계통조직을 활용하여 가입활동을

전개하는 협동조합 보험조직이라는 본질적 문제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1992년 3월에는 회원조합의 공제 추진 기반 확충 차원에서 전 조합에 공제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구별 조합에서도 공제업무 원수취급을 할 수 있게 했다. 10월에는 회원조합 상호금융 점포에서 생명공제사업의 원수취급을 각각 허용하여 공제판매 점포의 확대를 기했다. 또 1993년 1월 공제부를 공제사업본부로 승격하고 본 부장을 이사급으로 운영하는 한편, 공제 추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3월에는 서울 소재 신용점포에 공제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25명을 배치하고, 공제영업점에 '수협 가정설계사'라는 이름의 전업모집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4월에는 공제순회교육단을 신설하여 1996년 말까지 운영했다.

이와 함께 공제사업의 연구 기능 제고와 장기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1992년 3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국 보험학회에 '수협공제 발전 방향 연구용역'을 의뢰, 수협 공제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였으며, 1994년 1월 1일에



1990년대 초 공제상품 광고



공제사은품(1993년)



‘수산물 개발 ‘기르는 어업’ 육성’ <동아일보> 1994년 8월 29일 7면



수협가족 체육대회(1992년)

는 국제 보험단체인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ICMIF)에 가입하였다.

어민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고자 1989년에는 ‘어촌새마을사업’의 명칭을 ‘소득증대사업’으로 변경하고 어업 부대시설, 자원 조성, 어촌 부업사업 등을 포함시켰다. 비록 사업 내용의 본질적인 변동은 없었지만 사업명에서 ‘새마을’을 떼어버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시대가 변화하고 정부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퇴조하는 가운데, 종래 정부 보조를 위주로 수행했던 새마을사업에서 벗어나 사업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어업 경제상황은 매우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한일 및 한중 신어업협정이 체결되고 EEZ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수산 정책을 기존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며 양식어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실제로 ‘기르는 어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수협 설립 조건을 ‘특정 어류를 기르는 어업’으로까지 확대하고 업무 구역을 대폭 완화시킨 정부의 정책은 수산양식과 관련된 업종별 수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1993년 3월 22일 경남 통영시에 설립된 해수어류양식수협을 기점으로 1994년 6월 23일 광주직할시에는 민물장어양식을 주로 하는 양만수협이 발족했다. 1994년 8월 20일에는 경남 통영시에 경남우렁챙이양식수협이, 1994년 12월 22일에는 제주도에 제주해수어류양식수협이, 1996년 5월 7일에는 전남 여수시에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이, 1999년 12월 22일에는 전남 완도군에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등이 발족하는 등 신규 양식수협의 등장이 이어졌다. 이로써 1990년대에 무려 6개의 양식수협이 수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수협의 입지는 전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다. 양식어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수협의 신설은 단순히 수협 조직의 확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수산업을 다양화하고 양식어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수산업 부흥의 새 전기를 마련하였다.



수협 마크(성백능 기증)

Story in History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을 좋아한다.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웃한 섬나라 일본에서 회, 스시 문화와 함께 생선 사랑을 이어왔던 것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생선은 밥상의 한 구석을 차지해왔다. 이토록 사랑받는 밥도둑 생선,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은 무엇일까?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식재료 명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선 중 하나다. 조선시대 때 함경북도 명천군에 사는 태씨 성을 가진 어부가 잡아 명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은 생태, 말린 것을 북어, 반쯤 말린 것은 코다리, 겨울에 잡아 얼린 것은 동태, 얼리고 녹인 것을 반복한 것은 황태, 어린놈을 말린 것은 노가리라고 부르는 등 줄잡아 쉰 개가 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봐도 명태가 우리 문화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수많은 이름만큼이나 버릴 데 없이 다 먹는 생선이다.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먹거리인 셈이다.

명태는 연간소비량이 상당히 때문에 쌀처럼 정부에서 비축해두는 생선이기도 하다. 1980년대까지는 동해의 명태 어장이 워낙 풍부했기에 자국 내 어획량으로도 충분히 자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남쪽의 난류가 북상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명태의 어획량이 급감했다. 명태 값이 폭등할 기미가 보이자 정부에서는 비축량을 전부 시장에 풀었지만 그래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현재는 수입을 해가면서 국내 수요량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명태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명태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생선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로부터 명태를 먹지 않고 어묵 재료로만 사용해왔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다.

명태처럼 일본에서 수입하는 생선 중엔 조기도 있다. 조기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사랑받는 생선 중 하나다. 1980년대까지는 전남 영광에서부터 전북 부안의 위도까지의 칠산바다와 연평도 해역이 조기의 어장으로 가장 유명했으나, 지금은 전국 조기 어획량의 70%가 제주도와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잡힌다. 이는 지나친 남획으로 인한 조기의 생애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조기를 건조시켜 만든 굴비는 예로부터 한국인의 대표적인 반찬으로 유명하다. 고려시대 이자겸이 영광으로 유배왔을 때, 굴비 맛을 보고 권력에 목매달았던 자신의 지난날에 허탈함을 느껴 진상으로 올라가는 굴비에 “더 이상 비굴(非屈)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적은 것이 굴비의 유래라는 일화가 있다. 게다가 어느 구두쇠의 이야기로 전해져오는 자린고비 설화는 밥도둑 굴비의 명성을 더해준다. 명태와 굴비 이외에도 구워먹거나 조림으로 먹는 갈치,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등어, 술안주로 그만인 오징어 등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생선이다. 일본 다음가는 수산물 소비 국가이자 다른 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는 생선을 선호하는 독특한 한국 수산물 문화는 바다와 인접한 자연환경과 우리나라 특유의 식습관과 결합되어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오늘의 식탁에는 푸른빛 바다내음을 선사하는 군침도는 생선 반찬이 올라오길 기대해본다.

제2장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헤쳐 나가는 수협의 새 물결

변화의 바람 속에서 노력하는 수협

UR협상 타결에 따라 국제화·개방화 물결이 거세지고 국내 수산업의 입지가 악화되면서 수협은 경영 및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의 한 방편으로 시행된 '수협 새물결운동'은 1995년 말 종료된 '수협대약진운동'의 정신과 성공적 시행을 계승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사진설명_ 수협중앙회 잠실 청사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다지다



대약진의 새로운 터전

»

1993년 9월 19일 드디어 수협중앙회의 잠실 청사가 완공되었다. 그간 자체 청사 신축을 염원했던 수협 임직원과 어업인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던 날이었다.

1984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에 부지를 확보하고 1989년 12월 착공 이후 기초 굴착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1990년 9월 이 일대가 잠기는 예기치 않은 대홍수로 부지가 침수됨에 따라 공사가 거의 포기상태에 머물렀고, 당시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8명의 청사 감독팀은 물을 퍼내고 보강축대를 쌓는 등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3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1993년 10월 19일 신청사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청사는

총 6,611.64㎡의 대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8층, 연면적 30,456㎡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수협의 전 부서가 입주함으로써 전 임직원은 부푼 기대와 설레는 희망을 가지고 신청사에서의 업무를 시작하였다.

잠실 청사는 신축 당시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물 배치에 있어 교통회관과 평행한, 그리고 길쭉한 부정형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건물을 배치함으로써 부지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였으며, 서측 부지에 생긴 데드스페이스는 조경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칫 소홀하기 쉬운 녹색공간의 빈약성을 극복하였다. 건물의 형태 및 입면구성에 있어서는 지상 1, 2층을 기단부로 하고, 그 위에 직사각형 건물을 수직으로 쌓아올림으로써 굳건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한 건물 중앙에는 마



수협중앙회 청사 신축 기공식 안전기원제(1989년 12월 23일)



잠실 청사 준공식

고급관리자반 시간표 (중. 조)													
(2001. 4. 2 ~ 4. 4)													
▷ 교육장소 : 제 2 강의실 (3층)													
시간	아침일과	1	2	3	11:50 ~ 13:10	4	5	6	7	8	18:00 ~ 19:00	저녁 일과	21:00 ~ 22:00
요일	06:40 ~ 09:00	09:00 ~ 09:50	10:00 ~ 10:50	11:00 ~ 11:50	13:10 ~ 14:00	14:10 ~ 15:00	15:10 ~ 16:00	16:10 ~ 17:00	17:10 ~ 18:00	18:00 ~ 19:00	19:10 ~ 20:00	20:10 ~ 21:00	21:00 ~ 22:00
4/ 2 (월)	-06:40 기상 -06:50 ~ 07:20 아침행사	-천안역집결 (09:50) -교육등록	생활안내 및 개강식 (교무과)	수협경영 환경 (장병구)	새로운 리더십과 조직관리 (강종섭)	체육활동 (김종기)	저	자기소개 (지도교수)	본업토의 설명 (이형근)	저			
4/ 3 (화)	수협외 노래 08:20 ~ 08:50 제1강의실	유동업의 변화와 대응전략 (변영식)	본업토의 (이형근)	금융환경변화와 국내외 경제전망 (김대식)	본업토의 발표 (이형근)	대화의 시간 (지도교수)	행						
4/ 4 (수)	-07:20 ~ 08:00 아침식사	정보화시대의 대처방안 (이정용)	수협발전 방향 (박상길)	수협발전 방향 (박상길)	수료식 및 설문조사 (교무과)	사							
비고	※ 비상연락 : 교무과 (☎ 041-560-6720-2) 야간 : 지도교수실 (숙박동 6801) ※ 구급약 지급 : 교무과 (주간) 또는 지도교수실 (야간)에서 수령												

고급관리자반 교육시간표(2001년) : 박상길 前 회장의 마지막 연수원 강의

치 돛대와 돛대 위의 망루를 연상케 하는 입면을 구성함으로써 수직적 이미지의 강조와 중앙의 출입구를 강하게 표출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했다. 또한 외부마감은 4mm 회색 계통의 알포릭에 180mm 컬러 복층유리로 마무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개성있는 외모로 단장되었다.

쾌적성과 접근성 제고를 통한 교육활성화, 천안 수협연수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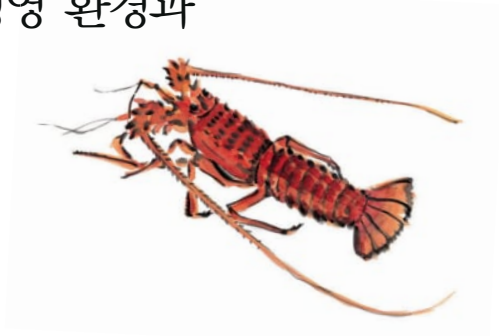
수협중앙회는 1977년 7월 2일 인천시 북구 효성동에 부평 수협연수원을 개원한 후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왔다. 개원 이래 4만 1,065명(연인원 기준)의 교육 실적을 거양함으로써 어촌사회에 협동조합 운동이념을 확산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직무능력 배양교육도 병행하여 수협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발굴해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연수원 주변에 주택지구가 들어서고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점차 악화되자 1994년 4월 30일 부평 수협연수원을 매각하게 된다. 이후 충남 천

안시에 부지를 확보하고 연수원 신축에 들어갔다. 공사 기간 동안 임시로 수원 적십자교육원과 성남 새마을연수원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교육기능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1997년 7월 18일, 드디어 천안 수협연수원이 준공되어 개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협교육의 요람인 천안 수협연수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553번지에 위치한 수협연수원은 대지 1만 4,079평, 연건평 4,816평 규모에 최신식 교육기자재에서부터 강의실과 숙박시설까지 갖춤으로써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축하였다. 무엇보다도 천안의 지리적 위치 면에서 전국의 어업인과 회원조합 임직원 등이 교육과 연수에 참가하는 데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더 많은 어업인들과 수협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평 수협연수원에 이어 자체 건립·운영한 두 번째 연수원인 천안 수협연수원 개원은 협동조합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어업인 모두의 숙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와 같이 수협운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업인과 임직원 교육의 확대와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새물결운동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도래

»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된 민주화 물결은 조직의 민주화 및 경영의 자율화라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보의 기반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협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1993년 말 남미와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이 타결된 것이 그 대표적인 변화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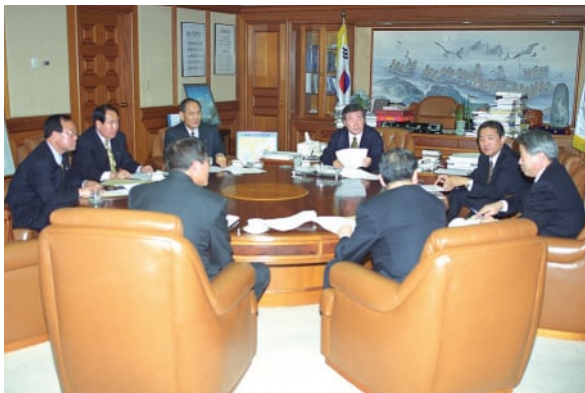
UR협상에서 미국은 수산물에 대해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요구하였지만 우리 정부는 농수산물은 무세화 및 관세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버티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결국 뱀장어, 복어 등 22개의 수산물이 수입자유화되는 내용으로 1993년 12월에 최종 타결되었다. 이어 1994년에는 세계무역기

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가 출범하면서 수산물 개방 압력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 압력에 따라 1990년 11억 5,000만 달러이던 수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1995년에 이르러서는 4억 4,700만 달러로 줄어들면서 급속한 속도로 감소되는 문제를 보였다.

본래 1989년 이전까지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국제수지조항에 의거하여 무역수지가 적자인 국가의 경우 수입을 금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이전 3년간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더 이상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관세와 외국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아 수입실적이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1993년 UR협상 타결 이후 평균 32.3%의 관세를 인하하였고, 국내 수산물 생산이 부진해짐에 따라 외국 수산물의 수입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94년 3월부터 12월까지 농수산물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비하여 농수산정책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자 대통령 직속의 정책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를 8개월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수산 분야에는 당시 부산수산대학교 최정운 교수가 임명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협동조합이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



WTO 수산부문 비상 대책위원회(1999년 11월 19일)



수산물 97년 수입자유화 <동아일보> 1994년 1월 28일 11면

다는 정책 건의를 내놓았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수협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원조합의 상임이사제와 수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 도입이 그 요지였다. 또한, 여러 부정적인 상황을 타결하고 우리나라 수산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산발전기금 등을 조성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수협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조정하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2001년 들어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만성 적자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다. 국내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맞불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 품목에 걸쳐 국제화·개방화되는 이런 시대일수록 수협이 맡은 사명은 더욱 커질 것이다.

‘수협 새물결운동’으로 화합의 공동체문화 창조

UR협상 타결에 따라 국제화·개방화 물결이 거세지고 국내 수산업의 입지가 악화되면서 수협은 경영 및 조직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이의 한 방편으로 시행된 ‘수협 새물결운동’은 1995년 말 종료된 ‘수협대약진운동’의 정신과 성공적 시행을 계승하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1995년 11월 당시 수협중앙회 17대 박종식 회장은 경영쇄신 방안으로 경제 및 신용사업의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 동안 ‘10조 원 자체자금조성운동’과 ‘화합의 공동체문화’를 내세우며 그 시작을 알렸다.

우선 ‘화합의 공동체문화’를 내세운 ‘수협 새물결운동’은 교육을 통한 수협인의 자세정립, 직원들의 경영참여를 통해 주인의식 고취, 각종 경진대회를 통한 능력발휘 기회 확대, 성취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포상제도와 단합대회 등을 내세우며 계층 간의 일체감 형성을 추진했다. 여기에 더해져 1998년까지 자체자금 10조 원을 목표로 추진하며 정신적·자본적으로 수협의 기반을 다시 세우려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생명공제 가입이나 수산물 판매,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금융업무에 높은 성과를



할어 수입 저지 어업인 결기대회 (2001년 11월 21일)



수협 새물결운동 추진대회(1996년 1월 30일)



움직이는 수협 - 입출금융 휴대형 무선단말기 <한겨레> 1998년 3월 6일 11면

달성한 임직원을 포상하고 승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여의식을 제고했다.

그 결과 1998년 말 10조 9,488억 원의 자체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수협 새물결운동'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지구 온난화 등 기후의 영향으로 점차 줄어드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UR협상, WTO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는 수산물 수입량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협과 어업인이 함께 극복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금융 전산 역량 강화

»

1977년 전산용역센터에서 컴퓨터 설비를 빌려 금융업무를 시작한 수협의 전산시스템은 1984년 자체 컴퓨터 설치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후 1993년 10월 2일 청사 이전과 함께 금융 부문에 종합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더욱 확충된 고객 서비스 제공과 함께 명실상부한 금융 온라인 시대를 열어갔다.

종합 온라인시스템이 구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과목별·영업점별 원장 과목 중심으로 되어있던 것이 고객의 실명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한 고객번호에 의거해 고객중심의 전 과목을 하나의 원장 범주 내에 구축하여 고객의 금융정보 및 거래 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약했다.

이 종합 온라인시스템은 금융 온라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금융 신상품 개발기간의 단축, 대외기관과의 자료·정보 교환 등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선진 전산시스템으로서, 1991년부터 2년여에 걸쳐 이룩한 전사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 이를 통해 수협 신용사업은 조합계통금융 차원을 넘어선 선도적인 은행으로서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

이후 금융업무는 빠른 속도로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신용카드 24시간 승인업무, 전자문서유통망 구축, CMS(자금관리시스템)업무, 베스트 적립공제, 상호금융 장기주택자금대출, 신용정보 온라인 시행, 공제대출 온라인 시행, 외화송금과 같은 신규 업무를 개발하고 다양한 공제상품을 개발하는 등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수익률 제고 및 일선 점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극대화해 나갔다. 아울러 예금원장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전 예금원장을 2중으로 구축했으며, 영업점의 단말기 처리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부하를 감소시키는 노력도 기울였다. 또한 상호금융 경영정보업무 추가, 영업점 상시감시 시스템 구축, 급여작업 및 고정자산관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투명하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주 컴퓨터 온라인시스템을 추가로 도입·교체하여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처리 능력을 제고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수협의 전산화는 기관의 특성상 타 금융기관에 비해 개발이 다소 뒤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수협 전산



로비 전시 그림 : 어해도(魚蟹圖), 이영수 화백

업무의 개척자라는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하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창기 직원들의 노력과, 이후 발 빠른 대처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1990년대 말에는 타 금융기관 수준의 전산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써 수협은 이전보다 소비자와 가까운 협동조합이자 금융기관으로 거듭났으며, 다가오는 21세기의 도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조사연구업무의 새로운 전기 - 수산경제연구원

»

수협의 조사업무는 1968년 9월 3일 직제 개정에 의해 기획관리실 조사통계과로 출발하여 1970년 12월 기획조사부로 변경되어 업무를 수행하다가, 1975년 기획조사부에서 분리되어 조사부로 승격되었다. 이때부터 어업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국제협력 업무를 흡수하여 조사부에서 담당하기 시작했다. 1993년 12월 UR협상 타결과 이에 따른 1994년의 WTO 출범으로 수산업의 국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수협의 대내외 여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당시 제16대 이방호 수협중앙회장은 1995년 1월 1일 중앙회 기구개편에서 수산경제연구원 설치를 단행했다. 그리하여 수협의 조사업무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1996년 1월 직제 개정에서 종전의 조사통계 업무를 수산

경제연구원에서 흡수함에 따라 조사부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하여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데 설치 목적을 둔 수산경제연구원은 기존 조사통계업무에 연구업무를 보강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당시 UR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외의 급격한 환경 변화와 WTO체제 출범 이후 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대비하여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협도 다방면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산경제연구원은 1995년 1월 설치와 동시에 종전의 조사부에서 행해오던 '수협조사통계', '어업경영조사', '영어자금소요액조사'의 정기 간행물 발간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중점 연구과제로 1995년 '수협 경영이념과 신수협 경영정책', '일본의 자원관리형 어업에 관한 연구', '금융산업 재편과 수산금융의 발전 방향', 1996년 '농업 및 수산업 재정 투·융자의 비교연구', '연근해 어획물 자유 판매제 실시에 따른 문제와 개선 방안', 1997년 '어업인 고충백서', '8개 수협조합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물의 생산량 예측에 관한 조사연구'에 이어 2000년에는 '한국수산물명품총람', '활어 유통조사', '19개 법인어촌계 경영진단 실시', '수산보조금에 대한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안' 등을 발간했다. 이처럼 다양하고 폭넓은 조사연구 및 경영진단업무를 통해 우리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정책과 논리 개발에 많은 공헌을 해왔다.

고객만족

“최고를 향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수협이 하는 은행업무

예 금

- 종합온라인예금, 가계당좌·당좌예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 종합통장
- 근로자장기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 양도성예금증서(CD), 표지어음매출, 환매채
- 자기앞수표발행, 타행송금, 추심 등

신 탁

-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 개인연금신탁, 노후회생연금신탁
- 특정금전신탁, 기금운용신탁, 개발신탁 등

대 출

- 가계·기업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적금관계대출
- 지급보증, 여음환인, 당좌대출, 신탁대출 등

외 환

- 수출·입송인, 선적서류매입, 내국신용장 개설 및 매입
- 환전, 외화수표매입 및 추심, 해외송금, 외화예금 등

공제(보험)

- 복지저축공제, 돌고래보장공제
- 장학공제, 가족사랑암공제, 어선보험공제, 선원특수공제 등

신용카드

- 현금서비스, 각종물품구매대금결제, 카드론
- 직불카드, 선불카드, 해외여행시사용
- 각종통신관련 및 예약서비스 등

기타서비스

- 365일 자동화 코너, 대여금고
- 국고·공과금·국세보험료(자동납부)
- 전세·보증금대출서비스
- 국공채 판매 등

최고의 품질 고객과 함께



수 협

1990년대 수협 광고

제3장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길에 서다

세찬 비가 온 뒤 땅은 단단하게 굳는다

외환위기 이후의 시련에서부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진통에 이르기까지, 수협의 전 계통조직과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조합원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향해, 그리고 수협 사업을 이용하는 고객을 향해, 더 나은 21세기를 향해 당당히 섰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큰 길이었다.

사진설명_ 수협중앙회 전산정보부 서버실

IMF외환위기와 공적자금 투입



외환위기,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

1990년대 중반 이후 수협은 전국 각 지역에 수산물백화점, 도매시장, 수산물공판장, 지점 등을 개설하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거대한 먹구름이 서서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었고, 수협도 그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다. 1997년 11월에 한국 경제를 강타한 금융 외환위기의 역풍이 그것이다.

우리 정부는 급격하게 밀어닥친 외환사정 악화로 인해 전 산업계가 파국에 직면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IMF를 통한 국제금융 지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합병·퇴출이라

는 수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화·동남·대동·경기·충청은행은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타 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이처럼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가속도를 더해 가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금융기관도 생존을 위해 피나는 자구노력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신용사업을 수행해 온 수협도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모든 수단을 강구했다.

수협은 1997년 12월 경영혁신대책반을 편성하여 IMF 관리체제 하의 대응 방안으로 대손충당금 및 유가증권 평가충당금 100% 적립 재원 확보 등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 8% 충족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재무



시중은행 구조조정 <동아일보> 1998년 6월 29일 1면



수협 직원 금모으기 행사(1998년 1월 23일)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합장 간담회 참석(2000년 11월 17일)

구조 개선과 '수협 살리기 운동' 전개 등의 경영혁신 대책도 수립하여 즉각 실시해 나갔다.

또 1998년 2월 17일에는 수산금융채권 700억 원을 발행하여 여유자금을 확충하고, 같은 해 6월에는 고정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액 1,217억 원을 조성, 이를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현실은 가혹했고 시련은 너무나 컸다. 대손충당금 등의 적립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997년도 결손 397억 원과 1998년도 결손 3,283억 원이 발생하여 1998년 말 BIS 자기자본 비율이 1.18% 수준으로 급락하고 말았다. 구조조정 등의 경영혁신과 같은 수협 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태였던 것이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1997년 말, 이렇게 수협은 거대한 파도 앞에 서있었다. 그 파도를 넘지 못하면 이 땅의 어업과 어업인이 더욱 큰 해일을 맞을 위기였다.

공적자금 투입과 또 다른 시련

»

결국 1999년 초 수협법을 개정하고 정부에 우선출자 형태의 자금 5,700억 원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금융산업 구조

조정에 관한 특별법」(금산법)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적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출자 지원이 가능한 지에 대해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쳤다.

결국 1999년 하반기에 와서야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에서는 수협을 '부실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적자금 투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2000년 1월 28일에는 우선출자제도를 도입하고 신용·경제사업 두 부문에 별도의 대표이사제도 도입을 통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4차 수협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정부 관련 부처 간에 수협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월 24일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4개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안에 합의하였다.

또한 4월 15일에는 관계 부처 국장회의에서 금산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협의를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선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감자(減資) 및 신용·

경제사업 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했다. 수협의 사업에서 금융산업을 담당하는 신용사업 부문을 완전 분리하는 경우 금산법이 규정하는 금융사업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협은 수협법 개정에 앞서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신용사업 부문의 자회사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우선 신용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수협법을 개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협 조직을 분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업인의 저항 등이 정치 쟁점화되어 결국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또 수협은 이익추구단체가 아닌 인적 결합체로서 주식회사와는 다르며, 수협의 지도·경제사업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용사업이 만일 자회사로 분리하게 되면 어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도·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빚어져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회원조합 상호금융사업의 공신력이 상실되어 일선 수협이 파산하면 전체 어촌경제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주된 반대 이유였다.

결국 신용사업 부문을 독립사업부제 강화 형태로 할 것이냐, 자회사로 분리할 것이냐를 놓고 수협 내·외부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제논리에 따라 신용 자회사를 주장하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협동조합 원리에 따라 독립사업부제를 주장하는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해소된 것은 2000년 8월 초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부임 이후였다. 회원조합장 및 수협중앙회 임원과의 몇 차례에 걸친 토론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장관 주재로 정부·수협·학계의 공청회를 거쳐 결국 신용사업을 독립사업부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고와 회의를 거쳐 10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수협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채택되었다. 이때 자회사 수준으로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독립

사업부제 강화 방안을 채택하고, 수협법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출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일반은행에 대한 지원 예를 따르기로 하고, 수협 부실을 초래한 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이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수협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2월 30일, 독립사업부제를 강화하여 자본·인사·예산권 등을 분리하고, 국가 등의 출자 지원 근거를 반영하여 마침내 제 26차 수협법을 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수협법에 따라 2001년 1월 8일부터 1개월간 재산 분리를 위한 재산실사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같은 해 3월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4월 25일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해 4월 25일 경영정상화 이행협약(MOU)을 체결했다. 4월 26일 수협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조 1,581억 원 중 1조 1,095억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기에 이르렀다. 나머지 486억 원은 12월 31일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새 경제팀 연속 인터뷰 ⑤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

“水協 책임지고 정상화”

대답=金光顯 경제과학부장

노무현(盧武鉉)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8년 5월 정권교체 계기로 스타 정치인 반열에 올랐다가 부산시정 선거(6.5선)와 15대 총선에서 낙선의 아픔을 맛보기도 한 대종 정치인 출신. 노 장관은 21일 조선일보 김광현(金光顯) 경제과학부장과의 인터뷰에서 “재정경제부는 한편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본위도 도입의 의무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외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찰자〉

—장부에 들어와 있네요 어떨습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公職)에 어떨다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공무원들이 유능하고 성실하며 열심히 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활발의 토론도 할 생각입니다.”

—원격전화로 출신으로 노 장관 장관이 제각각, 다들 부실한 것들을 가난해 해양부 장관에 발탁했다고들 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손근이 해양부 장관을 회담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에서 가장 감동이 많은 쪽이 연남대인지에, 그 지역 출신인 게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대화를 나누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위임후 업무보고를 각 실·국을 직접 들으며 받은 데 대해 “신뢰하다”는 반응과 “정치인의 소행”이라는 평가가 잇달았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새로 장관으로 온 만큼 실·국의 현장 분위기를 익히고 일선 사무관이나 직원들과 약속도 나눌 필요로 직접 보고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수협 정상화를 한 중이임”을 약속하고 “수협에 대한 정부 지원은 1조 원대로 예상되는 등 수협 정상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데로.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규모가 1조 원대로 예상되는 등 수협 정상화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인 데로.

—수협이 부실해진 가장 큰 원인은 원금조달 외채(外債)를 금융기관 방식으로 바꾸 5000억원대의 정부보증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원으로라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정부정도를 대신 수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협의 어민들의 수산권, 제를 갖고 있는 특수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책임지고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新韓(新韓)) 경영에 차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이자 세계 컨테이너 수송 간선망(幹線網)에 위치해 동북아 물류중심



수협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인터뷰 (조선일보) 2000년 8월 22일 13면

02

시련을 딛고 더 나은 21세기를 향해 서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큰 길에

»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인적 결합을 통해 상부상조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스스로 확보하는 자주·자조를 본질로 하는 경제적 단체이다. 그러나 IMF외환위기에서 시작된 수협의 결손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어지면서, 이 같은 자주성이 상실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후 공적자금을 비교적 손쉽게 상환할 수 있었으나, 이와 달리 수협의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닌 까닭에 정부에서 자금시장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공적자금은 수협 스스로의 노력으로 직접 상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016년까지 잉여를 시현하여 미처리결손금 9,887억 원을 정리하고,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조 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

도록 되어있는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 계획은 아직까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어 그 자체로 큰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은 그 짐을 스스로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을 포기할 수도 없으며, 수많은 어업인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년 공적자금 투입은 수협 40년 역사의 오점이 아니었다. 위기를 딛고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새로운 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시련에서부터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진통에 이르기까지, 수협의 전 계통조직과 모든 임직원들 그리고 조합원들은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향해, 그리고 수협 사업을 이용하는 고객을 향해, 더 나은 21세기를 향해 당당히 섰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큰 길이었다.



뉴스타트 수협발전 3개년 계획 발표회(2001년 5월 28일)



수협대약진운동 평가보고대회(2001년 3월 28일)



왜 풍경에는 물고기가 달려있을까?

자나 깨나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 죽어서 까지도 눈을 감지 않는 것이 물고기이기에 수험자들은 이 깨어있는 것의 정신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산사의 풍경 끝에 물고기를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 깨어있고자 하는 자세를 수험도 본받기 위해 다각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빠른 구조 조정과 낮은 관행을 깨는 노력, 그리고 고객사랑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끊임없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수협, 깨어있는 수협은행을 만나보십시오.

고객센터 1588-1515

인터넷뱅킹 파트너
http://www.suhup.co.kr

바다사랑 고객사랑
수협은행
Suhyup Bank

‘우리바다’에 실린 수협 광고(2001년)

기획 03

세계 속의 수협으로 우뚝서다

수협은 2009년에 마침내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이 되면서 국제 수산단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후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개최 및 KSP 교육 등 수협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1년 ICA 로치데일 파이오니어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 속의 수협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오늘 처음을 맞이하는 ‘세계 수협의 날’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각국 회원 상호간 우호를 증진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과거 협동조합의 성과를 고찰하고 미래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새로운 발전방향도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전 세계 협동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서규용 농림수산물부장관 축하 중에서...



우리 수산업계에서 2011년 6월 16일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바로 그 날, 협동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세계 수협이 서울에 모여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수협이 주축이 되어 세계 수협이 각자의 틀을 깨고 더 큰 협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설립 이후 국제협동조합 간의 교류에 꾸준히 참여해 오던 한국 수협이 국제협동조합연맹인 ICA에 가입해 정회원이 된 것은 1979년이다. 수산위원회에 소속된 우리나라 수협은 한국의 수협운동과 수산업 현황에 대한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왔다. 특히, 1984년과 1985년에는 말레이시아 수산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 동남아시아 수산분과위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1998년에는 서울에서 ICA 수산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01

그렇게 국가 위상의 제고와 더불어 세계적인 수협 활성화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온 수협은 2009년에 마침내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이 되면서 국제 수산단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해 11월 16일 이종구 수협 회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CA 수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94개국 251개 회원단체와 10억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ICA의 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된 것이다. 같은 기간 수협은 수산위원회 사무국 운영도 담당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변화된 위상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동시에 수협의 국제적 인지도를 반영한 뜻 깊은 일이었다. 이듬해 2010년 6월 16일 수협은 서울에서 '새로운 1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CA 회원단체 대표 및 영국의 로저 스피어 교수 등 세계적인 협동조합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02

국무총리 축하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업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활짝 열어나가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멀리 해외에서 오신 전문가와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는 희망의 보고(寶庫)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삶의 터전입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산물 생산량 세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업인의 자원관리와 국제적인 협력일 것입니다. 어업구조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수산업 분야에도 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과 기술개발,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이 수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 수산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6월 1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에는 서규용 농림수산물부장관, 정해걸 국회의원, 찰스 굴드(Charles Gould) ICA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 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수산업의 중요성과 수협 필요성 홍보, 활력 넘치는 어촌공동체 건설, 수산업 미래가치 창출과 녹색성장 산업으로 도약, 어업인에 대한 무한 봉사, ICA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연대' 등을 골자로 한 '세계 어업인을 위한 수협인의 행동강령'을

01

ICA 다이제스트

02

정운찬 국무총리 축하메시지 영상

‘세계 수협’의 날’ 경과 보고

‘세계 수협의 날’ 제정에 관한 경과와 그 의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ICA수산위원회는 1895년에 설립된 국제협동조합연맹의 분과조직으로서 수산업협동조직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어업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회원국의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하며 상호이해와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전문기구입니다.

한국의 수협중앙회는 1979년 ICA와 ICA 수산위원회에 동시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후 30년 만에 한국이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바로 그 해 2009년 11월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이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ICA 수산위원회와 한국의 수협중앙회는 지난 해 6월 1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1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ICA 수산위원회 대표들과 세계적인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강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고, ‘세계 수협의 날’ 제정 등을 포함한 5개 항의 ‘서울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2010년 9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ICA 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 회원단체 대표 전원의 찬성으로 ‘서울 선언’이 발표된 6월 16일을 ‘세계 수협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ICA 수산위원회와 한국의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과 수협의 역할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재조명하고, 미래 세계 수산을 위하여 각국 회원수협의 전문성과 경험 공유를 확실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뜻을 같이하는 참석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에 용기를 내어 2011년 6월 16일인 오늘,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수협의 날 탄생을 계기로 세계의 모든 수협인들은 지금까지 교류가 미진했던 상호 독립적인 단체들 간에 대화를 이끌어내고 세계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각국 정부가 맡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조심스러운 문제들까지도 우리 수협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긍심을 다함께 가지도록 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참석자 모두 같은 비전과 희망을 갖고 모였습니다. 이제 수협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수협의 날』 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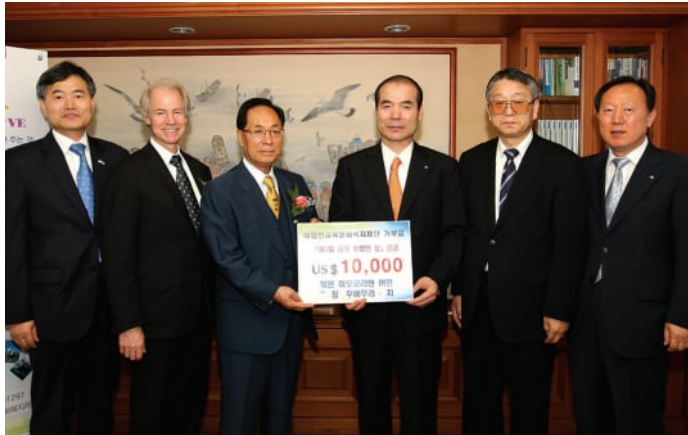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제정 선포했다. 제1회 ‘세계수협인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수산업 및 협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 및 어업인을 선발하여 어업인 및 협동조합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상이었다.

첫 세계수협인상은 지난 1992년부터 15년 간 ICA 수산위원장을 맡아 세계 수협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에무라 쇼지(植村正治) 전(前)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수상했다. 그는 상금으로 받은 1만달러 전액을 어업인교육 문화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수상의 의미를 높였다. 기념식에서 김항식 국무총리는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식량자원이 크게 부족한 오늘날 수산업은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원해 줄 생명산업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수협 간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우리 정부도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들



01



02

의 국제협력에 정책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등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냈다.

식후에는 찰스 굴드 ICA 사무총장과 박대원 KOICA 이사장의 초청강연이 이어졌다. 찰스 굴드 사무총장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서, 박대원 이사장은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지만 빈틈없는 철저한 준비로 성황리에 끝난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은 협동조합 간 지식 공유의 계기를 마련했고, ICA의 장점을 활용해 각국 수산 단체 간 협력과 공조관계를 강화하는 민간 외교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수협의 위상 강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기념식은 그 특성상 자칫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제와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지구온난화 등 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세계 수산에 닥칠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이 인류의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협이 힘을 모아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했다.

이에 수협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세계 수협인들의 자발적 협력 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기 위한 표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에 『한국 수협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ICA 등 국내외 기관에 배포했다. 우리나라 수협의 성공사례를 각 회원국과 단체에 전파하고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전 세계 수협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수협의 KSP』를 ICA 수산 위원회 회원단체에 지식공유 자료로 제공한 것이다.

이 책은 도시어촌교류, 안전조업지도, 어항방송, 상호금융, 공제사업, 면세유 제도, 수산물 위판제도, 수산물 가격지지, 신용사업, 영어자금 등 우리나라 수협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의 배경과 사업 실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찰스 굴드 ICA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보아온 협동조합 발전에 관한 가장 뛰어난

01

세계수협인상 시상

02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수상금 기부

03

김형식 국무총리에게 감사패 전달

04

한국 수협의 KSP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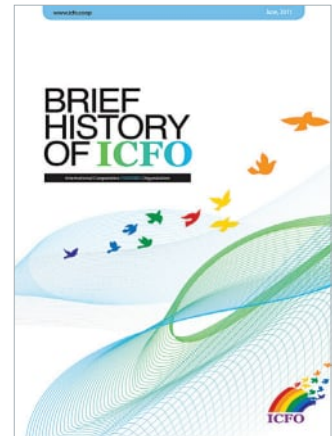
ICA 수산위원회 약사



03



04



05

책자 가운데 하나”라며 “전 세계 수산업을 위한 놀랄 만한 자원(tremendous re-sources)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2011년 11월 10일에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새로운 10년!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한국수협운동 관련 보고서와 로저 스피어 교수의 ‘21세기의 협동조합 도전’의 보고서, 그리고 ICA 서울선언 채택 기사를 묶어 재편집한 최정윤, 정만화, 로저 스피어 3인의 편저인 ‘한국수협운동의 역사와 성과 및 과제’라는 국영문판 소책자를 발간하여 ICA를 비롯해 국내외에 알렸다. 우리나라 수협의 성공사례를 각 회원국과 단체에 전파하고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전 세계 수협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공유 자료로 제공함과 아울러 한국 수협의 역사적인 성과를 세계에 알린 것이다.

●

기념식 이후 행사에 참여한 해외 수협 대표들은 6월 18일까지 우리나라 남해안 수산 거점 지역 중의 하나인 통영을 방문해 한국의 어촌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촌현장 시찰에는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해 쉰 칸 다오 베트남협동조합연합회장, 인도 어업인협동조합 프라카슈 마루트라오 로나 회장, 인도네시아 어업인협동조합연합회 위비소노 위요노 회장 등 아시아 각국 수협 대표이자 ICA 수산위원회 임원들이 나섰다. 대표단은 현지시찰을 통해 통영수협 위판장과 냉동·냉장공장, 기선권현망수협 위판장을 견학해 우리의 위판실태를 자세히 보고 자국의 수산물 유통과정과 비교하기도 했다. 또한, 통영해양생물자원연구 보존센터와 경남 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하여 양식장을 견학함으로써 우리 수산 기술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해외 수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견학은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서 ‘세계 수협의 날’ 행사는 물론 우리 수산 현장을 대내외 알림으로써 우리 수산의 참모습을 외국인 관계자들에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는 이번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과 어촌 현장 시찰이 우리 협동조합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수협 스스로의 위상과 함께 나아가서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현장 견학에 참여한 해외 수협대표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선진 수산 시스템에 아낌없는



01

시하는 등 협동조합 우수사례 전파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수협의 꾸준한 노력은 2011년 11월 18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ICA 총회에서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의 'ICA 로치테일 파이오니어 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 상은 1844년에 영국 랭커셔 지방에서 직조공 28명이 모여 설립한 로치테일 공정개혁자 조합을 기념하여 제정된 상으로 ICA가 매년 협동조합 운동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협동조합에게 수여한다. 2001년에 서울에서 열린 ICA 총회에서는 인도 낙농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한 '베르기스 쿠리엔'이 제1회 상을 수상한 이래 2011년까지 10개국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해왔다.

‘협동조합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큰 상을 한국의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이 아시아권 첫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것은 한국 수협의 노력과 달라진 위상을 세계가 공식 인정한 결과이며, 한국 수협이 이제는 세계 속의 수협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칭찬을 보내면서 깊은 감명과 함께 자신들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그밖에도 수협은 국제 협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서 베트남,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7개국에 수산 기자재와 정보화 기기를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국립부경대학교 수산과 학대학에서 한국 수협의 KSP(지식공유) 교육을 실

01

찰스 굴드 ICA 사무총장의 서신

02

세계 수협의 날 포토존



02

국무총리 축하 메시지

세계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세계 수협の日'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인류의 가장 오래된 식량공급처입니다.
특히, 식량자원이 크게 부족한 오늘날 수산업은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원해 줄 생명산업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억 명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고 유엔식량기구는 2030년
이면 세계인구의 3분의 2가 기아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수산업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수산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 바다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인류의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찰스 굴드 국제협동조합연맹 사무총장님과 이종구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각 국의 관계자 여러분이 뜻을 모아 세계
수협의 날을 제정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인들의 국제협력에 정책적 지
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계 수협의 날'이 국내외 수산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협력하여
수산업의 새 장을 열어 나가는 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 황 식

축 사

ICA 수산위원회와 한국의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협동
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3월 12일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전 세계인
들의 눈앞에서 발생한 쓰나미의 재앙으로 인한 슬픔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날 발생한 재앙으로 인하여 일본의 수산업이 황폐화
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일순간 생명을 앗아가는 자연의 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전 세계 ICA 가족을 대신하여 끔찍한 재
앙으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기념식은 전 세계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정에
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수산업이 급증하는 세계
인구의 필요를 채우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은 현재 조합원들이 안고 있는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더불어 미래를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이 "협동조합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라는 슬로
건으로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임을 아시리라 확신합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은 이러한 선언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세계 협동조합의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협동조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세계 협동조합의 해'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6일
ICA 사무총장 찰스 굴드

축사

존경하는 세계의 수협인,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수협과 IC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축하의 인사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 수협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신 이종구 수협중앙회장님께 아낌없는 축하와 성원을 보내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최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내외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수산업은 국가 경제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60여년 전 6·25라는 전란을 겪은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와 미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유례없는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기저에는 넓은 바다를 이용하는 수산인들의 노고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8년 수산물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8%를 차지하는 외화 가득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수협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협은 2009년부터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서 전세계 수산업과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계 수협의 날' 제정을 이끌어 낸 이종구 위원장님의 리더십은 세계 수협인들에게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중요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을 맞이하는 '세계 수협의 날'을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의 이상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각국 회원 상호간 우호를 증진하길 기대합니다. 더불어 과거 협동조합의 성과를 고찰하고 미래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는 새로운 발전방향도 논의되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전 세계 협동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계 수협인과 참석자 여러분!

저는 오늘이 세계 수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념식의 모토가 '미래 세계 수산을 위한 회원의 전문성과 경험 공유'라고 들었습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그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 창출의 원동력입니다. 특히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수산 자원 고갈 등 전 세계 수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혼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각국의 수협이 공동 번영이라는 공통의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각자가 보유한 경험적 가치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한국의 수협중앙회가 그 가교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준비된 두 개의 강연이 매우 기대됩니다. 전 세계 10억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ICA의 찰스 골드 사무총장님이 제시해 주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역할'은 세계 수협인들의 협력에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KOICA 박대원 이사장님의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향하여'는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된 최초의 사례인 우리나라가 각국과 발전 경험을 나누는 좋은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보답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계 수협의 날은 세계의 수산인들이 상호부조의 협력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농림수산물부도 수협과 함께 지속가능한 어업, 안전한 수산물 공급,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수산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식량 역군으로서 더욱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종구 수협중앙회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6일

농림수산물부 장관 서 규 용

기념사

몸소 협동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국내외 수산인 여러분,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코자 멀리 해외에서 방문해 주신 찰스 굴드 ICA 사무총장과 각국의 수협 대표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수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계신 최인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온 수산인들의 협동정신을 전 인류에 선포하고 그 정신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업은 거칠고 거대한 바다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맞설 동지가 필요했고, 그 전리품이 무주물인 관계로 공정한 분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어업인은 그렇게 몸소 부딪힌 삶을 통해 상부상조의 지혜를 터득하고 그 정신을 실천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산업협동조합이 조직된 것은 100여 년 전인 1908년의 일이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우리 조상들은 어부계, 어망계, 어업계, 해조계, 포패계 등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웃간의 품앗이에서 출발한 협동조직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그 영역을 전국으로, 더 나아가 이제 전 세계와 그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94개국 251개 회원단체를 통해 전 세계 10억 명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ICA 수산위원회는 1976년 농업위원회로부터 독립하여, 전 세계 수협 및 수산업 그리고 회원단체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 훈련, 조사연구, 상호협력에 전념하는 등 국제 수산 민간 기구로서의 이념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수협도 1979년 ICA 수산위원회에 가입한 이래, 30년 간 회원국으로서 그 정신을 성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는 ICA 수산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아 세계 수협과 수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ICA 수산위원회의 기본이념과 한국 수협의 값진 노력으로, 오늘 첫 회를 맞이하는 '세계 수협의 날'은, 지구온난화와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난제에 부딪혀, 바야흐로 운명공동체임을 절감하는 세계 수산업계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각국 수협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수산인

처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일찍이 협동조합 이론가인 톰슨은 '지식의 독점이 가장 큰 폐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국 속담에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세상살이에는 수확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해법공식이 없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선진기술과 전문성을,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를 서로에게 공개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 수산업이 더 빨리,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한국 수협은 솔선하여 그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를 『한국 수협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란 책자로 엮어 회원단체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 수협의 날 제정이 갖는 또 하나의 큰 의미는 세계 수산인의 사기 진작과 위상 제고입니다. 특히 이번엔 새로 지정된 '세계 수협인상'은 수상자의 수산업계 공적을 전 세계 수협인이 함께 축하한다는 점에서 더 없는 영광이 될 것 입니다. 또한 세계 수협의 날이 한해 두해 회를 거듭하고, 수협인상 수상자가 하나 둘 늘어날수록, 수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과 노고는 그 영광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선서하는 '세계 어업인을 위한 수협인의 행동강령'은 우리 수산인의 권익보호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협과 수협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ICA는 "협동조합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협동이아말로 밝은 미래를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세계 수협인 여러분!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앞장서, 오늘, 우리가 먼저 '세계 수협의 날'을 제정하게 됨을 수협인의 한 사람으로서, 세계 협동조합인의 한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계 수산의 새 역사를 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내외 수산인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6일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이 중 구

제4부

도약의 21세기

조직 혁신과 경쟁력 강화(2002~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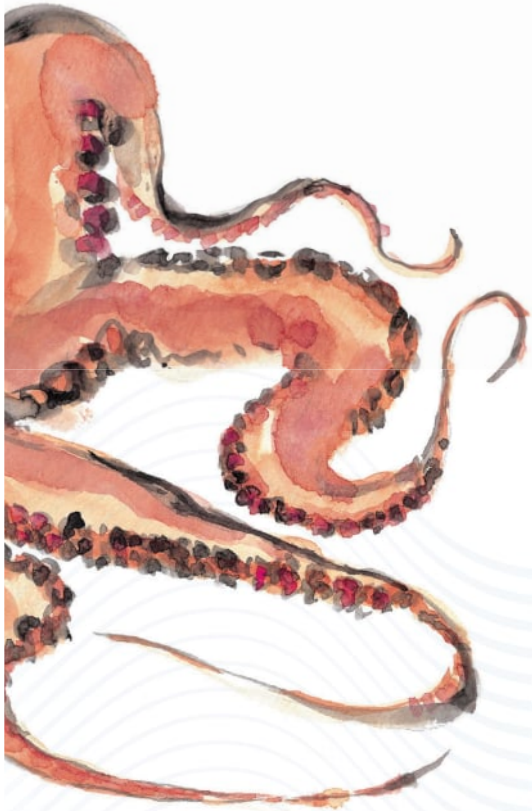
제1장

새로운 수협, 새로운 미래



제2장

'수산의 푸른 미래'를
창조하다



제3장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
-창립 반세기

도약의 미래를 열어가던 수협은 21세기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어업인 및 회원조합과 동반 성장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들어갔다. 2009년에는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국으로서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개최 및 KSP 교육 등 수협운동의 전 세계적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ICA 로치데일 파이오니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2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수협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최고의 협동조합이 된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한국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제장

새로운 수협, 새로운 미래

번호	산지	출하주	어종명	수량	낙찰	경매단가
16	적도	이영호2	(할)전어	80.0	98	6,000
16	적도	이영호2	(할)전어	250.0		유찰
17	장항	김영진	(할)전어	430.0		
18	적도	김영진	(할)전어	750.0		
19	적도	김영진	(할)전어	550.0		
20	적도	이영호2	(할)전어	430.0		
용량		잔량	전자	수량	결과	비고

어업인이 있고 수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수협은 최대한 많은 어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처럼 '어업인을 위한 진정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외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수많은 어업인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수협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경영정상화를 향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사진설명_ 노량진수산물시장 전자경매

났으며, 전국 어민대표들은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찾아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후 1989년 6월에는 전국수협조합장협의회 대표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인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만 돌아왔을 뿐 진심으로 어민들을 위한 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협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90년에도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1993년 5월에도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2001년 정부의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방침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노량진수산시장은 당시 수도권 수산물 유통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최대 수산물 유통기관이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격 형성과 중앙도매시장 기능을 수행하고, 수산물의 비축·판매 사업을 통해 주요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내 수산업계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는 노량진수산시장을 민간 기업에 매각해 수산업과 관계된 다양한 업무와 기능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했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인수에 남다른 의지를 불태웠던 수협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물론 무조건적인 찬성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업확장에 따른 부실증대 우려 및 정치권과의 마찰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협이 인

수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함에도 수협은 인수과정에서 한 발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공익법인의 성격이 짙은 수협의 인수참여가 정부의 ‘민영화’ 원칙에 상반되는 일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영화추진 공표 이후 많은 민간 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노량진수산시장에 큰 관심을 나타낸 이유는 “수산시장의 역할을 올바르게 살리고 발전시킨다”는 소명의식보다는 노량진수산시장이 위치하는 입지조건 자체에 있었다.

노량진은 수도권 전철을 포함해 다양한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었고, 특히 ‘금융의 메카’로 급부상한 여의도가 인접해 있었다. 토지용도변경 절차만 거치게 되면 1,900억 원이라는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금싸라기 땅’을 확보할 수 있어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했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은 바로 이런 매력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던 시장 종사자들은 수산시장의 기능 축소와 시장 폐쇄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추진 결의대회(1988년 11월 30일)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추진 서명운동(1989년 1월 18일)

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확고한 의지

»

우리 어업인과 수협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결코 부동산 투기 대상일 수 없었다. 30만 어업인과 우리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아름다운 소통 공간이어야 했다. 이러한 마음은 다행히

전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노량진수산물시장’을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업들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매각 조건에 “수산물 도매시장 기능을 유지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시켰고, 당초 매각공고 이후 입찰 참여가 예상됐던 대기업들이 불참하게 되었다. 시장 부지를 아파트 등으로 전용하는 일이 불가능해지자 수산물 유통만으로는 뚜렷한 수익을 내기가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의 불참은 ‘수산물 도매시장 고유 기능 유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매각 사업 진전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을 동시에 가져왔다. 2001년 5월 1차 공개입찰 실시 이후 4차 입찰에 이르기까지 입찰보증금 납부업체가 없어 유찰이 거듭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산물 시장 매각이 표류함에 따라 시장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어업인 전체의 실망과 우려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황을 주시하던 수협은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곧바로 각계의 의견과 시장 종사자들의 뜻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노량진수산물시장의 상징성을 되새기고, 사업성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수협은 이미 5개 회원조합이 공동출자하여 세운 부산공동어시장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지 수산물 유통질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경험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수산물시장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되살리고, 나아가 더욱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차석홍 회장 노량진수산물시장 방문(2001년 10월 24일)

수협중앙회가 주축이 되어 수차례 회의 끝에 2001년 8월 14일 내부적으로 노량진수산물시장 인수 방침을 결정했다. 그리고 같은 날 ‘전국수산업협동조합장 일동’ 명의의 ‘노량진수산물시장 인수 추진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하여 노량진수산물시장 인수와 향후 시장질서의 혁신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85년 역사의 노량진수산물시장, 수협의 품안으로

»

노량진수산물시장은 10차 입찰까지 유찰되는 등 인수에 난항을 겪은 끝에 2001년 10월 드디어 ‘수협’이라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수의계약에 단독으로 서류를 제출한 수협은 10월 23일 인수자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때 최종 낙찰가는 당초 예정가 1,900억 원보다 406억 원이 적은 1,494억 원이었다.

2002년 2월 1일, 제20대 차석홍 수협중앙회 회장과 박영일 경제사업대표이사, 전국 회원조합장 등 임직원 100여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물시장 매매 본계약 체결(2001년 12월 10일)



노량진수산물주식회사 헌판식(2002년 2월 1일)



위. 초창기의 노량진수산물시장(1971년), 아래. 노량진수산물시장 현재 전경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량진수산물시장 현판식을 가졌다. 이것은 수협이 새로운 ‘노량진시대’의 서막이었고, 그 막을 연 새 주인공이 바로 수협중앙회였다. 이로써 수협은 최대 수산물 시장을 경영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노량진이 서울과 인천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듯이, 2002년 수협으로 주인이 바뀐 노량진수산물시장은 대한민국 어업인과 수산물 소비자를 잇는 수산물 유통의 메카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된 것이다.

새로 태어난 수산물시장을 이끌어갈 경영진으로 2002년 1월 31일 김행만 전 한국냉장(주) 관리상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002년 2월, 수산물시장 인수는 단순히 수협의 사업 다각화 전략의 하나이거나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보호를 위한 순수한 열정과 도전을 바탕으로, 85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노량진수산물시장을 어업인의 협동조직인 수협이 지켜낸 것이다.

Story in History

일본의 식탁 초키지

일본 어시장은 에도 초기부터 시작되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에도 성 주방에 공급하고 남은 물고기를 니혼바시의 어시장에 팔기 시작한 것이 그 시초인데, 이 어시장이 칸토 대지진으로 파괴되고 현재는 발상지를 알리는 기념비만 남아있다. 그 후 1935년, 초키지(築地 : つきじ) 수산시장이 도쿄에 개설되었고 이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으로 남아있다.

23ha 면적의 초키지에는 매일 8개소의 도매업자와 약 1,000여 군데에서 구매 브로커들이 몰려든다. 외국인은 70명씩 두 팀만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2,167톤의 수산물과 1,170톤의 청과물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돈으로 환산하면 5,657억 엔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다.

시장은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장내시장은 주로 생선을 경매하는 도매시장이고 장외시장은 식재료와 조리 기구를 파는 소매시장이다. 신선도를 요하는 수산물을 취급하는 만큼 운영시간은 짧아 오전 5시에 문을 열고 오후 1시만 닫는다. 하지만 영업시간이 짧을 뿐, 시장은 쉬지 않고 돌아간다. 저녁 5시경부터 새벽까지 생선을 실은 트럭의 행렬이 이어지고, 장내의 도매업자들은 쉴 틈 없이 물건을 진열한다. 트럭의 행렬이 잦아드는 오전 3시가 되면 도매업자와 매매 참가자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오전 5시 10분 성계 경매를 시작으로 5시 30분에는 참치, 5시 40분에는 냉동 참치의 순으로 경매는 빠르게 진행된다.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는 참치경매에서 참치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답게 비로소 초키지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전 세계에 유통되는 참치의 70%를 소화한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 경매가 시작되면 전국 각지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들어온 상인들까지 일렬로 나열해 놓은 참치의 절단면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신선도와 영양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심혈을 기울이며 고르고 또 고르는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참치가 워낙 고가에 거래되는 탓에 잘못 고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 나오는 참치는 대략 200kg 정도가 주류를 이루는데 큼지막한 생선들이 길게 나열된 모습은 상당한 위압감을 풍긴다. 그에 반해 한쪽에는 꼬마 참치들이 나열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귀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한다. 사람 반, 참치 반으로 가득 찬 경매장에서 주인을 만난 참치는 장정 4명의 손에 의해 수레로 옮겨지는데, 이때 검사를 위해 잘라놓은 조그마한 한 조각도 꼭 챙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전 7시가 되면 중도매업자들이 마을의 생선가게와 요릿집에서 쓰기 편한 크기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한다. 오전 8시가 되면 생선가게와 요릿집 등 소매점의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들어 하루 중 가장 활기 넘치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78년 동안 바쁜 하루를 보내며 일본의 식탁을 책임지고 있는 초키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02

새로운 수협운동으로, 21세기를 도약의 미래로



신수협 운동을 통한 정체성 확보

»

노량진수산시장 인수를 통해 새로운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수협은 21세기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자체 혁신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수협중앙회장에 당선된 제20대 차석홍(車錫洪)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신수협운동'을 제창하고, 이 운동을 새로운 수협 창조의 슬로건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2001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조직의 큰 위기를 면할 순 있었으나, 이후 수협 임직원은 물론 전국 어업인들 모두의 사기가 저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수협운동은 경영악화로 1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 과거를 반성하고, 창립이념인 '어업인과 회원조합 본위의 경영 및 협동체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또한 경영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초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했으며, WTO의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하여 어업인 생산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업인의 생산증대, 회원조합의 역할 정립, 경제사업 지원 방안 수립,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신수협운동의 주요 골자로 삼았다. 나아가 오랜 노력을 거쳐 인수에 성공한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ABC운동'을 전개했다. ABC운동의 'ABC'는 '자각(Awareness)', '신념(Belief)', '행동(Conduct)'을 각각 의

미했다. 그리고 "먼저 스스로 깨닫고, 느낀 것을 신념화해 실천해 나간다"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신수협운동을 통해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환골탈태의 굳은 의지를 담았다.

2001년 7월 수협중앙회는 임직원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수협운동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쇄신을 향한 수협의 굳은 의지를 표방했다. 이어 팀당 2~3급 직원 10~15명씩으로 TFT를 구성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TFT는 수협경영혁신팀, 회원조합경영정상화팀, 어업인생산지원팀,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팀 등 기능별·과제별로 분류하여 운용했다. 이 가운데 기획관리부에 설치된 수협경영혁신팀은 변화와 개혁을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인력의 소수정예화, 인사의 유연성, 사업 활성화 등의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갔다.

조직의 변혁을 위한 의식의 변화

»

신수협운동 결의 후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경영정상화를 위해 뛰고 있었지만, 목표 수행 과정에는 어려움도 당연히 뒤따랐다. 특히 공적자금 투입 조건으로 실시된 독립사업부제는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이루려 했던 취지와 달리 사업부문 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하며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수협중앙회의 발목을 잡았다. 그동안



‘ABC 운동’ 선포식

부서별 사업계획을 종합해서 전체의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과 달리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서 계획을 세우게 됨에 따라 공통관리비 배분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계속 얽매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시점이었다. 다행히 각기 나뉜 사업부문에서 서로의 목소리만을 높였던 직원들도 수협중앙회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서로의 공존을 위해 점차 그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인내하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갔다. 우선 협동조합으로서 경영 내실화를 다지는 가운데 인사제도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순환보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했으며, 연공서열에 따른 온정적 인사 운용에서 탈피해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사람이 변하면 조직은 변하기 마련이었고, 처음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부문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서로의 견해를 좁혀 나가기 시작하자 조직은 점차 안정되어갔다.

한편, 신수협운동이 이전의 경영혁신운동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현장의 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한 것이었다. 그를 위해 그동안 어업정책의 소외지대였던 가거도를 비롯하여 동해 최북단 강원도의 저도어장(猪島漁場)과 서해 연평도 등을 방문했다. 회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어업인이 있고 수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자세로 최대한 많은 어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이처럼 ‘어업인을 위한 진정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외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수많은 어업인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수협의 신뢰회복과 더불어 경영정상화를 향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신용부문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졌는데 2001년 141억 원, 2002년 686억 원의 전례 없는 흑자를 달성한 것이다. 2000년 5,400여 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달성한 것이라 그 의미는 더욱 컸다. 물론 이러한 회복세는 경영구조 전면 개편, 임직원 급여 반납 등 모든 수협가족이 한마음으로 실천한 뼈와 살을 깎는 쇄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1세기 진정한 도약의 미래를 향해 더욱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중 FTA 수산업 대책위원회(2011년 12월 14일)

어민과 수산업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

»

2000년대 이후 WTO·FTA 등 대외통상환경 변화, 급속한 기후변화,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수협은 이러한 수요의 확대 및 시급성에 부응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문연구를 확대·수행해 왔다. 어업인과 수협에 실익이 되는 연구를 위해 WTO·FTA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의 강구, 수협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른 중점 연구과제로 2002년 ‘어업피해보상 판례 연구’, ‘수산물 농안기금 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수산물 관련 보험공제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2003년 ‘어업 재해대책 합리화 방안’, ‘바다마트 사업의 효율성 분석’, 2004년 ‘수산업인의 개념 도입 및 규모추계’, ‘한중FTA 관련 어업별 영향 및 대응방향’, ‘한일FTA협상 시나리오별 영향 평가 및 품목별 경쟁력 분석’, ‘수산물 임의상장제 도입 후 영향 분석’, 2005년 ‘수협 신용사업 부문 자본확충 방안’, ‘어촌관광 현황 및 활성화 방안’, ‘WTO/DDA 수산보조금 감축 대응 어업용 면세유 지원방안’, ‘수산정책금융의 활성화 방안’, 2006년 ‘남북한 수산협

력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어업인 신용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촌공동체 역할제고 방안’, 2007년 ‘수산업 어촌을 위한 새로운 활로’, ‘한-EU FTA 체결의 수산부문 영향 및 협상방안’, ‘상호금융의 리스크관리 지표 개발 및 효율화 방안’, ‘수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2008년 ‘한중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Ⅱ’, ‘어업용 면세유 수요 예측모형 연구’,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제도 개선방안’, ‘농수산 정책 비교를 통한 수산정책방향’, 2009년 ‘FTA 체결 전후 수산업 영향 분석’, ‘마을어장을 이용한 어촌소득증대방안’,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방안’, ‘회원조합의 리스크 중심 경영조직체계 정착방안’, 2010년 ‘어촌계 소득증대 방안’, ‘한중FTA 수산업 영향 및 대책’, ‘상호금융 영업점의 수익사업 다각화 방안’, ‘수도권 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에 이어 2011년 ‘어촌 복지증진 대책’, ‘어가부채 대책방안’, ‘수산물 브랜드 육성방안’ 등 지난 10년간 100여 편의 정기 연구과제를 수행·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수산동향보고, 이슈 포커스, 수시연구과제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를 시의 적절하게 수행하여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수협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제도의 도입

»

수산업이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에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식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지금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하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원양 어업에 있어선 초보나 다름없던 우리 선원들에게 여러 가지 노하우를 전수해줬다. 그러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느덧 그들의 기술을 앞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산업과 더불어 발전한 경제는 수산업에 종사하던 젊은이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수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 시작하며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다. 정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1993년부터 국내의 인력으로 대처가 불가능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산업기술을 전수하고 우리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취지가 값싼 노동력 확보로 변질되어 악용되는 사례가 생겨났고, 그들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 인력제도 개선대책'이 시행되었다. 외국 동포의 취업이 허용된 분야의 사업주는 임금 등 고용조건을 명시하고 1개월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면 외국 동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많은 개선을 가져왔다. 해양수산부 역시 그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어선 분야 외

국인 산업연수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년 12월 '어선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제정안'을 내놓았다. 또한 누구보다 수산업을 잘 이해하고 어업인을 보살필 수 있는 기관으로 수협중앙회를 지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연수추천단체 및 모집기관의 역할을 부여했다. 그 역할은 산업연수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수사업 전담부서, 연수사업운영협의회, 중재위원회 및 상담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선원 조업 장면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3년 들어 외국인선원 산업기술 연수생 도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중국 요령성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등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들과 '송출회사 국내 연락사무소 대표자 간담회'를 갖고, 송입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수협중앙회 선원관리팀 인원을 확충하는 등



우수 외국인선원 한국문화 체험

지속적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 또, 이 사업이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어업인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연수생 도입을 더욱 지속적으로 확대해 갔으며, 송출회사별 사후관리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하면서 인원 조정을 통해 우수 송출회사에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하고자 했다.

이런 가운데 2003년에는 선원 인력뿐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수산물 양식업계에 이르기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였다. 노동 환경이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은 해상가두리 등 수산물 양식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멸치잡이 어선 등 이른바 '잡는 어업'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었지만,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의 반대로 어류양식, 굴 및 멍게 양식 등 '기르는 어업'에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채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어촌의 어업노동력이 고령화돼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젊은 층의 수산업 취업 기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

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식업계 등 다양한 수산 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에 나선 것이다. 이후에도 국내 어업분야의 구인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05년 10월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대상 업종에 연안통발어업 등 6개 업종을 추가하여 시행했다. 1996년부터 처음 도입된 수산 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는 그동안 외국인 관리 측면 등을 감안해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12개 근해어업 분야에 한정해 허용해 왔으나, 소형어선인 연안어업 분야에도 인력구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6개 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2007년은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에 따라 어업분야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걸친 외국 인력 제도의 변화가 시작된 해였다.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어업분야의 경우에는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업의 '고용허가제도'와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선원원제도'로 이원화되었다.

20톤 미만 어선 및 양식업종의 '고용허가제도'에서는 2007년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11년 말까지 총 5,493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였으며, 국토해양부의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선원제도를 통해서 2011년 말까지 총 1만 2,079명의 외국인선원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2011년도부터는 전산시스템인 '외국인선원 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외국인선원의 도입기간이 기존 60일에서 최소 20일 이상 단축되는 등 외국인선원의 적



외국인선원 방한복 지원행사(2008년 12월 18일)



외국인선원 고향방문 지원행사(2011년 11월 29일)

기 도입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 외에도 애로상담 센터 운영, 우수 외국인선원 한국문화 체험 및 고향방문 지원 행사, 장기근무 외국인선원에 대한 방한복 지원, 조업 중 사고자와 사망자에 대한 위문품 및 위로금 지급 등 외국인선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조세 감면제도 유지를 위한 노력

»

국제화라는 이름 아래 1988년 10월을 기준으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선진국 그룹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모든 상품에 대한 시장 전면적 개방이 이뤄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 수산물 역시 이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이러한 개방 압력이 본격화되어 수입 수산물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촌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어촌사회는 자원 고갈, 국제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장 축소,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 갈수록 어업경영에 대한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매립·간척사업 등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상실되고 공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해마다 찾아드는 적조 현상까지 겹쳐 수산업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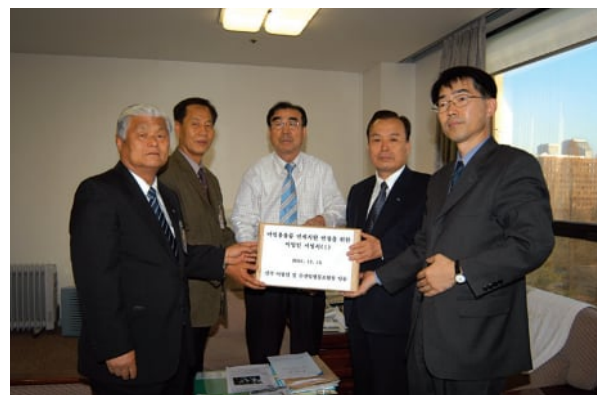
이 같은 상황에서 수협은 국민 식량산업이자 수산물 생산의 원천이 되는 수산업의 존립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수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업용 유류세 감면과 수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각종 조세의 면세제도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을 단행하게 되었다.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과세유로 전환될 경우, 공급단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경제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국내 수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국민 식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산업은 단순히 생산성과 같은 경제논리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처럼 별도로 보호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어업용 유류에 대한 전액면세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먼저 2004년에는 어업용 유류의 면세기한 연장을 위해 전국 95개 회원조합장의 청원서와 전국 7만 800여 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 어업인들의 결집된 의지를 표명하였다. 여기에 어업용 유류 면세기한 연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호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2년간 면세기한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2년 단위로 면세기한을 이어가도록 했다. 2005년에는 양식사료, 어군탐지기, 선박용 무선전화기,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의 선외 내연기관 등 연근해 어업용 기자재 및 어업인이 직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 등 총 38개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 및 면세 혜택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어업인에 대한 각종 관련 조세 감면제도를 존치시키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갔다.



어업용 유류 면세기한 연장을 위한 어업인 서명서 전달(2004년 12월 16일)

어업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구제에 나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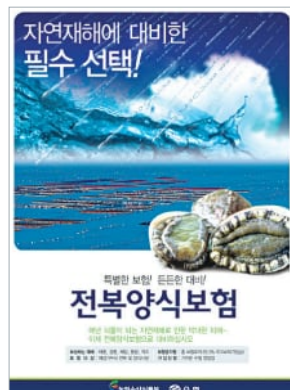
2003년 3월 19일에 제정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법률 제6866호)은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 발생 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추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선 소유자의 어업활동과 경영



어선원·어선보험



수산인안전공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안정을 확보하는 등 어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은 국가가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험가입자 관리,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협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노력은 이미 1958년부터 시작한 선원공제보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어업인 지원제도의 발전이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에 따라 수협이 재해보상보험 수탁시행기관으로서 어선원들에게 충분한 재해보상과 함께 어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는 어선원보험을 취급했다. 또 어선 사고 시 신속한 재해 복구를 통해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어선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 증가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이 계속되고 재난지원금으로는 실질적인 재해복구가 불가능함에 따라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법률 제8790호)이 제정되고 2009년 3월 5일 농작물재해보험법과 통합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제9477호)이 제정되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어가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하여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수협중앙회는 2008년 7월 넙치양식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2010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굴·김, 2012년 참돔·돌

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볼락으로 양식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수협은 보험료의 국고보조를 제고 노력, 새로운 어업인 보호 장치 도입 등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세상과의 아름다운 소통, 수협의 '사랑해' 운동

》

수협은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상황과 높아진 사회의식 수준에 부응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3년 6월 2일에는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 확산 및 홍보,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협과 소비자단체, 학계 인사들이 모여 바다먹거리사랑협회를 설립했다. 수협중앙회 잠실청사에 사무실을 둔 바다먹거리사랑협회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우리 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자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본격적인 활동은 8월부터 전개됐다.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과 적조로 인해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했다. 바로 국산 활어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국민 운동인 '100만인 생선초밥 먹기 운동'을 펼친 것이다. 이 운동은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한 국산 활어의 소비를 늘려 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100만인 생선초밥 먹기 운동



'사랑海 헌혈' 행사

었다. 또한 9월에는 수협중앙회에 '초밥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개설, 수산물에 대한 지식과 요리법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인터넷을 통한 국산 수산물 홍보 및 판촉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값싼 외국 수산물이 국내 활어시장을 장악하면서 초유의 불황을 맞고 있는 수산업계의 시름을 덜어주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수협의 의지는 비단 어업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2003년부터 매년 1~2회씩 정기적으로 '사랑海 헌혈' 행사를 실시하기 시작

했다. 이 행사에는 수협의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참여했으며, 이들이 기증한 헌혈증서는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되어 소아암 및 백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새 생명을 돕는 데 쓰였다.

또 '사랑海 동전 모으기'를 통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한편, 직원 하나하나가 1년에 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One To One 운동'을 전개했으며, 전국에 16개 해우리봉사단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사회 공헌단체인 '아름다운가게'에 물품을 기증하고 공동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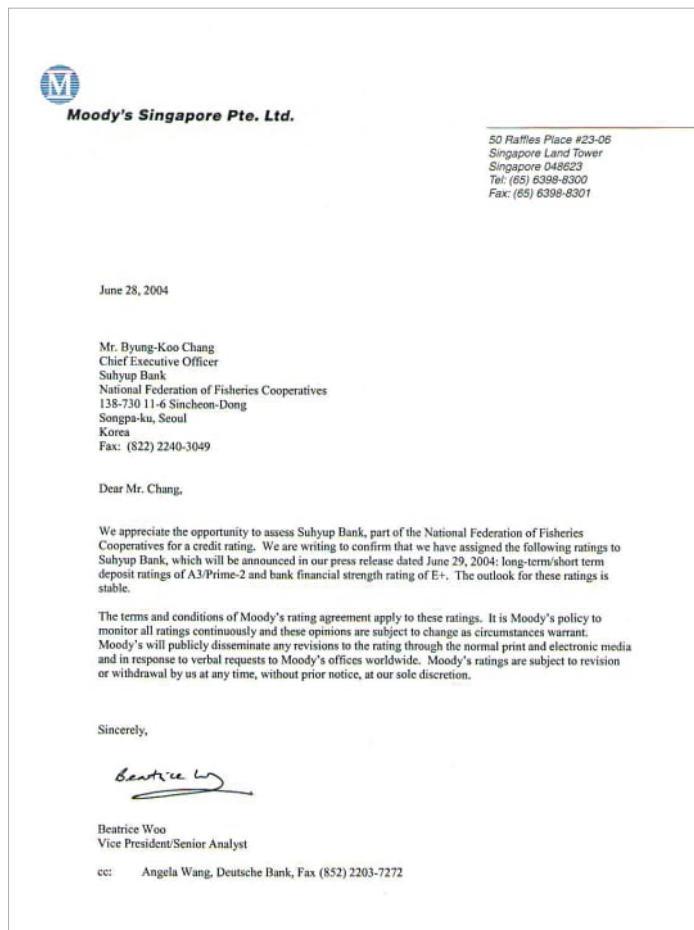


'사랑海 푸른산타봉사단' 발대식

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사랑해 푸른산타봉사단은 '사랑해캠페인'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랑해캠페인'은 전국을 15개 광역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 영업점별로 해당 지역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 불우이웃시설 한 곳을 선정, '사랑해후견인'으로 1년 동안 후원하는 제도이다. 매년 실시한 이웃사랑 실천 '사랑해캠페인'은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임직원 윤리의식을 높이고, '사회에서 믿음을 주는 공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캠페인의 온기를 전국 곳곳으로 전하기 위해 푸른산타봉사단은 넓고 푸른 바다색을 가슴에 담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다.

세계가 인정하는 무디스 'A3' 획득

»



무디스가 발행한 수협은행 A3 신용등급 인증서



무디스 A3 신용등급 획득 플랜카드

수협중앙회는 2004년 6월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로부터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A3'를 획득했다. 무디스(Moody's)사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경영실적과 함께 해양수산정책 대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기 평가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S&P로부터는 'BBB+(S)'를 획득하였고, 같은 해 11월 3

일에는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인 한국신용정보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국내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

이는 당시 다수의 타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던 수협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그 의미는 더 없이 소중한 것이었다.

2005년 5월 31일 제10회 '바다의 날'에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도 얻었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에 대한 평가였다.

이렇듯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수협에 희망을 걸어온 수많은 어업인들과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협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21세기를 열어 수협은 위기를 벗어나 진정한 도약의 길에 섰다. 수협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연 도약의 기회였기에, 새로운 21세기를 여는 새로운 수협의 길은 더욱 당당한 대로(大路)였다.

Story in History

바다에 가발을 씌우자

산과 들에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있는 것처럼 바다에도 해조류를 심는 날이 생긴다. 바로 '바다식목일'이다.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국민적 관심 속에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조류를 심는 날이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다. 사람들이 육지의 하는 일에 정신이 팔린 동안, 우리의 바다는 갯녹음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갯녹음이란, 연안 암반 지역에 서식하던 다양한 종류의 해조류가 사라지는 대신 무절석회 조류가 번성해 암반이 흰색으로 뒤덮이는 현상으로, 흔히 백화현상이라고 부른다. 일단 갯녹음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은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린다. 바다가 사막처럼 황량해지는 것이다.

미국에선 이미 캘리포니아주 연안 1,500km 일대의 바다에서 켈프(kelp) 해조 숲이 붕괴된 일이 있었다. 또한, 미국 메인주에선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 만과 뉴펀들랜드에 이르는 200km의 광대한 연안 갯녹음이 발생하여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갯녹음의 위협에서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제주도과 동해안을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늘고 있는 시점이기때문에 갯녹음 현상은 매우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바다녹화운동을 선도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현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바다 황폐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바다 숲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육지에 나무를 심는 식목일은 미국 네브래스카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식목일의 제정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한편, 나 한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 지구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지구환경보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946년 재생산되는 자원을 초과 벌목한 탓에 황폐해지는 산림을 되살리고자 식목일을 지정했다. 이와 같은 식목일의 아름다운 선례가 바다로까지 이어진다면, 우리의 바다가 푸르른 녹지를 되찾을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던 시절에는, 식목일처럼 나무를 심는 날이 따로 제정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먼 미래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바다 나들이'를 가서 해조류를 심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 가발을 쓰면 한층 멋져 보이고, 쓴 사람도 자신감을 갖게 된다. 우리의 바다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꾸기 위한 '바다식목일' 제정을 통해, 미래에는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제2장

‘수산의 푸른 미래’를 창조하다

Fresh Fish, Fresh Bank

‘수산의 푸른 미래’를 향하여

2004년 9월 8일 수협중앙회는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새로이 수립된 비전은 수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수산인 삶의 질 향상’,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협의 조화로운 발전’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라고 설정하였다.

수협이 푸른 미래 창조를 위한 비전 선포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

»

2004년 9월 8일 수협중앙회는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공유하고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2002년 12월 중장기계획 수립 시 설정된 기존 수협 비전은 당시 어려웠던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의 성격이 강하였다. 공적자금 투입 당시의 상황에서는 적합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에서는 조직의 장기적 지향점을 제시하는 데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새로이 수립된 비전은 수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수산인 삶의 질 향상’, ‘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협의 조화로운 발전’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라고 설정하였다.

우선 ‘수산’이란 표현은 수산인, 수산업 및 수협을 총괄

하여 아우르며, ‘푸른 미래’는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수협이 바다처럼 맑고 푸르게 미래의 희망과 번영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특히 ‘수산인’이란 표현은 어업인을 포함하여 수산물가공업자, 수산물유통업자 등 수산업과 관련하여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동안 수협이 주로 ‘어업인’에게만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던 축소지향의 틀을 벗어나서 수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수산계의 강력한 힘을 확보해 나가자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운동 실천으로 수산업 가치 증대’, ‘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협동조합’, ‘일류 해양수산 은행’을 중점 추진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협동운동 실천으로 수산업 가치 증대’라는 목표의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화합과 협동의 공동체 정신 함양’, ‘수산인 복지증진 및 밀착지원 기반조성’ 그리고 ‘지속적 경영혁신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실현’을 정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을 선도하는 협동조합’의 추진전략으로는 ‘일관된 도매물류시스템 구축’, ‘고품질의 수산물 유통’, ‘수산물 최고 브랜드 파워 확보’를, ‘일류 해양수산 은행’의 추진전략으로는 ‘선진 수산금융 구현’, ‘해양금융 동북아 리더’, ‘경쟁력 있는 금융기반 확보’를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 ‘Fresh Fish, Fresh Bank’라는 영문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수협이 신선한 수산물을 유통·공급하며, 건전하고 깨끗한 은행을 추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 비전 선포



구하는 조직임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비전 선포식 이후 수협 비전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가 곧바로 진행되었다. 피나는 노력을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고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수립한 비전이 단순한 이론적·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 수협인들의 업무와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일상처럼 받아들여져야 했기 때문이다.

수협은 포스터, 액자, 수첩 등을 통해 전사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수협별로 상이한 디자인을 사용하던 명함도 비전을 반영한 표준안을 제작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고 고객들에게도 수협의 비전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또한 연수원 과정에 비전교육을 신규 편성하여 직원들에게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 지위 향상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수협은행, '동북아 최고의 해양수산은행'을 향해

»

수협은행은 비전 선포와 혁신과제 수립 후 2005년 1월 'OK ACE 0506' 선포식을 갖고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업은행으로서의 전략적 특화를 선언했다.

'OK'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도전정신과 더불어 당시 21세기 해양강국을 향한 정부의 'OK(Ocean Korea) 21'과 연계한 해양금융진출로 동북아 해양금융리더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또한 'ACE'는 임직원 모두가 현재의 경영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선진적 수산업 금융 구현(Advanced), 지속적 상업금융 강화(Consistent), 효율적 경영혁신 추진(Efficient)의 주체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ACE)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0506'은 경영혁신운동 추진기간인 2005년에서 2006년까지를 의미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은 '해양금융부문 동북아지역 Leader 지향', '수산업을 선도하는 선진 수산업 금융 구현', '비전 달성을 위한 상업금융역량 강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혁신을 통한 조직체질 개선' 이상의 4가지를 추진방향으로 잡았다.

또한 세부추진사항으로 부서장과 영업본부장을 대상으로 '책임경영계약제(MOU체결)'를 맺고 역량강화와 함께 경영관리시스템을 솔선수범하여 책임을 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전 부서에도 경영목표 달성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5년과 2006년의 슬로건 'OK ACE 0506' 및 2007년과 2008년의 'BLUE I 0708' 등 수협의 의지를 담은 슬로건은 이후 매년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차별화하면서 더욱 강조해 나갔다. 이러한 경영혁신 방침을 통해 수협은 매년 순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여, 2007년 말 결산 결과 총자산 17조 8,715억 원, 총수신 10조 6,490억 원, 총여신 12조 8,456억 원으로 세전 당기순이익 1,332억 원을 달성하였다. 창립 이래 최대의 이익을 실현한 것이 2007년이었다.

이런 당당한 걸음은 수협 신용사업이 정부의 해양 비전을 실행하는 금융파트너로서 2004년부터 수협은행이라고 하는 해양 부문 전담은행으로 재탄생하여 성장·발전해 온 결과였다. 이 같은 비전과 혁신 과제, 혁신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가시적 성과로 드러난 것은 향후 무한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이기도 했다.



'OK ACE 0506' 선포식

경영혁신 운동의 본격화



새롭게 도약하는 수협

»

새로운 비전 및 혁신 과제 설정과 실천에 주력하며 각 부문별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던 2007년, 수협의 도약을 이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7년 1월 25일에 실시된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 아래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바로 제22대 이종구(李鍾九) 수협중앙회장이 취임하였다.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경남 진해 출신으로 일선 어촌계장을 거쳐 진해시수협 5선 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누구보다 수산업 현장을 잘 알고, 수협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인물이라는 평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수협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주위의 기대를 모았다.

특히 일선 조합 관계자들은 수협이 주체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의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신임 회장 취임을 계기로 수협중앙회는 자율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확고한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이 2007년 7월에 발표한 '수협 발전 5개년 계획'이었다. 2007년 7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수협연수원에서 임원과 각 부서장, 팀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협 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2008년도 사업계획의 전략적 시행을 위한 경영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를 통해 중점 추진전략과 부서별 주요 사업전략 등을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성과관리체제를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추진과제에 있어 경영관리·지도·상호금융·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 관리 아래 진행된 제22대 회장 선거



제22대 이종구 회장 취임식



'수협 발전 5개년 계획' 발표

보험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추진하였다. 경영관리부문은 사업별 책임경영체제 강화 및 임직원 의식개혁 등을 과제로 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도부문에서는 정체성 회복을 위한 협동운동 기능 강화, 회원조합 건전경영지원 역량 강화, 조사·연구기능의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 상호금융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및 차별화된 전략수립을 통한 자립경영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공제보험에서는 마케팅 강화 및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수익성 제고를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수협 발전 5개년 계획'의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2011년 상호금융 및 공제보험 실적은 100%를 모두 상회하였다. 특히 상호금융 당기순이익은 목표대비 206%의 뛰어난 실적달성률을 보였으며 공제보험의 공제료 실적 또한 목표대비 171%의 실적을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BSC(Balance Score Card : 균형성과평가제도) 정착화를 통해 전략적 성과평가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재무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였다. 한편 인력풀 제도 등을 통해 인사제도를 개선하였고 수협 홍보를 위한 UCC 제작 및 광고매체 활용을 통한 수협 이미지 홍보활동을 강화하였다. 지도부문에서는 미래 어촌사회를 이끌 어업인 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어업인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였다. 도시·어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어촌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촌사랑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회원조합 경영컨설팅 운영을 통해 건전경영을 지원하는 등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수협의 대응

»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도미노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수산업 부문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대회

천문화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결국 부도를 피하지 못했고, 그 결과로 전 세계는 대규모 경기침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금융위기는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고, 수협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더욱이 유가상승,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협은 어업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고, 국가적 차원의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2008년 11월 전국 회원조합장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업 부문 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날 대회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회원조합장과 전 임직원은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수협인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직원 보수 및 정원동결, 운영비 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수산업 분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약운동 실시, 건전한 생활인으로 어업인과 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자세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사항들을 결의했다.

수산업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협은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단행해야 했던 것이다.

업무 시스템의 선진화와 사업 확장



여신종합관리시스템과 전산 재해복구센터 구축

»

대한민국 금융산업 패러다임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협중앙회는 금융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진 전산시스템 구축을 주요 중점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12월 6일 공식 오픈한 여신종합관리시스템이었다. 2003년 8월부터 총 16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구축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원, 연인원 670명이 투입되었고, 삼성SDS와 아이비케이텍(IB-KTECH), 제일FDS,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이 개발에 함께 참여하였다.



여신종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보고회



재해복구센터 개통식

시스템을 통해 은행업무의 여신일반, 담보관리, 사후관리 등 여신종합관리 업무를 비롯해 신용평가시스템 및 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동시 운영이 가능해졌다. 여신업무의 체계적·유기적 관리가 가능해졌고, 각 관련 부서 및 영업점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특히 정밀한 신용 분석을 통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신용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 신 BIS제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방향에 대한 효과적 대처 등의 성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6년 5월 10일에는 용인에 위치한 현대정보기술 데이터센터 내에 전산 재해복구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개통식을 가졌다. 같은 해 2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이 사업은 계정계(core banking), 인터넷 뱅킹, 대외접속시스템 등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신속한 복구체계를 수립하고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경제

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

최고 수준의 경영실적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선진 수산 해양금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수협은 재해복구센터의 성공적인 개통으로 수협은행의 대외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최고의 IT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이에 앞서 2002년 9월에는 고객 증가로 인한 대량 트랜잭션 처리를 위해 시스템 용량 확장과 함께 고품질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구축된 차세대온라인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영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개통 후 끊임없는 관리와 노력으로 유지되어왔던 전산 무장애(無障礙) 기록이 2003년 12월 1일 하드웨어 장애 발생으로 435일 만에 깨지고 말았다. 이후 수협중앙회는 전사적이고 적극적인 시스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철저한 온라인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방화벽 구축, 회선 백업망(Back-up網) 확보 등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2년 2월 17일, 수협 역사뿐만 아니라 은행전산계통 상에서도 전무후무한 '무장애 기록 3,000일'이라는 대 기록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투명경영의 기반, 종합감사정보시스템 가동

»

2007년 9월 12일에는 종합감사정보시스템(AIS; Audit Intelligence System)을 구축하여 감사업무 효율화와 선진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2006년 10월부터 추진한 종합감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및 위규행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주목표로 진행되었다.

종합감사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해 상시감시 대상이 수협 은행 영업점에서 본부 부서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단순

합계 방식의 영업점 리스크 분석이 개인위험, 영업점위험, 거래위험항목 등을 포함하는 종합지수모형 분석으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수협중앙회의 모든 본부부서 및 지사무소에서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점감사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등 동 시스템 구축 이후 모든 감사업무는 전산으로 관리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상시감사, 자점(自店)감사, 임점(臨店)감사, 감사기획, 일상감사, 영업점 리스크 분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대내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조합 종합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 시스템은 감사업무 전 과정의 시스템화, 조합별 리스크 분석을 통한 계량적 정보 활용, 사고성 자금흐름 추적 정보기능 강화 등 회원조합 영업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회원조합에서도 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으로 감사기획, 상시감사, 자점감사, 사후관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감사실과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효율적인 조합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회원조합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강화돼 금융사고 예방과 자체 리스크 관리 기능이 향상되는 한편, 조합의 투명경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상 첫 외화채권 발행

»

수협은행은 2007년 4월 18일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외화채권(FRN) 3억 달러에 대한 투자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영국 런던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외화채권의 표면금리는 3개월 LIBOR 0.25%로 결정됐으며, 이 채권 발행을 위해 같은 해 4월 12일부터 싱가포르, 홍콩, 런던에서 주요 투자자와 개별면담 및 그룹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 지역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37개 기관이 외화채권 발행예정 금액의 1.5배에 가까운



외화채권 발행

4억 4,000만 달러의 투자주문을 받는 등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외화채권 발행은 국제적으로 수협은행의 신용과 신뢰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등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양투자금융에 대한 해외펀딩 업무 가능성도 활짝 열게 된 새로운 촉진제가 되었다.

수협은행의 업무 고도화와 상호금융의 성장 가속화

»

공적자금 투입 원년인 2001년부터 수협은행은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New Start 180운동’을 시작으로 다음해인 2002년에는 ‘Jump 2&2 운동’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경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경영여건에 낙담하거나 주저앉았던 직원들도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발로 뛰고 경영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전사적으로 참여하여 매년 영업력을 증대시키고 수협은행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며 경영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협은행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런 전사적인 움직임과 함께 내부적으로도 상품, 경제 전망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발적인 학습공동체 모임들이 하나씩 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학습공동체 모임은 정기적으로 모여 핵심지식을 전파하고 공유하는 교육활동과 더



Jump 2&2 운동(2002년)



DASH-3M 운동(2003년)



NICE 2004(2004년)



BLUE I 0708 운동(2007~2008년)

» 경영혁신운동 슬로건 및 목적

슬로건	추진기간	추진목적
New Start 180	2001.04-09	• 부실은행에서 탈피, 우량은행으로 거듭남을 대내외에 천명, 침체된 직원 사기진작 및 단결유도
Jump 2&2	2002.01~11	• 영업기반 확대와 수익성 배가(2&2)로 경영내실화 도모
DASH - 3M	2003.01~11	• 의욕적인 영업마케팅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 및 이익극대화(Maximum Profit) • 불요불급한 비용감축 및 예방적 채권관리 강화로 비용최소화(Minimum Cost) • 임직원 마인드 혁신으로 생산적인 조직문화 구축(Mind Innovation) » DASH : Do Ace SuHyup
NICE 2004	2004.01~11	• 장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중심 경영체제 구축 •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 및 은행 체질개선을 통한 조직역량을 극대화 • 임직원 윤리의식제고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한 윤리경영 실천 » New Innovation, Challenge, Ethics
OK ACE 0506	2005.01~2006.11	• OK(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강한 도전정신과 • ACE는 선진적 수산금융 구현(Advanced), 지속적 상업금융 강화(Consistent), 효율적 경영혁신 추진(Efficient)주체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ACE)가 되어야 함을 상징
BLUE I 0708	2007.01~2008.11	• 일류 해양수산은행 비전달성을 위해 개척해야 할 BLUE Ocean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내(이)부터의 Innovation(혁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차별화된 수협은행만의 경영혁신을 의미
WIN START 2009	2009.04~11	• 새로운 CEO체제 출범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어 일류해양수산은행으로 성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
跳躍 2010,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2010.01~11	• 2010년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향후 조직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문에 특화된 상업은행으로의 도약과 성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는 한해가 되자는 의미

불어 학계, 타은행 PB 강사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이러한 자체적인 연구모임은 그 당시 시장이 은행권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는 환경에서 올바른 금융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과 각기 다른 지점에서 떨어져 일하던 직원들을 수협은행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데 일조하며 수협은행 경영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6년 10월부터는 어업별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어업인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위해 약 8개월에 걸쳐 '어업인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2007년 7월 16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어업인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신용평가모형이 만들어짐에 따라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과 유용성이 높아져 부실여신을 줄이는 동시에 신용도가 우수한 어업인에 대해서 더 많은 수산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은 어업인을 일반고객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했었다. 결과적으로 재무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대부분의 영세 어업인들은 재무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다.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단행해 온 수협은 영세한 우리 어업인을 위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방안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다. 수산금융부, 상호금융부, 회원조합, 한국신용평가정보, 부경대학교가 모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회원조합 방문 인터뷰, 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해 회원조합 여신담당자들이 제시한 어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연안

어업, 근해어업, 어류양식어업, 패조류양식어업, 기타 어업과 양식업으로 구분한 총 6개의 전문가모형을 신규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어업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모형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어업인과 일반고객의 평가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존 신용평가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수협은행의 이런 노력과 함께 상호금융사업에 있어서도 예금 12조 원, 대출 8조 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2009년 12월 11일 이 같은 실적을 달성한 상호금융 예금은 10조 원을 달성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안에 12조 원을 달성함으로써 2조 원 이상을 순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이는 상호금융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예금 성장률이었다. 대출금 역시 전년 대비 8,000억 원이 증가된 8조 원의 실적을 올려 향후 상호금융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상호금융사업이 이처럼 급성장을 이룬 것은 2009년 초부터 비과세예금 증대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전 임직원이 시장점유율 확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한 결과였다. 또한 저원가성예금 증대 캠페인, 사업자전용(事業者專用)

여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기존 거래고객의 이탈 방지는 물론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마케팅 활동을 펼친 것도 주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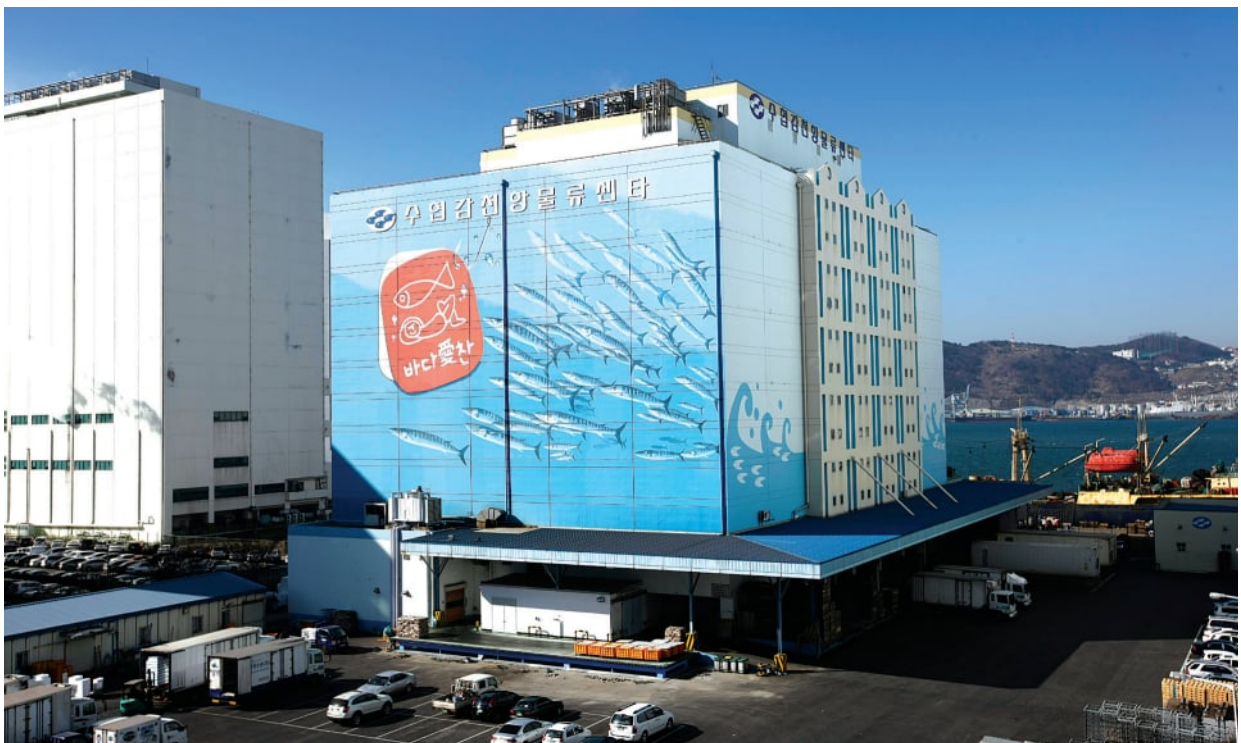
수산물 제품 안전성과 품질 향상 노력

»

2002년 12월 16일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수협중앙회는 기존보다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히 2008년 1월 15일, 첨단 위생설비와 자동화 라인을 갖춘 '수협감천항물류센터 가공공장'이 준공되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감천항물류센터 가공공장은 수산물 식품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06년 초부터 2년 동안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한 것으로, 2,145㎡ 부지에 첨단 위생설비와 4개의 자동화 가공라인을 갖췄으며, 원형 수산



감천항물류센터

물 투입기준 연간 6만 3,000톤의 수산가공품 생산능력을 보유했다.

한편,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이 시작되면서 이에 따른 물량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도 급식 수산물 가공물류센터 설치 검토를 시작하게 되었고, 면밀한 선정 작업 끝에 인천공판장 유희부지와 기존 냉동창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착공을 시작으로 2011년 4월 15일에 인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협 수산물 가공물류센터의 준공식이 거행됐다. 이로써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학교와 군부대 등 대형 급식시설의 수산물 공급이 한층 원활해지게 되었다.



인천가공물류센터 준공(2011년 4월 15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2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지상 3층, 총면적 1만 1,960㎡ 규모로서, 1일 40톤, 연간 1만 톤의 수산물 가공처리 능력을 갖췄다.

특히 원료 입고 시 인력을 대신해 로봇이 원료를 적재하는 파렛타이저 시스템, 위생적으로 건립된 해동실에서 품질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가온가습 해동시스템, 이 물질을 선별할 수 있는 풍력이물선별기 등 최첨단 자동화 가공 라인을 갖춘 것을 특징점으로 하였다. 여기에 중금속이나 잔류동물용 의약품,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DNA 검사 장비를 갖춘 자체 검사실이 설치되어 보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200여 명의 생산직원과 50여 명의 사무인력 등 250여 명의 인력을 새로 채용하게 되어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양식어가 소득증대 기여-수협사료 설립

»

2005년 3월에는 경남 의령군 소재의 (주)수협사료가 친환경 EP사료(열처리건조가공 배합사료) 생산 설비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넙치(광어)를 비롯해 조피볼락(우럭)·숭어·새우 등 어종별 전용 사료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어업인들은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까지 생사료 소비에 의존해 온 양식 급이(給餌) 시스템을 바꾸면서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주)수협사료는 지난 1997년 설립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양식 어업인들에게 품질이 우수하고 민간업체 공급가보다 더 저렴한 사료를 제공하고자 양식어업인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제주어류양식수협 및 양만수협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다.

최소 20% 이상 가격이 저렴한 친환경 EP사료의 양식어가 공급은 국내 어류사료시장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 결과 안정적인 양어사료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식어가의 소득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수협사료 공장

또한 이와 같은 양어용 배합사료의 제조·판매뿐만 아니라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 양식사료연구센터 및 양어사료 전문대학과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식어가에 더 나은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



수협의 수산물 대표 브랜드 '바다애탄'

‘바다애탄’의 해외 진출과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도전

»

‘바다애탄’이 국산 수산물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되면서 2007년 수협은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시장분석을 통해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을 최우선 공략지역으로 선정하고, 미국 슈퍼마켓 체인 H-MART와 ‘바다애탄’ 건어류를 공급하기로 했다. 2007년 1월 24일, 울릉도 건오징어와 멸치 등 12개 품목 12만 4,000달러 상당의 수출물량을 선적했다. H-MART는 미국 전역에 30여 개 대형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인 슈퍼마켓 체인으로, 이때 처음 공급된 ‘바다애탄’ 제품은 통관 및 배송, 물류 과정을 거쳐 3월 초부터 미국 소비자에게 본격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후 ‘바다애탄’ 상품이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호주, 중국, 유럽 서남부 스페인까지 수출 영역을 확대하며 2011년 들어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런 성과는 현지 시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포장지를 개선하는 한편 계획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여기에 2009년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미국 한인신문과 방송 등에 홍보를 하고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시식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끊임없이 알린 노력도 뒷받침되었다. “품질에 있어서는 어떤 수산물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맛에 있어서도 ‘직접 맛을 본 소비자들은 반드시 다시 구매할 정도’라는 자부심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뛰어난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끊임없는 홍보활동의 결과는 곧 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수협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포장지 개선, 상품라인업 다양화 등 경쟁력 확보와 시식행사, 언론홍보, 요리법강좌 등 수출마케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수출 1,000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생선회와 초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수협중앙회는 활어소비를 촉진하고, 직판사업의 신규 수익사업 창출을 위해 편의점 형태의 소형수산물 전문매장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별해별매’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신규 가맹사업에 새롭게 도전했던 것이다. 이때 수협중앙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은 활어회를 숙성시켜 맛과 풍미를 더한 ‘싱싱회’의 보급이다.

2004년 여의도점 오픈을 시작으로 출발한 브랜드 ‘별해별매’는 시작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내에 가맹점이 23개로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프랜차이즈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식생활 문화를 단번에 바꾸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회’란 “떨떡떨떡 뛰는 생선을 바로 잡아 회로 떠야만 맛 볼 수 있지, 죽은 것은 맛이 떨어진다”는 활어회 우선주의와 숙성시킨 회에 대해 느끼는 거부감 등 고정관념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게 되었고, 결국 부득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부터 4년 간 총 30개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맹점을 개점했으나, 적자 누적에 따라 자체 경영진단을 거쳐 사업 종료에 이른 ‘별해별매’ 사업은 결과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실패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숙성시킨 회’라는 새로운 식생활 문화, 더 나은 수산물을 전파하고자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고도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었다.

04

우리의 바다, 우리의 어업, 수협이 지킨다



독도지킴이의 주역으로

»

독도는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우리 영토, 우리 땅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1952년 1월 18일 우리정부가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세칭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을 계기로 독도가 한·일 간의 분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1998년 12월 28일 ‘한일신어업협정’과 관련해 바다영토를 획책하려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새로이 제기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더욱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시마네현에서 2005년 3월 16일을 소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게 되면서, 한일 간의 독도 영토분쟁은 절정에 달했다.

전국 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수협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독도에 대한



독도보전 결기대회 개최(2005년 3월 23일)



독도연구보전협회에 '독도사랑기금' 전달

올바른 가치정립과 그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독도지킴이’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05년 3월 23일 전국 일선 수협 조합장과 임직원 700여 명이 함께 독도보전결기대회를 열어 성명서를 채택하고, 잠실청사와 서울역에서 가두행진을 벌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자국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만행이 벌어졌던 2008년에는 이것을 명백한 주권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독도수호를 위해 보다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규탄서를 채택하고 전임직원이 거리로 나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협은 상품판매, 홍보 등 전 국민의 독도수호 정신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96년부터 독도사랑 예금·부금·카드의 공익상품을 판매하고 일정 금액을 수협은행 부담

독도수호 결의대회 성명서

—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 어업인들은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명기 검증 승인에 이어 외교청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기한 데 대해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천혜의 수산자원 보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독도는 그동안 우리 국민이 가꾸고 지켜온 우리 영토로서 우리 수산업 발전과 함께 해온 산증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고 역사적·지리적으로도 우리의 영토인 것이 명확한 만큼 더 이상 시비를 가릴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앞으로도 지금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친인공노할 만행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우리 어업인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며 지나간 역사에 대해 일본이 자성과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스스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려는 양국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호시탐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만행을 일삼으며 양국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외면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 어업인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을 기만하며 독도 침탈행위를 일삼는 일본정부의 만행에 대해 전국 어업인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독도 도발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어업인들은 독도어장이 자손만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의 국토이며 우리 어업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은 우리 어업인들의 혼이 살아 숨쉬고 조상의 숨결이 담겨 있는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영토분쟁으로 물고 가려는 어리석은 작태를 멈추고 양국의 어두운 과거사를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0.04.14
전국어업인 일동

으로 '독도사랑海기금'을 조성하였다. 1997년부터 매년 독도연구보전협회에 기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까지 총 2억 4,4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다. 전달된 기금은 독도관련 유관단체의 학술지원활동 및 홍보활동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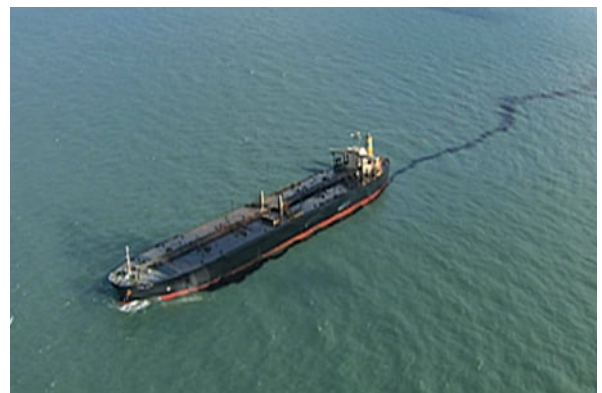
또한 2011년 7월에는 독도어장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도동 어촌계와 독도수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독도경비대를 직접 방문해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노력은 사이버세상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땅 독도를 알리고 지키기 위해 2011년 9월에는 '독도어장지킴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어업인들의 중요한 생활터전인 독도어장을 바로 알리기 위해 어장의 가치와 수산물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독도에서 생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코너를 마련해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일본이 야욕의 발톱을 세우고 우리 땅 독도를 넘볼 때마다 그들의 만행을 꾸짖고 적극적인 행동과 어업인을 위한 지원에 앞장서 왔듯이, 수협은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과 함께 독도와 우리 영해를 수호해 나가는 민간 독도 경비대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죽음의 바다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름 '수협'

»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전 연안이 초토화되고 말았다.



태안군 기름 유출 사고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홍콩 선적 ‘허베이 스피리트(Hebei Spirit)호’와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삼성중공업 소속 부선(解船, 바지선)이 서로 충돌하면서 일어난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 대참사로 인해 원유 12,547kl 이상이 바다로 흘러들어 천혜의 경관과 자원을 자랑하던 태안지역의 해상국립공원과 연안어장은 하루아침에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다. 수협중앙회는 사고 직후 누구보다 빨리 현장으로 달려가 사태를 확인했고 실무팀과 현장작업반을 구성하여 사고 다음 날 200여 명의 직원을 급파했다. 이후 20여 일 동안 연인원 5,000여 명의 직원들이 방제작업에 착수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국민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국에서 몰려들어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 그러나 100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발길은 줄어들었고, 다시 한 번 200여 명의 직원들을 태안으로 보내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유류 오염 사고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어 사고지역에 배포해 어업인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게다가 방제장비 4톤을 구입해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신속한 현장지원과 더불어 해양수산부에 피해 어업인 보호 대책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피해 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신속한 어업 재개를 위해 특별영여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영여자금

총 지원 규모는 100억 원, 대출금리는 연 3.0%로서, 이 긴급 지원은 재해 피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운전자금 성격의 정책자금이었다. 따라서 재해대책특별보증 대상자금에 해당되어 피해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이종구 회장과 조합장 23명은 서울시 서초구 삼성중공업 본사를 방문, 삼성 측에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와 더불어 피해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항의 방문에서 “건국 이래 최악의 바다 재앙으로 불리는 기름 유출에 대해 삼성중공업측이 피해 어업인들에게 한 마디 위로나 사과도 없이 그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삼성중공업에 사고 원인을 명백히 밝힐 것과 기름으로 오염된 서해안과 남해안 어장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심각한 피해를 본 어업인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즉각 밝혀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수협은행은 태안사고 성금모금계좌를 통해 성금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상호금융은 ‘트리플 크라운예금’이라는 신상품을 출시하여 예금 수익의 일부를 수협 부담으로 서해안 돕기 성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또한 ‘고객과 함께하는 바다사랑, 태안사랑’이라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서해안을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다.



‘서해안 희망 살리기 프로젝트’ 진행(충남 태안 학암포)



안전조업상황실 관제시스템 구축 준공



'행복해'-어업인 복지정보 포털사이트(www.happybada.co.kr)

이후에도 '서해안 희망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지역 어업인들을 도왔다. 우선 매년 여름철 실시하고 있는 '사랑해 서머 페스티벌'을 2008년에는 태안군 꽃지해수욕장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실시하고, 어촌체험행사와 주변 관광지 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서해안 지역 수산물 기피 현상과 관광객 수요 감소 등의 어려움을 덜고자 했다. 또 도시민들이 여름철 휴가지로 태안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방제활동 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현지 상황을 집중 홍보했다. 이밖에도 '사랑해요 우리바다 우리어촌'을 주제로 대학생 어촌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여전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지역 어업인 2만여 명에게 회장 명의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친서를 발송했다. "지난 1년 동안 어업인들이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어업인 대표로서 무척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그러나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수협을 중심으로 더욱 단합하고 힘을 뭉쳐 어려울수록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곳곳하게 지키면서 국가 식량산업의 주역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어업인 안전조업과 복지시스템 구축

»

2008년 3월 19일에는 어업정보통신본부 상황실에서 안전조업상황관제시스템 구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 관제시

스템은 총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투입, 종합적인 조업 상황 파악과 정보 제공이 용이하도록 디지털광학기술 형식의 중앙 메인 화면과 LCD 형식의 보조화면 등을 설치해 관제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업정보통신과 관련한 각종 운용 장비 및 프로그램에 첨단기술을 도입했다. 이로써 1997년부터 10년간 축적된 약 5,700만 건의 방대한 연구해 어선 조업정보를 어선조업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업종별·연도별·해역별 조업 분포 및 어획 분포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상 긴급 상황 발생 및 태풍 내습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정보서비스가 한층 강화되었다. 더불어 신속한 안전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수협의 어업정보통신국은 1962년 수협 발족과 동시에 국무회의에서 어업통신 일원화 시책 결정으로 수협중앙회가 어업통신을 관장토록 하였으며, 1963년 서울·주문진·제주 무선국 개설을 시작으로 2011년 말 현재 본부 안전조업상황실을 포함, 전국 주요 연안에서 총 17개의 어업정보통신국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9년 8월 6일부터는 어업인 전업(轉業) 지원, 복지 및 교육정보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어업인을 위한 복지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행복해'로 명명된 이 사이트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구축하여 어업인들에게 일자리·복지·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수협의 온라인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제3장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 - 창립 반세기

바다 너머 미래를 봅니다

2012년 4월 1일, 수협은 역사적인 50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였다.

그 반세기 장구한 역사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수협이 오직 한결 같은 창립정신으로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까닭이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바로 그 아름다운 외길을 되새겨, 새로운 수협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사진설명_ 수협중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어업인을 위한 수협’, ‘진정한 협동조합’의 길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

수협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지역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을 구상한 것은 2007년 1월 이종구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였다. 그 해 6월 20일 해양수산부 브리핑에서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해 어업인의 교육과 의식 수준을 높여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어업인이 농업인이나 도시근로자에 비해 소득이나 생활 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의식 수준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2009년 8월 26일 드디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공식 지정을 받아 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비인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0년 3월에는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마침으로써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행정적 기반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부 참여문화를 조성하고 재원 확충을 통한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스터, 팸플릿, 북마크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이사장 명의의 서신을 보내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수협중앙회와 연계하여 〈어업인수산〉과 〈우리바다〉, 어촌관광안내책자, 수산전문지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0년 5월과 2011년 10월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수협의 전 임원과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상인 및 서울특별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 동참을 유도했다. 동 캠페인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기부금은 어업인을 위해 나아가야 할 재단 본연의 역할에 대해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재단은 또한 기부자들이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상품을 개발·운영하며,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2010년 3월, 재단은 수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노량진수산물시장 판매상인 기부금 전달

수협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카드포인트를 현금과 동일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포인트 기부제도'를 개시하는 한편, 평소 지인의 생일이나 승진, 결혼 등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화환이나 기념품 등을 서로 주고받는 대신 축하하는 사람이 축하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Fresh Donation' 운동을 전개하였다. 'Fresh Donation'이라는 명칭은 신선한 수산물 유통·공급과 건전하고 깨끗한 은행,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을 목표로 주창하는 'Fresh Fish, Fresh Bank'에서 착안한 것으로, 축하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이벤트로서 나눔 문화 확산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신선하고 새로운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는 선도적인 복지재단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2010년 5월에는 'Together 1%' 기부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여 운용하기 시작했다. 'Together 1%' 기부 상품은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 및 매출액 등의 1%를 어업인을 위해 자동이체 형식으로 정기 기부하는 방식이다. 'Together 1%' 기부 상품 운용을 통해 누구나 쉽고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산업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어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기부금 모금 초기 수협중앙회 임직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어업인을 위한 나눔의 실천은 시간이 갈수록 회원조합, 수산 유관기관을 거쳐 일반기업체와 개인 등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었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탈무드의 글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어업인에 대한 나눔의 문화가 이제 사회 각계각층으로 점점 확산되어 밝은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부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기부 = LOVE/GIVE)'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부금 모금활동에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어업인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랑의 기부금 모금액은 2012년 2월 말 현재 6억 원을 돌파했고, 'Together 1%'를 통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인원도 4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이러한 일반적인 현금 기부참여 외에도 본인이 가진 남들과 다른 능력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방식의 '재능기부(Talent Donation)' 참여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흥군수협 사홍만 조합장의 시(詩) 작품 재능기부를 들 수 있다.

어업인에 대한 이러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바탕으로 어업인을 위한 유일한 복지전담기구인 재단은 '어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라는 사업 목표 아래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어업인이 경영주체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향후 어업인들이 정보화·녹색성장시대의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업인 리더 경영마인드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어업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간 실시된 타 교육과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구성한 교육프로그램은 어업인들로부터 높은 만족감과 교육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어업인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업인 73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틀니, 보철, 고관절수술 등의 진료·수술비 등을 지원했다. 7개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시 함으로써 총 17회에 걸친 의료봉사활동으로 낙후된 어촌지역 어업인 1,7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 질병 치료 지원(더불어 와 완치, Together & Cure)'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건강검진 결과 위암·대장암 등이 발견된 어업인들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홍보 포스터

에 대해 즉각적인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도모하였다. 또한, 어촌 주택 및 어업인 공동시설의 보일러 난방시설을 저비용·고효율 태양열 난방시스템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태양열집열기, 축열조, 제어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총 5개소에 태양열난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수산정보의 제공을 위해 전국 31개 위판장에 어항방송 시청시설을 설치하고 어항정보, 연근해 수온정보, 수산물 거래가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어업인의 조업활동을 지원하였다.

외국인선원 및 다문화가정 등 어촌지역사회 구성원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촌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어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에 따라 이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총 56가정, 197명에게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모국방문에 필요한 왕복교통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였고, 어촌지역 인

력부족 현상의 대안으로 멀리 고향을 떠나 추운 날씨에 조업활동에 고생하는 외국인선원에게 기능성 방한복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였다.

또한, 어촌지역 학교 및 수산관련대학, 어업인,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서를 배포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로 하여금 수산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어촌지역에 문화의 싹을 틔우는 역할도 했다.

2012년 3월에는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따뜻한 사랑의 나눔 실천을 통해 재단의 재원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지역 사회의 유지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어업인 복지대상'을 포상함으로써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이끌어가는 복지리더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자발적 기부참여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재단은 앞으로도 어업인의 존재의 이유와 그 소중한 가치를 온 국민들에게 알려 어업인과 어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사회전반에 걸친 어업인을 위한 기부문화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어업인과 함께 눈물 흘린다

》

2010년 3월 26일 서해안 백령도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항해 중 북한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어뢰정에 피격되어 승조원 등 총 104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명이 참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쌍끌이 어선이 동원되었으며, 2010년 4월 2일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소속 '98금양호'도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98금양호가 천안함 침몰 실종 군인 수색 작업을 마치고 조업지역으로 가던 중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호와의 충돌로 침몰하여 선원 9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희생 선원들에 대한 장례가 5일간 수협장(水協葬)으로 치러졌다. 이 사고 수



98금양호 희생자 추모 수협장

습 과정에서 우리 어업인들과 수협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수협은 희생 선원 전원에 대해 어업인 최초로 수협장을 거행하는 동시에 장례 과정에서도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협은 이종구 회장을 위원장으로, 조동길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을 부위원장으로, 수협 임원과 전국 조합장을 장례위원으로 하는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98금양호 선원 침몰자 장례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펼쳤으며, 그 유가족들의 슬픔을 더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수협 임직원들은 천안함과 98금양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약 2,500여만 원의 성금을 마련, 전달하기도 했다. 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수협중앙회 청사 접견실에서 98금양호 선원들 중 외국인선원 2명에 대한 보국포장을 정부를 대신하여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같이 천안함과 98금양호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수협은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 경제적 대변 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사회적으로 재확인시켰다.

2012년 3월 29일 정부는 천안함 희생자 수색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9명의 98금양호 선원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참사 2년 만에 그들의 의로운 희생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희생 당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 사망”이라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면서 또 한 번의 슬픔을 겪으며 울어야 했던 유족들의 눈물이 멈출 수 있게 된 것이다.

2010년 8월 8일에는 한국인 4명과 중국인 3명이 승선한 포항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대승호’가 동해 해상에서

북한에 납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도 수협은 전국 어업인의 서명을 받아 통일부에 전달하는 등 대승호 선원 조기송환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쳤다. 또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의 어선 선주들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종구 회장이 직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조업 중인 어선들에게 안전조업을 당부하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다행히 대승호 선원들은 2010년 9월 7일 북한에 의해 납포된 지 30일 만에 무사히 귀환하였다.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의 통합경영체제 출범

»

수협법 개정과 총회 의결에 따라 2010년 10월 13일에는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이 통합하여 단일 경영체제로 출범했다. 그리고 당시 박규석 경제사업 대표이사가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공적자금을 투입 받은 200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두 사업이 합쳐진 것으로, 이 같은 사업 부문 통합을 계기로 중앙회에서는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하여 회장 직속으로 했으며, 기획관리부와 경제기획부 인사·노무후생·시설관리 등을 통합했다. 회원경영지원부 내 외국인력지원단을 분리해 어업정보통신본부에 통합시켰다. 팀 단위의 이사 직속 기구로는 조합금융리스크관리를 종전 기획관리부에서 분리하고, 경영정보실에서 지도경제사업 종합 IT, IFRS, 상호·공제 전산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바다마트사업부는 2010년 연말까지 바다마트구조개선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밖에도 지사무소의 경우 2011년부터 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업본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지도·경제사업부문 통합 출범에 따라 기구조직은 16부 57팀에서 15부 54팀으로 변경되며 공적자금 투입 이후 분리되었던 조직이 다시 통합되었다. 지도·경제사업의 통합은 그 동안 단혀있었던 두 개 사업부문 간의 인적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계획 및 의사결정 등에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경영방

향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불어 관리기능의 중복과 부문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수협은행과 수협보험의 동반 약진

»

수협은행은 2010년 1월 18일 ‘도약 2010,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의 슬로건으로 경영혁신 선포식을 갖고 2020년대를 향한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각오와 의지를 되새겼다. 공적자금 지원 이후 지속적인 경영혁신운동을 전개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상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유로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의 MOU 약정으로 인해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마저 제한되어 왔다.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류 해양수산은행’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2010 경영혁신운동은 2010년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고 향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원년’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 부문에 특화된 시중은행으로의 도약과 성공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 도전하는 한 해로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2011년 4월 27일에는 외교통상부와 ‘신속 해외송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해외 체류 국민들에 대한 긴급 경비 지원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현금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이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의 수협은행 계좌에 경비를 입금하는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비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다.

한편, 같은 해 8월 금융감독원에서 펀드판매사를 대상으로 펀드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평가점수 96점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펀드미스터리쇼핑은 금감원에서 펀드 완전판매 관행을 정착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으로, 35



‘도약 2010,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 경영혁신 선포식

개 금융기관 600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23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수협은행은 자체 미스터리쇼핑, 영업점 성과평가 반영,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펀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수협보험은 2010년에 수입공제로 실적 7,675억 원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2009년의 실적을 30% 초과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를 계기로 ‘ALL Together Champion 2011’을 2011년도 공제사업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역동적인 사업 전개로 최고의 정상에 오르는 한 해로 만들자”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2010년 10월 13일에는 ‘수협 공제사업 감독기준’이 마련되었다. 새로 제정된 공제사업 감독기준에는 공제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과 보험 모집 시에 지켜야 할 금지 행위 등이 반영되어 있었다. 새로운 수협의 공제 및 보험상품은 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또한 상품공시와 경영공시도 동시에 강화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공제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준이 없었으나, 새로 만들어진 고시를 통해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보험사나 유사보험기관과의 경쟁에서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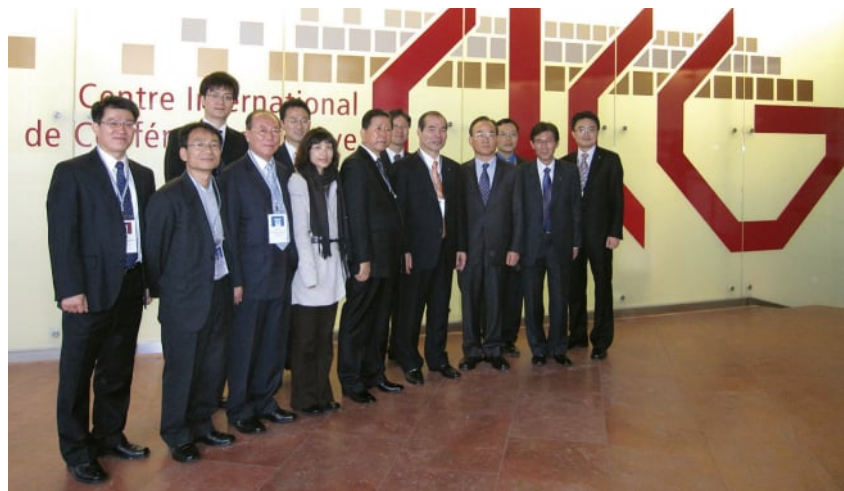
02

대한민국 수협이 세계로, 세계가 대한민국의 수협으로



이종구 회장,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취임

»



이종구 회장, ICA 수산위원회장으로 선출



ICA 수산위원회 소식지

수협은 1979년 3월 1일 제9대 남문희 수협중앙회장 재임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에 처음 가입하면서 세계화의 문을 두드렸다. 이후 국가 위상의 제고와 더불어 수협은 협동조합 관련 국제단체 및 수산 분야 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 수협의 홍보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09년 11월 16일 ICA 수산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수협이 ICA 수산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게 되었다. ICA에 처음 참여한 이

후 30년, 수협은 한국을 넘어 세계의 수협이자 국제 수산단체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2009년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에 따라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처음으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시기였다. 한국 수협 회장의 ICA 수산위원장 선출은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과 수협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제고하게 된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ICA 수산위원회는 ICA 8개 분과기구 중 하나로 1976년



국제 심포지엄 개최-새로운 1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



태국협동조합연맹에 기자재 전달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수협에 대한 수산정보 제공과 각종 교육,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전 세계 수협 간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동조합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기능과 역할을 이어받아, 수협은 ICA 수산위원회를 통해 개도국 협동조합운동 지원, 협동조합 간 정보 교류와 함께 개도국 인재 양성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일환의 하나로 2010년 6월 16일 ICA 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새로운 10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미래 수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이 날의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수산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세계적인 협동조합운동의 권위자인 영국 오픈대 로저 스피어 교수의 '21세기 협동조합이 직면한 5가지 도전'

이라는 기초연설을 시작으로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을 열었으며, 부경대학교 최정운 명예교수는 '한국 수협운동의 역사와 성과 및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 수협 50년 역사와 성과를 소개했다.

이 심포지엄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의 수협이 중심이 되어 세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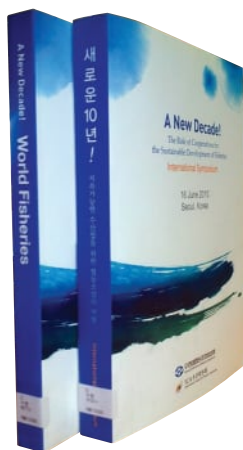
들에게 수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세계 수협의 날' 제정을 제안했다는 점이었다. 이 제안은 세계 협동조합운동의 국제적 리더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한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이어 2010년 9월 2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7개국 ICA 회원단체 대표 15명이 참석한 '2010년도 ICA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선언을 통해 채택된 6월 16일을 '세계 수협의 날'로 제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협중앙회는 2010년 4월 8일 ICA 수산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icfo.coop)를 개설하고, 세계 각국 간 수산정보 교류의 접근성을 대폭 강화했으며, 미국·일본·노르웨이 등 세계 17개 주요 수산국의 수산정책 및 통계 등의 정보를 수록한 『세계의 수산』 국·영문판을 발간하기도 했다. 더불어 국제 심포지엄 및 세계 수협의 날 개최 등 수산위원회 활동현황과 성과를 ICA 본부와 회원단체에 적극 알림으로써 수산위원회 사업 활성화 및 신규 회원단체를 확보하고자 매년 ICA 수산위원회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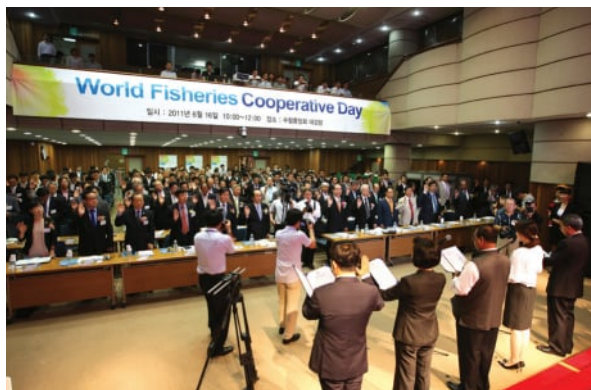
한국 수협,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 개최

»

2011년 6월 16일, 이 날 수협중앙회 강당에서는 세계 수협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행사가 펼쳐졌다.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이 바로 그것이었다. 수협중앙회와 ICA 수산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기념식은 회원 상호 간 우호를 증진하는 한편, 세계 수산업계가 치한 공동



국제 심포지엄 책자(국·영문판)



‘세계 어업인을 위한 수협인의 행동강령’ 선포식



ICA 수산위원회 위원 통영 시찰

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각국 수협이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각국의 관계자들은 이 기념식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를 위해 수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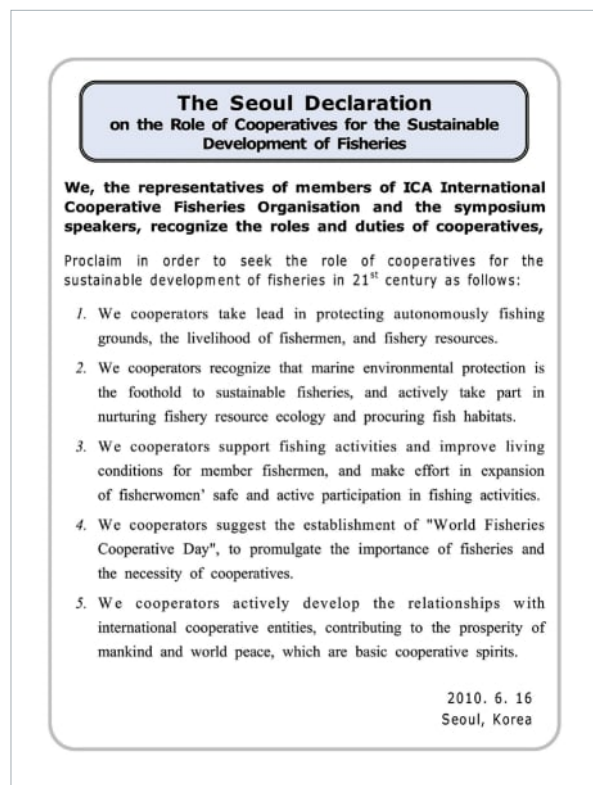
더불어 이 날 행사에서는 ‘세계 어업인을 위한 수협인의 행동강령’에 대한 제정 및 선포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ICA 수산위원회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수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수협의 날’을 통해 미래 세계 수산에 닥칠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이 인류의 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각국 수협이 힘을 모아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전 세계 협동조합의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적 사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 세계 수협인들의 자발적 협력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 『한국 수협의 KSP』 책자 발간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책자는 우리나라 수협의 주요사업인 도시어촌교류, 안전조업지도, 어항방송, 상호금융, 공제사업, 면세유 제도, 수산물 위판제도, 수산물 가격지지, 신용사업, 영어자금 등에 대해 그 추진의 배경과 실행을 통해 얻은 다양한 성과들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CA 수산위원회 회원단체에 지식공유자료로 이 책자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수협의 성공사례를 각 회원국과 단체에 전파하고 성공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전 세계 수협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이 책자를 읽었던 찰스 굴드 ICA 사무총장은 서신을 통해 본인이 지금까지 보아온 협동조합 발전에 관한 책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책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수산업을 위한 놀라운 자원(tremendous resources)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수산업 및 협동조합 발전에 공헌한 지도



서울선언 영문

자와 어업인을 선발하여 어업인 및 협동조합 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세계적으로 어업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수협인상'을 제정하였다. 제1회 세계수협인상수상의 영예는 일본전어련 회장을 역임한 우에무라 쇼지 일본 아오모리현어련 회장이 안았으며, 수상 상금으로 받은 1만 달러 전액을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부함으로써 수상의 의미를 드높였다.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쾌거 ICA 로치데일 파이오니어상 수상

»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지 약 5개월 뒤인 2011년 11월 18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ICA 총회에서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ICA 로치데일 파이오니어상(이하 로치데일 상)을 수상했다. 이종구 회장은 ICA 총회 수상 자리에서 바다에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 세계 어업인들의 복지증진과 협동조합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로치데일 상은 1844년 저임금과 실직에 처한 영국 랭커셔 지방의 직조공 28명이 설립해 전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기폭제가 된 로치데일 공정개척자 조합을 기념하여 제정된 상으로 지난 2001년 처음 제정돼 협동조합운동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협동조합에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01년 ICA 서울 총회에서 첫 수상자를 배출한 이래 전 ICA 회장인 이탈리아 이바노 바베리니 회장을 비롯하여 10개국에서 10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이종구 회장은 지난 2009년 11월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ICA 8개 분과기구 중 사상 처음으로 세계 수협의 날을 제정하여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세계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를 위하여 '세계 어업인을 위한 수협인의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등 회원의 전문성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협동조합을 통한 미래 수산업 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공적을 높이 인정받아 로치데일 상을 수상했다. 또한 베트남, 인도,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7개

국에 수산 기자재와 정보화 기기를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부경대학교에서 한국수협의 KSP(지식공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협동조합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많은 공을 기울였으며, 한국 수협의 주요 사업 추진의 배경과 사업 실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상세히 소개하는 *The Korean Fisheries Cooperatives' Business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발간한 점도 전 세계 수협인들에게 큰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 날의 수상은 전 세계 수협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한 우리 수협의 헌신과 노력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결과이며, 우리 수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격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11월 24일 개최된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회원조합장들이 로치데일 상을 수상한 이종구 회장에게 수상기념 축하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모든 회원조합장들은 로치데일 상 수상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이종구 회장은 “이 상은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애쓰시고 계신 조합장과 현장의 어업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상으로 우리나라 수협이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 더 수협의 발전과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리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KSP교육’

Sharing of expertise and experience for the future fisheries

World Fisheries Cooperative Day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

- 일시 : 2011. 6. 16(목) 10:00~12:00
- 장소 : 수협중앙회 2층 대강당

1부 / 기념식(10:00~11:00)

경과보고
정만화 수산경제연구원장

기념식
이종구 ICA 수산위원회 위원장

축사
할스 굴드 ICA 사무총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문 칸 다오 베트남협동조합연합회장

특별강연
강사: 할스 굴드 ICA 사무총장
주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역할

초청강연
강사: 박대원 KOICA 이사장
주제: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향하여

2부 / 강연(11:10~12:00)

특별강연
강사: 할스 굴드 ICA 사무총장
주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협의 역할

초청강연
강사: 박대원 KOICA 이사장
주제: 대한민국, 성숙한 세계 국가를 향하여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nternational Cooperative Fisheries Organisation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Korea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Council of Korean Cooperatives

제1회 세계 수협의 날 기념식 포스터

수산강국을 향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조합장 헌장 제정과 공동 번영을 위한 노력

»

2011년 4월 14일 수협연수원에서 열린 수산정책워크숍에서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92명의 조합장들은 5개항의 조합장 헌장을 제정·선포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 조합장들은 “자조와 자주, 협동조직인 수협의 조합장으로서 수협 발



수산정책워크숍 개최

조합장 헌장

우리는 자조와 자주, 협동조직인 수협의 조합장으로서 수협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해야하는 엄중한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힘써 행동해야 할 바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실천해 나간다.

- 1 우리는 어업인의 대표인 조합장으로서 성실과 청렴을 바탕으로 솔선해서 협동조합운동을 실천한다.
- 2 우리는 수협의 주인인 어업인이 조합을 믿고 이용하며 능동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를 구축하여 자조조직 체계를 확립한다.
- 3 우리는 창의와 봉사정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청탁과 이권개입 없는 투명한 경영활동으로 건실하고 자주적인 조합경영을 이룩한다.
- 4 우리는 협동을 통해 어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 5 우리는 바다를 소중하게 가꾸며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에 적극 참여하여 항구적인 수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조합장 헌장

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엄중한 사명을 부여 받고 있다”며 ‘조합장 헌장’을 채택했다.

수산미래포럼 개최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지

»

수협은 최근 WTO, FTA로 인하여 수산업과 어촌이 직면한 시장개방 가속화 등 대외환경 변화와 자원감소, 고령화, 어촌인구 감소 등 대내외환경 변화로 인해 수산업 존립 기반이 악화됨에 따라, 미래 식량산업으로서의 수산업 위상 제고와 열악한 어촌의 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수산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수산미래포럼을 2011년 5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제1회 수산미래포럼 개최-‘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발견’

제1회 수산미래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새로운 발견’을 주제로 양식산업의 최근 동향과 양식생산관리지원(Fish Care)의 적용 방안, 갯벌의 가치와 갯벌을 통한 녹색어업의 중요성 제고, 수산업과 고래의 관계 및 포경 재개 여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수산 전문가 및 실무 대표자들이 모여 미래 식량자원으로서의 수산업 위상 제고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더불어 WTO, FTA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어 11월에 개최된 제2회 수산미래포럼에서는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의 ‘한국 수산의 미래에 대한 차세대 수산업 성장동력 구축 방향’ 초청 강연 및 회원 조합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생생하게 전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2회에 걸쳐 실시된 수산미래포럼은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수산업의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수산 전문가 및 실무 대표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렇듯 수협이 보여준 수산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들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져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이끌어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ish Care(양식생산관리지원)’사업이다.

최근 양식어업은 양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양식어류의 질병에 의한 폐사를 증가는 이러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에 따라 어업의 질적인 성장이 요구

되고 있다. 수협은 이에 초점을 두고 부경대학교의 ‘양식어류 건강평가법’을 활용해 양식어가의 생산 및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안전 수산물의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양식어류 건강평가법’이란 어병(魚病)이 양식어류의 건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어류의 건강은 사료의 품질과 급이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에서 착안된 방법이다. 즉, 정기적인 건강평가를 토대로 표준화된 양식 방법을 구축, 어류의 면역력을 제고함으로써 질병의 발생을 저감은 물론 항생제 사용을 줄인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1년 5월 13일 수협중앙회와 부경대학교가 사업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 및 경남지역 양식어가(5개)를 선정,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1년 말에는 대상어가 수가 20개로 확대되었다. 2012년 1월 17일 사업관계자 및 양식어업인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사업 품평회에서는 어업인들과 수산질병관리사들로부터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지원 요청이 쇄도했다.

‘Fish Care(양식생산관리지원)’ 사업은 기존의 치료위



Fish Care 협약식(2011년 5월 13일)

주의 어류관리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어류관리시스템을 과감히 적용한 결과, 향후 양식어업인의 생산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친환경·안전 수산물의 생산이 양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계기로 평가되었다.

수협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서적이 일반인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전문가 위주의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물과 수산업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으로 수산전문도서 보급의 필요성을 주창하여 '수산지식 나눔시리즈' 출간을 추진하였다.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침탈사 발간 출판기념회

이에 2011년 7월 수산제도, 어촌사회, 수산금융 등과 기타 수산 및 어촌관련 전 분야에 걸쳐 원고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2011년 12월 마침내 '수산지식 나눔시리즈' 제1호 『조선시대말 일본의 어업침탈사』(저자 장수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일본이 구한말에서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이르는 약 30년에 걸친 조선의 정국 혼란을 틈타 한반도 전역에서 어업 침탈 행위를 자행하면서 합방 이전에 사실상 연안을 식민지화한 역사적 자료를 일본 현지를 통해 수십 년 간 수집한 수산업 역사서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협은 수산지식 나눔시리즈가 일반인들에게 수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내용과 디자인 제고를

모색하고,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을 부여받아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했다. 특히 도서 판매수익금은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에 기부하여 어촌에 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수산지식 나눔시리즈의 발간은 수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관심제고로 수산자원의 가치 증대, 수산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의 위상 제고를 가져옴과 동시에, 판매수익금이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기부와 연계됨에 따라 새로운 나눔의 방식을 도입한 창의적 사례로 수산계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 차세대 전산시스템

'Nextro(넥스트로)' 구축

》

2002년에 구축된 수협의 기존 전산시스템은 10여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로 인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져왔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신개념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었다. 'Nextro(넥스트로)' 시스템은 금융상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출시까지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 있으며, 상품 영역 확대 적용, 분개 표준화 최초 구현, 365일 수시 결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른 금융권의 차세대 시스템과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명품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수협은 수신, 여신, 카드, 외환 외에 상호금융, 보험, 정책금융 등의 사업도 모두 취급함으로써 타 은행



Nextro 상황실(2011년 9월 14일)

에 비해 전산 개발 범위가 방대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협은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타행의 계정계 위주 차세대 프로젝트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계, 인터넷뱅킹, IFRS시스템 및 각종 위성시스템을 동시에 빅뱅(Big-Bang)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엄청난 개발량과 시스템 간 연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시스템 오픈까지는 많은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었다. Nextro 시스템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비즈니스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에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약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쳤다.

총 888억 원의 구축비용을 투입했으며, IT 부서 및 개발사 직원 등을 포함한 연 최대 투입 인력은 약 550명이었다. 또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4,000여 명 직원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영업점 테스트에 임하는 등 수협 설립 이래 가장 큰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많은 직원들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11년 10월 27일, 차세대 전산시스템 Nextro의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Nextro는 2011년 9월 14일 오픈 당일 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약 400만 건의 거래가 정상마감 처리되며 타 금융기관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오픈을 하였다. 실제로 대형 시중은행도 차세대 시스템 오픈 후 일일결산 마감까지 최소 3일 이상 소요된 것에 비해, 분개 표준화와 영업점 마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모든 영업점의 일일결산 마감을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

Nextro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안정적인 금융



차세대 전산시스템 'Nextro(넥스트로)' 구축 완료 보고회



Nextro 안내 포스터

거래 제공, 고객정보 보호의 보안체계 강화, 계좌번호 선택 기능, 맞춤형 상품정보 제공 등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개방형 표준기반 아키텍처 도입, 채널 거래정보의 통합관리, 상품 팩토리 시스템 등으로 업무의 표준화 및 간소화와 함께 신속한 상품개발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현업 및 IT 담당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다양한 참여사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상품 영역 확대 적용과 분개 표준화 구현 등 다른 금융권과 차별화된 요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쌍방향 신뢰를 쌓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Nextro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고객 니즈를 반영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을 이끌어 나갈 금융 비즈니스 경쟁력의 핵심 기반 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 ‘다음 세대’라는 뜻을 담은 Nextro(New EXtension of The Remarkable Ocean-bank)의 이름 자체가 바로 일류 해양수산은행으로서의 무한한 가능성과 지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한중민간어업협의회에서 불법조업 현황 설명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대회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규탄과 항의

»

중국어선의 잇따른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장의 어자원을 싹쓸이하고 우리 어업인의 어구와 어망에 심각하게 피해를 입히는 등 중국어선의 횡포는 2011년에 들어 극에 달하게 된다.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12월 7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민간어업협의회에서 중국 측 수산관계자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관련 언론 보도자료와 불법조업 현황자료를 보드판으로 제작하고 동영상자료까지 준비하여 중국 측에 전달함으로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생생히 전달하였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 참석한 국내 수산단체 관계자들은 우리 전체 어업인을 대표해 관련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 중국 측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한 수협의 적극적 자세와 그 역할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수협은 12월 14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대회와 가두행진을 벌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분노한 어업인들이 당장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중단할 것을 외치며 거리에 나섰으며 중국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건의서'를 청와대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 항의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대회 가두행진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건의서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서 주인행세를 하며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모조리 짓밟고 있는 바람에 정작 우리 어업인들은 마음대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이나 전도된 형국입니다. 이런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기관의 피해도 막심합니다.

이들은 단속을 저지하기 위하여 도끼 등의 살인적인 도구사용을 서슴지 않는 폭력적이고 집단적인 대항을 해옴으로써 지난해 12월에는 단속과정 중 어선이 전복되어 4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고, 지난 12일에는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해양경찰 1명이 중국선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불법조업으로 소중한 우리 수산자원을 모조리 싹쓸이 해 가는 것도 모자라 평온한 우리 바다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어선들은 서해와 남해에서는 성어와 치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남획하면서 자원의 씨를 모조리 말리고 동해에서는 북한수역에서 무차별적인 어획으로 남쪽으로 회유하는 어종의 씨를 말려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이에 우리 어업인들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어업인들의 마음을 모아 몇 가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통령님께서서는 지난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도 잠시, 중국어선들의 무차별적인 불법조업은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며 녹색성장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을 근절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독불장군식의 성장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협력 속에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양국의 수산업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시어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교육과 계도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라며, 양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어업인과 수산업은 우리 영해를 최일선에서 지켜오고 있는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산식품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지금껏 버텼습니다.

바다에서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당당히 맞서며 주권수호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숭고한 사명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건의를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12.14

전국어업인 일동



전국회원조합장협의회,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대회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 항의서

장신썬 대사님!

최근 들어 중국어선들의 우리 수역에서의 불법조업으로 이 수역의 수산자원 기반을 뒤흔들고 폭력이 난무해 우리 어업인들은 마음놓고 조업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기가 지난 12일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 작전 중 해양경찰 1명이 중국선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어업인들은 마음을 모아 여러 사항을 대사님께 전하오니 우리의 강력한 뜻을 본국에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대해 조직적인 불법어업근절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정부는 자국 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계도해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불법행위 시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의지를 사전에 뿌리 뽑아야 할 것이며 양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 수산자원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풍요로운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어업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사과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이 자국의 영해를 폭력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것은 당연한 주권행사입니다.

이런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아주시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의 처음과 끝은 바로 중국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중국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2011.12.14
전국어업인 일동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착공

»

노량진수산물시장은 수협이 인수한 이후 줄곧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의 대표로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다. 하지만, 개장된 지 수 십년 동안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이 진행된 적이 없어 매우 낡고 열악한 상태였다.

생산자인 우리 어업인과 시장 그리고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5년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다. 어업인들과 상인들 모두 환영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현대화 사업이 도시계획건설과 충돌하면서 사업 승인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관계기관인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안을 조정했고, 시장 현대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2012년 3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최종의결하면서 허가가 승인되었다. 새로운 수산물시장은 대지면적 4만 450㎡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물류시스템도 첨단화되어 자동경매시스템, 창고관리 바코드시스템 등을 구축되게 된다. 더불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적인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단순히 시장으로만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의 랜드마크를 지향해 다양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갖춘 예정이다.



노량진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 조감도

04

창립 50년

– 바다 너머 미래를 보다



반세기 아름다운 길, 영원한 수협의 꿈을 향해

»

2012년 4월 1일, 수협은 역사적인 50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였다. 그 반세기 장구한 역사가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수협이 오직 한결 같은 창립정신으로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까닭이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는 바로 그 아름다운 외길을 되새겨, 새로운 수협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중심에는 ‘수협 뿌리찾기’ 운동의 일화인 수협 50년사 편찬과 수협운동 선각자 전기 발간 사업이 있다. 또 조직의 미래 설계를 위한 경영컨설팅 실시, 50주년 슬로건 및 비전 선포, 50주년 기념 홈페이지 개설, 수산지식나눔, 수산장학금 수여, 바다사랑 어촌 사랑 사진 공모전, 어업인 수기 공모전, 시화전 및 서예전, 특산 수산물 대축제, 홍보 영상물 및 인쇄물 제작, 수산 어촌 대토론회 개최, 고객사은 기념품 개발·판매, 어촌사랑 초등학교 글·그림 공모전, 자전거 국토 해안 대장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및 실무 TF팀이 가동되었으며, 기념사업별 주관 부서장과 팀장 등이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수협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이를 교훈삼아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해 나가

고자 하는 것이다.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수산정책과 제도 선정했다. 2011년 11월 23일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확정하고, 심층 연구와 정리를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10대 수산정책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 FTA 체결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 수협 신용사업 부문 자본구조 개선
- 해양환경 훼손으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방지
- 어업손실보상제도 개선
- 어선원제도 선진화
- 수산·해양 정부조직 일원화
- 어촌계 육성을 통한 수산계통조직 체계화
-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판매제도 개선
- 수산물 유통 혁신
-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 수산협력 추진

FTA 체결에 따른 수산 피해 대책 수립 부문은 직불제와 유가 연동제, 정책자금 금리 인하,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출연 등을 포함했으며, 해양환경 훼손으로 인한 수산피해 발생 방지에는 조력발전 건설과 바다모래 채취, 육상폐기물 투기 등을 더했다. 신용사업 부문 자본구조 개선에는 바젤Ⅲ 도입에 따른 부족자본금 해소 등을 담고 있다.



'비전 2021' 선포-50주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 발표



50주년 기념 엠블럼

‘비전 2021’ –

바다 너머 미래를 봅니다(we see beyond sea)

»

2012년, 창립 50주년의 해를 맞은 수협중앙회는 1월 2일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등 임직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50주년을 기념한 엠블럼과 슬로건을 비롯해 향후 10년의 발전전략을 담은 ‘비전 2021’을 선포했다. 또한 향후 10년의 발전전략을 담아 선포한 ‘비전 2021: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에 그 의지가 그대로 담겼다. ‘비전 2021’은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는 신뢰감을, 임직원에게 자긍심을 주는 수산업 중심체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협동조합이 된다”는 것이다. ‘최고의 협동조합’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산인을 위한 최고의 협동조합,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최고의 협동조합, 임직원의 자랑인 최고의 협동조합이다.

한편, 50주년 기념 엠블럼은 숫자 ‘50’을 통해 과거 50년을 발판으로 더 넓은 미래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0’은 다양한 색상의 물고기가 헤엄치는 지구를 표현한 것으로, ‘글로벌 수산업’으로의 도약과 ‘지구촌의 풍부한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존 및 육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새로운 슬로건인 ‘바다 너머 미래를 봅니다(we see beyond sea)’는 지난 50년간 우리의 생명과 산업 성장의 터전인 바다라는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 수산인과 국민에게 장기적이고 넓은 시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나아가겠다는 실천적 다짐을 담고 있다.

새로운 수협을 향해

»

수협은 IMF를 거치면서 수협중앙회에는 공적자금이 회원조합에는 경영개선자금이 투입되었던 아픈 과거를 짊어진 채 자구책을 강구하며 분투하고 있으나 현재 수협중앙회는 지도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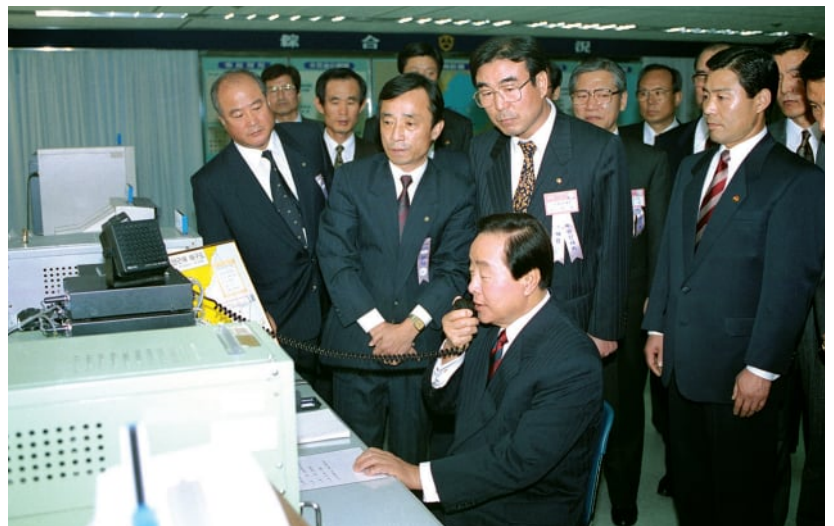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협은 거침없이 도약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위기극복의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달려온 결과 뛰어난 경영실적을 보이며 2011년 회원조합 결산에서 당기순이익이 2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수협중앙회 또한 95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함으로써 3년 연속 회원조합 배당으로 이어졌으며, 회원조합들의 잉여는 수협중앙회 출자금 증대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지는 등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간 동반 성장의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동시에 건전경영달성을 통해 어업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진정한 수협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어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수산업의 성장동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면서 묵묵히 우리 어촌사회를 지켜나갈 것이다.

기획 04

역대 대통령과 우리 바다 그리고 수협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1962년 10월 10일 군함을 타고 울릉도를 찾았다. 당시 박의장이 도착한 도동항은 말이 항구이지 방파제나 접안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초라한 어촌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가원수격인 박의장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측은 별다른 영접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박의장은 보트에서 내리면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 순간 모두가 당황했지만, 박의장의 머릿속에는 “우리 어촌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박의장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울릉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온전한 방파제 하나 없던 저동에는 불과 2년 만에 방파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저동이 동해안 어업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울릉도 주변해역의 풍부한 수산자원 때문이기도 했고, 울릉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 방파제 덕분이기도 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제적 '바다 국경선' 공포- '이승만라인(평화선)'

삼면이 바다이며 해양자원이 중요한 삶의 기반인 우리나라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심과 바다사랑의 정신도 남달랐다. 수협 탄생 이전이던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은 전남 강진에서 어민이 설치해 놓은 그물에 잡힌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를 당시 부산 영도의 부산수산시험장(현 국립수산물과학원)으로 옮겨 기르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불행히도 6·25전쟁 후 병이 들어 죽자, 이에 상심한 이전 대통령은 이 바다거북을 박제로 만들어 대통령 집무공간인 경무대에 보관하다 부산수산시험장에 다시 보내 영구보존토록 했다. 이 바다거북 박제는 2011년 7월 일반에 공개되었다.

수협 창립 50주년의 해인 2012년 1월 18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라인(line)'이라고 불리는 '평화선'을 선포한지 60주년 되는 날이다.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 발표된 것은 6·25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던 1952년 초였다. 1951년 6월에 소련이 휴전을 제의한 이후 곧 있을 휴전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하기 위해 남북 양측은 38선 인근에서 더욱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와중에 당시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18일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 연안수역의 수산자원과 해저 광물 보호는 물론, 소련 및 중국 등 공산국가들, 바다를 둘러싸고 과거부터 분쟁과 침탈이 끊이지 않던 일본으로부터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선언이었다. '이승만라인'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상 최초로 바다의 국경선을 국제적으로 공포한 것이었다. 특히 이 평화선 안에 독도와 그 연해가 포함되어, 독도가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국적을 획득하게 되었다.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시비가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전시 중인
이승만 대통령의 붉은바다거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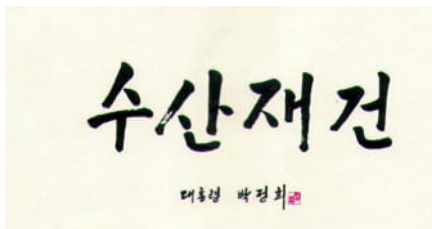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이 지켜낸 독도의 국제적 주권은 더욱 의미가 크다. 이승만 대통령의 해양주권 선언이 발표되자 일본은 '전례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연안어업에 대한 선언'과 '해저와 지하자원에 관한 선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채택한 유사한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이승만 라인'은 이후 한국의 수역 내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는 근거가 되어 우리 영해를 보호했다. 1965년 6월 한일협정 체결에 따라 해양선이 '12해리'로 줄어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한일어업협상에서 독도 근해 일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양보하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의 바다가 존재하는 한,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평화선 선언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수협중앙회 신문로 청사를 방문하여 일일이 관계자를 격려하고 각종 정책을 청취하는 등 수산업과 수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박정희 대통령, 울릉도 앞바다에 빠지다

01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및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1962년 10월 10일 군함을 타고 울릉도를 찾았다. 당시 박의장이 도착한 도동항은 말이 항구이지 방파제나 접안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초라한 어촌에 불과했다. 따라서 국가원수격인 박의장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측은 별다른 영접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박의장은 보트에서 내리면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 순간 모두가 당황했지만, 박의장의 머릿속에는 “우리 어촌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했다.

02





03



04

박의장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울릉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온전한 방파제 하나 없던 저동에는 불과 2년 만에 방파제가 만들어졌다. 이후 저동이 동해안 어업 전진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울릉도 주변해역의 풍부한 수산자원 때문이기도 했고, 울릉도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이 방파제 덕분이기도 했다.

지금도 울릉도 방문에 나섰던 박의장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감사의 마음이 현지의 ‘박의장각하기공비취지문’에 남아있다. 1963년 7월에 건립한 이 기공비에는 박의장 방문 이후 울릉도의 변화상 및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동해의 고도(孤島)인 울릉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역대의 위정자(爲政者)로부터 버림받은 고아가 되어 2만 도민은 단군의 한 피를 받은 배달겨레이면서도 본토의 국민 으로부터 망각된 지 오래였고 현대문명과 격리된 생활을 영위한 지 얼마나 세월이 흘렀던가. (중략) 실의 속에서 살아오는 중 하늘이 무심치 않아 우리 2만 도민에게도 광명 희망의 새날이 찾아왔으니 (중략) 이미 교통선은 취역하게 되고 도내 일주도로 수력 발전소는 착공 중이며 여지(餘地) 개발계획도 착착 진행 중이니 이 얼마나 기쁨에 눈물겨운 일입니까. (하략)”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울릉도는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갔다. 박의장이 울릉도를 방문하기 전까지 저동항은 자연항이었고, 주민들이 해마다 촛대바위 부근에 석축을 쌓았으나 태풍이 한 번 불면 여지없이 휩쓸려 나가곤 했다. 하지만 박의장의 방문 이후 저동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어, 1967년 어업전진기지 지정, 1979년 12월 항만공사 완료 등을 통해 울릉도에서 가장 큰 항구로 거듭났다.

수협을 통해 국정에 반영된 대통령의 바다사랑

수산업과 수산인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은 수협 발족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1968년 5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진단반을 통한 대대적인 수협 경영진단 작

01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

02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울릉도 방문
(1962년 10월 10일) ©국가기록원

03
박정희 대통령 수협중앙회 방문
〈경향신문〉 1969년 2월 14일 1면

04
제1회 수산인대회에서 무선교신을 체험하는 김영삼 대통령
(1993년 10월 23일)



01

01 청와대 신년하례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이방호 회장(1994년 1월 3일)

02 전두환 대통령이 부경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한 '실러캔스' 표본

03 제2회 자율관리어업대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2004년 10월 29일)

업에 나섰다. 수협의 업무와 행정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실시된 이 종합 진단작업 결과 총 63건에 달하는 수협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시정 사항을 제시했으며, 정부는 “수협 운영에 있어서 정부는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 그 이듬해인 1969년에는 수협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방문이 있었다. 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수협중앙회 신문로 청사를 방문하여 일일이 관계자를 격려하고 각종 정책을 청취하는 등 수산업과 수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의 수협 방문은 한국 경제가 급속한 확장과 발전을 이루어가던 당시, 수산물의 대외수출 확대 등으로 수산업의 사업적 가치가 크게 부각되고 수협 역할의 중요성이 대외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한 일이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본부에는 특별한 상황실이 있다. 동해, 서해, 남해에 나가 있는 어선들과 통신하는 어업정보통신본부 안전조업상황실은 인천, 속초, 주문진 등 전국 16곳의 통신국과 더불어 어선들에 다양한 어항 정보와 날씨 등을 알려주고, 어선들로부터 위치와 어획량을 보고 받는 중요한 어업 중심기지다.

이 어선 긴급보고제도는 바로 박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박대통령은 1969년 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통신제도에 관한 설명을 듣다가 “바다에 나가 있는 어선들을 활용해 간첩선이나 적 잠수함 동향을 살피면 어떤가”라고 제안했고, 이 제안이 어선 긴급보고제도 도입의 기반이 되었다. 이 제도는 박대통령의 수협 방문 3개월 후인 1969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이때부터 어선들은 정체불명의 선박이나 잠수함을 보면 ‘긴급보고’를 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수협이 지구별 및 업종별 조합에 대한 정비작업을 단행하고 있던 1972년 초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협 방문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수협 정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농수산부의 주요 과제 제시, 수산청과 수협의 조합정비계획 수립 등이 이어졌다. 특히 수협은 중앙회가 추진 주체가 되어 1972년 4월 25일 각급 조합에 대해 ‘수협합병방침 세부실천계획’을 시달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진행했다.

02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장관에
임명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수협이 인연은
특히 남달랐다.

03

“꿈이 있는 자, 준비된 자, 도전하는 자만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경남 거제도 외포리, 1998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 하의도 출신으로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어민의 후손이었다. 따라서 어촌 경제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으며, 재직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멸치를, 김대중 대통령이 멸치와 김 등 우리 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선택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2000년 9월 김대중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수협의 인연은 특히 남달랐다.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국민적 비판과 두 차례에 걸친 조직축소 등으로 침체 속에 있던 당시 해양수산부의 분위기를 의식하고, 노무현 장관 취임사에서 “꿈이 있는 자, 준비된 자, 도전하는 자만이 바다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해양수산부에 우리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수협은 공적자금 투입 요청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협동조합이라는 특수 사정으로 인한 정부의 관련 부처 간의 의견 대립, 공적자금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에 관한 논쟁 등이 그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해양수산부 노무현 장관의 주도로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되었으며, 결국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4개 관계 부처가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방안에 합의하였다.

2000년 5월 4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순시하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협의 경영정상화는 늦을수록 어민 피해가 커지므로 수협은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여 정부 지원을 받아 빨리 경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수협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채택되었으며, 수협은 위기 극복을 위한 개혁의 큰 길에 들어섰다.



01

01
원양어선 지남호가 어획한 대형 새치와
기념촬영하는 이승만 대통령
©한국원양산업협회

02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흑산도 홍어, 부산 도다리, 포항 과메기 – 우리 수산물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

과거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고급횃감이 광어로 통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멸치 사랑은 유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당선 직후 취임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내식당에서 출입기자들을 격려하며 ‘과메기 파티’를 열기도 했다. 과메기는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의 특산물인 데다 마침 제철음식이기 때문에 상징어족이 된 셈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호남 특산물인 흑산도 홍어로 파티를 열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 부산 도다리가 인기를 끈 데 이어, 새 정부 들어 상징어족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것은, 우리 바다에서 우리 어선들이 잡은 소중한 수산물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이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7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양어선인 ‘지남호’가 어획한 대형 새치를 경무대 정원에 전시해 감상하면서 기념촬영도 했다. 그리고 1968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족들과 같이 최초로 사모아 원양어선 기지를 시찰하면서 선원들을 격려했으며, 1982년에는 전두환 대통령도 대서양의 라스팔마스 원양기지를 시찰하고 선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이처럼 수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성공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함께 쓰다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영남권의 대표적 어업전진기지인 포항 출신 이자 해양 특성화 대학인 목포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수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이런 오랜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을 나흘 앞둔 2008년 2월 21일 농어업단체 대표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고, 당면한 농·어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산단체 대표들은 대통령직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현재와 같은 통합해양행정 체계가 분리되면 수산행정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농업행정과 합칠 경우 규모 면에서 밀려 수산 분야의 존립이 어렵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수산단체 대표들은 수산인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방안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어장 보호 대책 마련’, ‘수산업 어촌 회생을 위한 예산 확충’, ‘수산업 기반 조성 강화 방안 마련’, ‘수협 기능 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 지원 방법 개선’ 등 20여 가지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이 당선자는 이 같은 수산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앞으로 농어업이 1차산업에 머물지 않고 2, 3차산업으로 탈바꿈해 복지 농어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9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공기업 선진화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밝히고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월 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2010년 청와대는 설 명절 선물로 군산수협에서 1.5kg 멸치

1,500박스를 구입하여 각계 주요 인사와 환경미화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다. 그 모습에서 2008년 취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슬로건, 즉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라는 약속이 오늘도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협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수협은 그동안 우리나라 수산인은 물론 수산업의 중심이 되어왔다”며 “정부도 수협이 수산인의 울타리가 되고 최고의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 수산업과 수협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정부와 함께, 오늘도 수협은 ‘국민성공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쓰고 있다.

미래 50년, 수산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열다

수협은 2012년 4월 2일 정부 관계자와 수산단체 대표, 세계협동조합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한민국 최고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단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수협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축사를 했다. “근대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바다로 적극적으로 진출한 민족은 모두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드넓은 대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57년 원양어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한 세대 만에 세계적 경쟁력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 수산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바다를 잘 보호해서, 수산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 풍성한 자원의 보고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50년 간 수협은 수산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우리 수산업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수협이 펼치는 많은 활동 가운데 수산물 유통의 혁신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인들은 더 좋은 값을 받고 소비자들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수산물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수협법 개정을 통해 지도 사업과 경제 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은 이런 역할을 더욱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문성과 규모를 더욱 강화해서, 우리 수산업이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이 되고堂堂히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글로벌 수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수협이 수산인들의 든든한 울타리이자 최고의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협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수협이 주역이 되어 미래 50년 수산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그 면적이 육지의 4.5배나 되는 해양국가이다. 따라서 역대 국정 최고책임자의 바다사랑과 수협에 대한 애정은 우리 민족과 국토의 특성상 매우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역사였다. 그 애정과 역사를 가슴에 새기며, 수협은 민족의 바다를 지키는 일, 수산업을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수협으로 거듭나며 ‘수산강국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 있다.

02

